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제 출 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미래유산 조사·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미래유산 조사·연구

연구기간 : 2021.04.10. – 2021.11.20.

연구지원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기관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강동진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동연구

박훈하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이경일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부교수

박창희 ·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김한근 ·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

이성훈 · 부산학당 대표

홍순연 · (사)삼진이음 이사

한영숙 ·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미성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연구간사

박리디아 · 경성대학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

조효은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김명준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황소정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정다원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목차

1장. 과업 개요 • 007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3. 과업 수행 방식과 특성

2장. 과업의 이해와 논점 • 017

1. 관련 개념 정립
2. 과업 관련 논점

3장. 기 선정 부산미래유산의 경향 분석 및 검토 • 031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2. 분석에 따른 기준 재검토

4장. 제3차 부산미래유산 후보군 선정 • 045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5장.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기초현황조사 • 073

1. 유산의 선정
2. 기초현황조사

6장. 부산미래유산의 지속화 방안 • 191

1. 지속화 방안의 구분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009

- 1.1 과업의 배경
- 1.2 과업의 목적

2. 과업 범위 • 010

- 2.1 시간적 범위
- 2.2 내용적 목적
- 2.3 공간적 배경

3. 과업 수행 방식과 특성 • 012

- 3.1 본 과업의 위상
- 3.2 접근과정
- 3.3 수행 전략
- 3.4 추진 경과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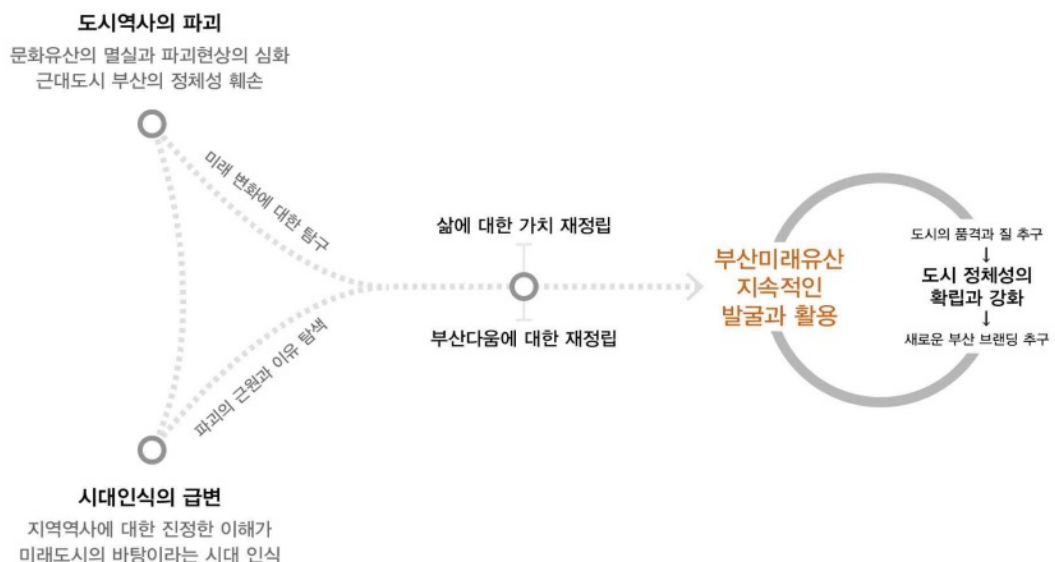
1.1 과업의 배경

- ◇ 도시 내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파괴 현상의 반복
 - 지역성을 대변하는 문화유산의 보전 관련 갈등의 만연
 -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역사도시로 평가받는 부산의 정체성의 점진적 약화
- ◇ 소외받고 있는 지역의 (미래)문화유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 대두
 - 파괴와 훼손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 지역역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실천이 미래도시의 바탕이라는 시대 인식의 변화
 - 무형의 도시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 가치에 대한 본질적 관심 증가
- ◇ 부산의 품격과 질에 대한 판단 기준의 변화
 - 근대역사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미래 브랜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부산미래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성 확보

1.2 과업의 목적

- ◇ 「부산미래유산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 ◇ 부산미래유산의 의미, 가치, 효과 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의 방안 정립
-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2021년도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선정 및 미래유산의 가치 연구

■ 과업 배경



2. 과업 범위

2.1 시간적 범위

- ◇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탄생 이후 현재(2021.11)까지의 전체시간을 포함

2.2 내용적 목적

- ① 제2차 부산미래유산(29건) 자료 검증 및 자료집 발간
 - ◇ 유산 특성에 맞는 기존자료의 보완 및 검증
 - ◇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록화
 - ◇ 유산별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안
 - ◇ 연구 성과를 자료집(별책)으로 발간
- ② 제3차 부산미래유산 후보 선정을 위한 기준 정립
 - ◇ 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 워킹그룹(전문가)의 의견 수렴
- ③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후보 기초현황조사
 - ◇ 워킹그룹·부산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한 부산미래유산 후보군 목록화
 - ◇ 시민·전문가 제안 후보 목록화 및 필터링
 - ◇ 유산의 개요, 보존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 조사
 - ◇ 현장조사, 소유자 면담, 관련 자료 조사 등
 - ◇ 부산미래유산 보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유산 후보군의 설정
- ④ 미래유산 기록 자료 인코딩 및 DB작업
 - ◇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록물 상세목록 작성
 - ◇ 기록 이미지 파일 보정 및 인코딩 파일 변환
 - ◇ 각 미래유산 자료의 주제어 및 검색 키워드 작성
 - ◇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자료제공
- ⑤ 문화유산 지도 제작
 - ◇ 2019년 「부산 미래유산 제도 연구 용역」시 제작한 ‘부산 문화유산 분포지도’에 제2차~3차 부산미래유산 추가·보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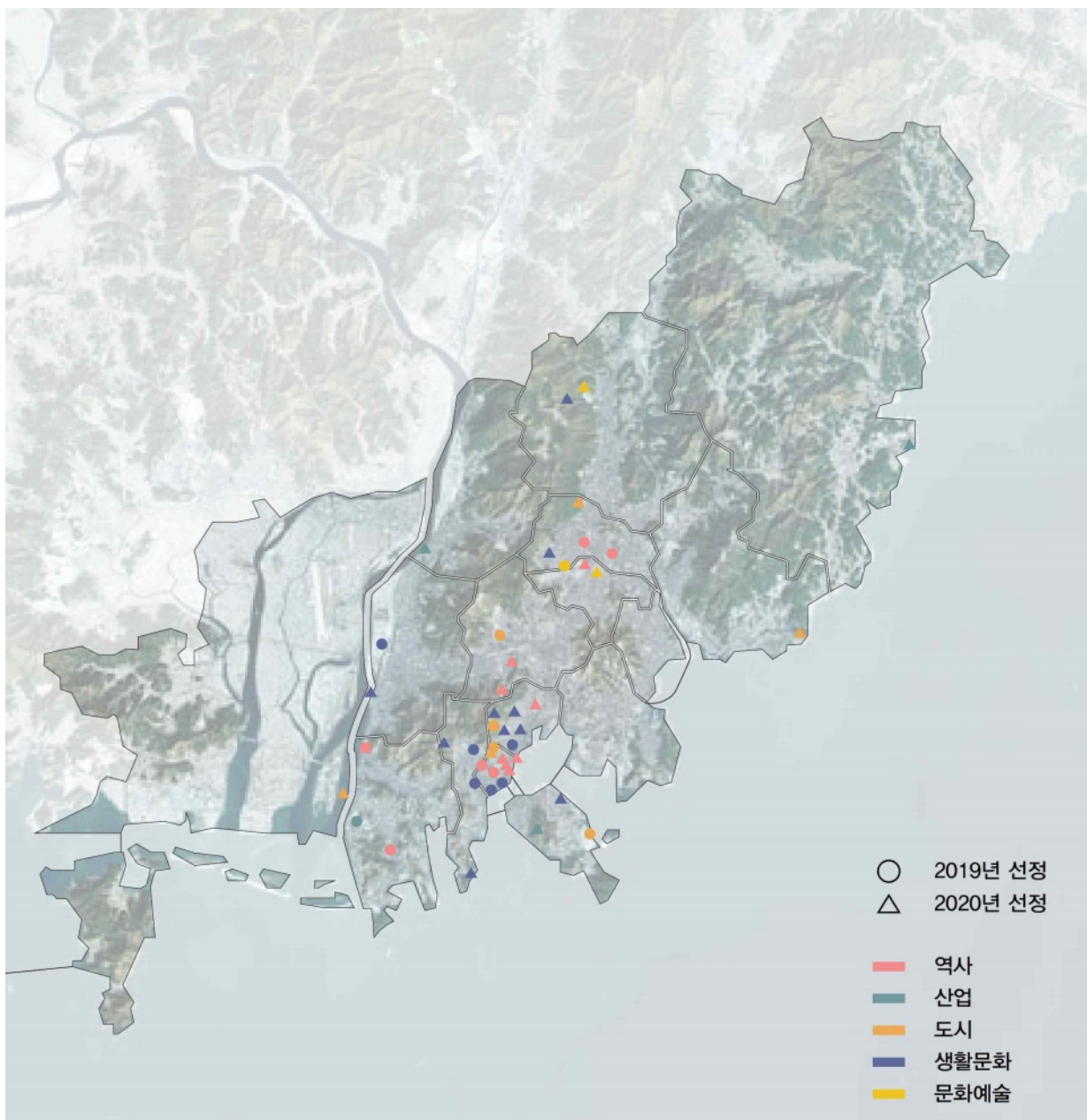
2. 과업 범위

2.3 공간적 배경

◇ 부산광역시 전체 행정구역

- 16개 구 및 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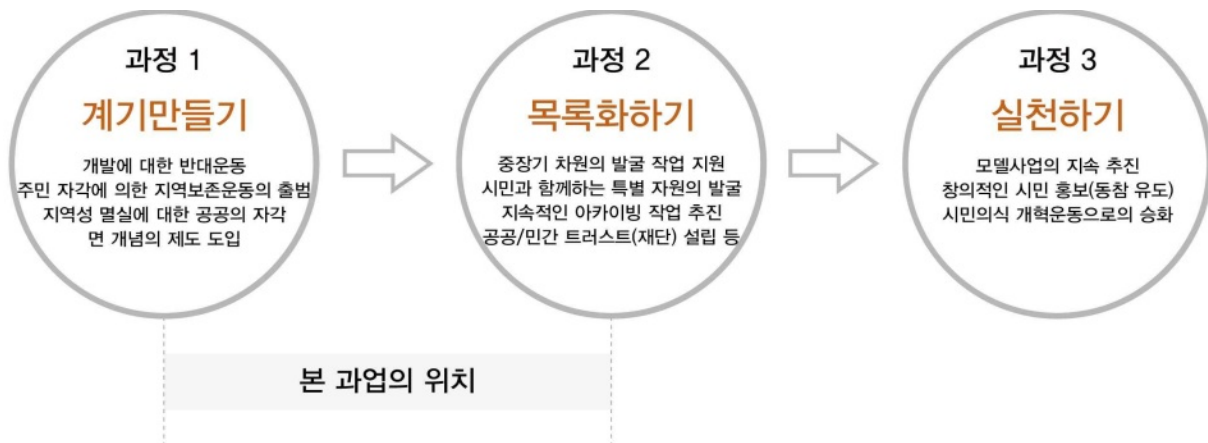


3. 과업 수행의 방식과 특성

3.1 본 과업의 위상

- ◇ 제도(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시민 간의 조율
- ◇ 총체적인 관점(역사/산업/도시/생활문화/문화예술)에서의 접근
- ◇ 지역유산 만들기 과정의 실질적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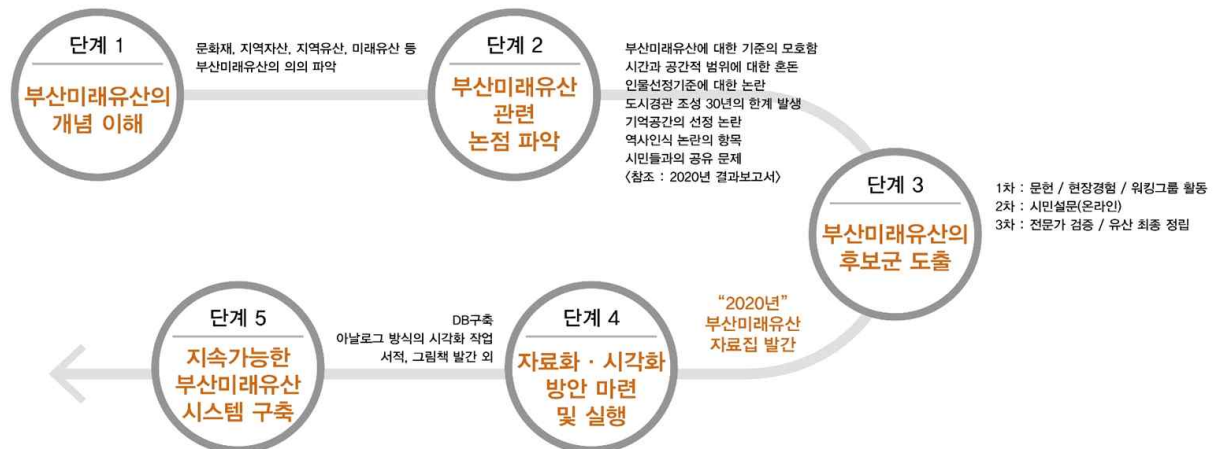
■ 일반적인 지역유산 만들기의 과정



3.2 접근과정

- ◇ 5단계 과정으로 접근

■ 접근 과정



3. 과업 수행의 방식과 특성

3.3 수행 전략

① 체계적으로 부산미래유산 발굴하기

- ◇ 전방위적 관점에서의 유산 찾기
- ◇ 유산의 제 조건에 따른 세분류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② 모두 함께하기

- ◇ 부산미래유산의 발굴을 통한 사회 교류 촉진
- ◇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 발전
- ◇ 시민과 지역전문가의 의견 수렴(온라인 설문조사)
- ◇ 자문단(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로부터의 의견 수렴

③ 지속적으로 하기

- ◇ 부산미래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질적 발전의 실천(안)
- ◇ 자발적 작동체계 제안(안)

■ 접근 전략



3. 과업 수행의 방식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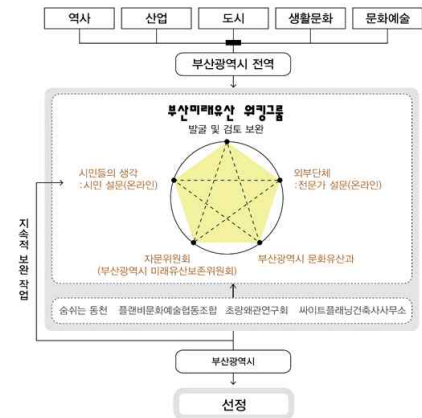
3.4 추진 경과

① 보고 및 자문

- ◇ 2021.04. 사업시작
- ◇ 2021.04.13. 워킹그룹 회의(1차)
- ◇ 2021.04.19. 착수보고회 개최
- ◇ 2021.05.18. 워킹그룹 회의(2차)
- ◇ 2021.06.02. 중간보고회 개최
- ◇ 2021.07.05. 부산미래유산 보존위원회 학술세미나 개최

② 조사 및 회의

- ◇ 2021.04. ~ 2021.11. 총 15회 현장조사 시행
- ◇ 2021.04. ~ 2021.11. 총 20회 자체회의 실시
- ◇ 2021.06.08. 워킹그룹 소회의(1차)
- ◇ 2021.06.10. 워킹그룹 소회의(2차)
- ◇ 2021.06.15. 워킹그룹 소회의(3차)
- ◇ 2021.06.17. 워킹그룹 소회의(4차)
- ◇ 2021.08.05.~2021.08.18. 시민설문 실시



중간보고회



워킹그룹 소회의(1차)



워킹그룹 소회의(2차)



중간보고회



워킹그룹 소회의(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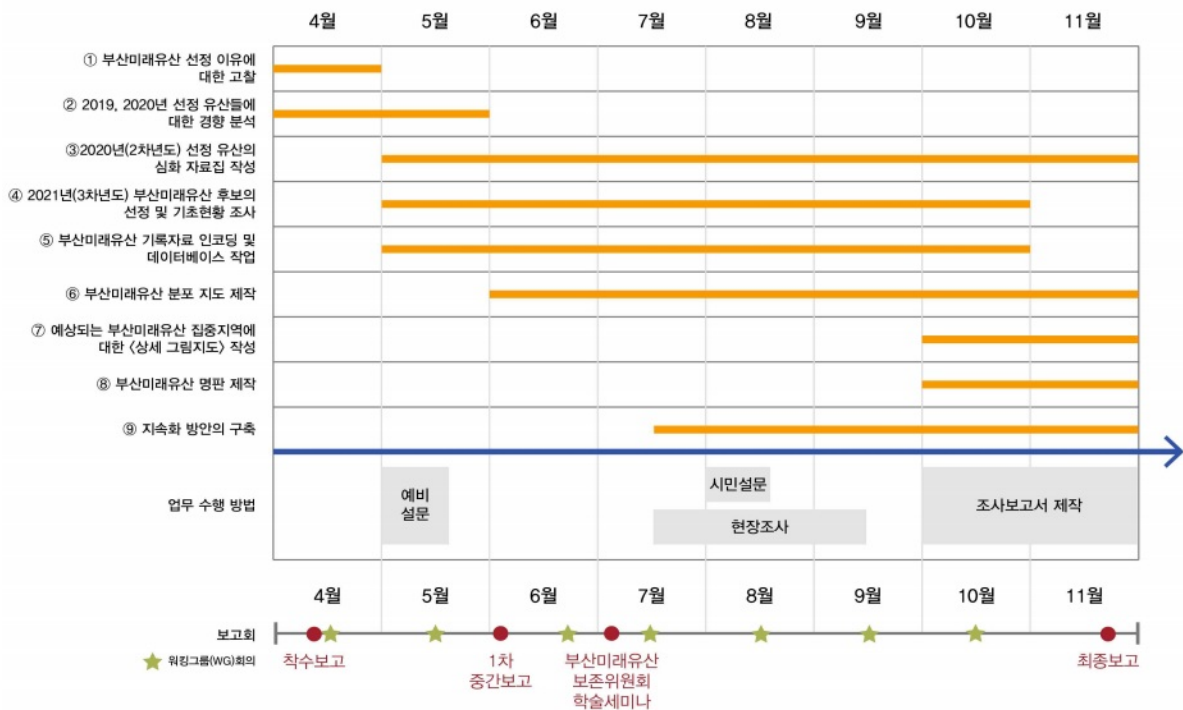
워킹그룹 소회의(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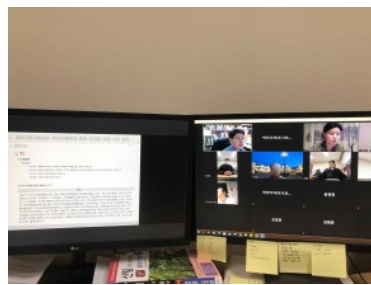
3. 과업 수행의 방식과 특성

3.4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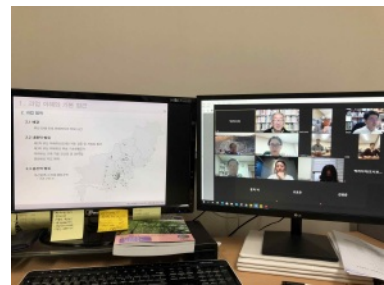
■ 추진 과정



위킹그룹 소회의(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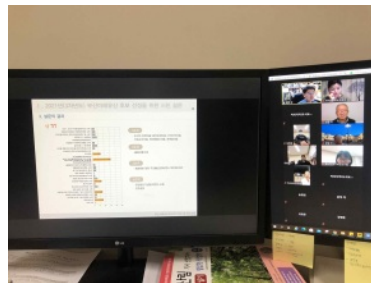
위킹그룹 소회의(4차)



자체 회의



위킹그룹 소회의(3차)



위킹그룹 소회의(4차)



자체 회의



2장

과업의 이해와 논점

1. 관련 개념 정립 • 019

- 1.1 관련 개념의 유형
- 1.2 관련 개념의 정립
- 1.3 유사 사례 비교 검토(1)
- 1.4 유사 사례 비교 검토(2)

2. 과업 관련 논점 • 028

- 2.1 기존 선정기준 검토
- 2.2 신규 선정기준 설정

1. 관련 개념 정립

1.1 관련 개념의 유형

① 유사 개념

- ◇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외
- ◇ 생활 속의 용어 : 문화유산, 지역자산, 도시유산, 근대유산, 생활유산, 역사문화환경 외

② 특별 개념

- ◇ 세계유산(자연/문화/복합), 세계기록유산, 세계무형유산, 문화경관, 근대문화유산, 근대역사 환경, 20세기유산, 기계유산, 정원유산, 산업유산, 농업유산, 어업(어촌)유산, 불편문화유산, 네거티브유산, 경관유산(팔경) 외

1.2 관련 개념의 정립

① 문화유산

- ◇ 재산(財産)이 프로퍼티(property)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암시한다면, 유산(遺産)은 헤리티지(heritage)에 대응하는 말로 사용되며, 과거와의 연결성을 더 강조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음
- ◇ 문화유산은 컬처럴 헤리티지(cultural heritage)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함께 쓰이기 시작 하였으며, 법으로 제한되는 문화재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포괄적 의미로 사용

② 지역자산

- ◇ 자산(資産)은 손익계산에 관한 회계학적 개념이며, 소비되어 현실적 이용성이 없어졌더라도 아직도 수익으로 전화하지 않고 비용으로서 유보되어 있는 것, 즉 나중에 수익으로 전화할 것도 역시 가치를 가지게 됨. 즉, 자산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음
- ◇ 자산 개념의 잠재성에 관한 뉘앙스는 법제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됨. 예를 들어, 자연자산의 경우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가리킴(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 ◇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용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으로, 이는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자산 용어를 사용함.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혹은 아직은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13~14쪽



1. 관련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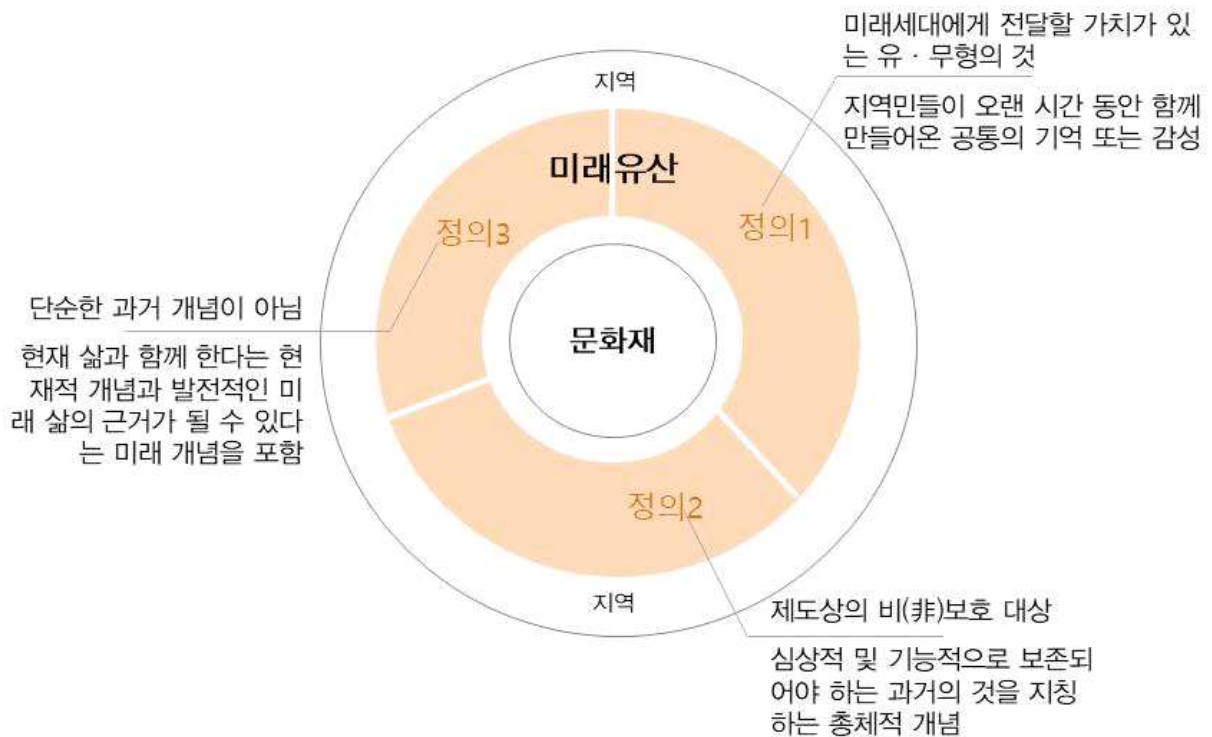
1.2 관련 개념의 정립

- ◇ 즉, 지역자산은 ‘지역의 특성이나 가치를 품거나 대변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미래)가치를 가진 자연(환경,경관,유산 등)과 문화(환경,경관,유산 등)를 포괄하는 총체의 것’으로 정의 가능함

③ 미래유산

- ◇ 종합하여 볼 때, 미래유산은 지역자산에 보다 근접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자 지역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미래유산은 제도적으로 비(非)보호대상을 포함하고, 심상적 및 기능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과거의 것’을 지칭하는 총체적 개념임
- ◇ 그러나 미래유산은 단순한 과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삶과 함께 한다는 ‘현재적 개념’과 발전적인 미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미래 개념’을 포함함

■ 미래유산의 위치



1. 관련 개념 정립

1.3 유사 사례 비교 검토(1)

1) 서울

① 시행일자

- ◇ 매년 1월

② 선정기준

- ◇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 ◇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 ◇ 특색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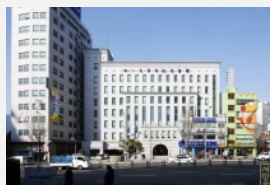
③ 유형분류 및 수량

- ◇ 유형 : 문화예술, 정치역사, 시민생활, 산업노동, 도시관리
- ◇ 수량 : 488개소



서울 미래유산 지도

©산그림 픽처북일리스트



4.19혁명기념도서관



NH농협은행 종로지점



OB맥주 담금술



경춘선 폐철도노선



부산미래유산 공모전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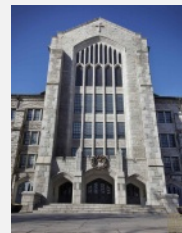
로고



남대문 지하보도



홍릉주택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1. 관련 개념의 정립

1.3 유사 사례 비교 검토(1)

2) 전주

① 시행일자

- ◇ 매년 12월

② 선정기준

- ◇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 ◇ 특색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전주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전주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전주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 ◇ 전주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③ 유형분류 및 수량

- ◇ 유형 : 문화적 인공물, 문화적 행위이야기, 문화적 배경
- ◇ 수량 : 43개소



전주 종합경기장



행치마을



전주 최초 고아원 터



자연사박물관



남부시장



전주 1924



한옥마을



한지제조기술



전주미래유산 포스터 및 팸플렛



약령시거리



이거두리 이야기



서학동 예술마을

©전주미래유산 홈페이지

1. 관련 개념 정립

1.3 유사 사례 비교 검토(1)

3) 홋카이도

① 시행일자

- ◇ 2001년10월22일, 2004년10월22일, 2018년11월1일

② 선정기준

- ◇ 객관적 평가 : 학술적 가치, 미적 가치 등
- ◇ 애착가치
- ◇ 홋카이도다움

③ 유형분류 및 수량

- ◇ 유형 : 역사와 문화, 생활, 산업
- ◇ 수량 : 67개소



홋카이도 유산 지도



로고



홋카이도 유산 포스터



稚内港北防波堤ドーム



空知の炭鉱関連施設と生活文化



石狩川



路面電車



北海道のラーメン



小樽の鉄道遺産

©홋카이도유산 홈페이지

1. 관련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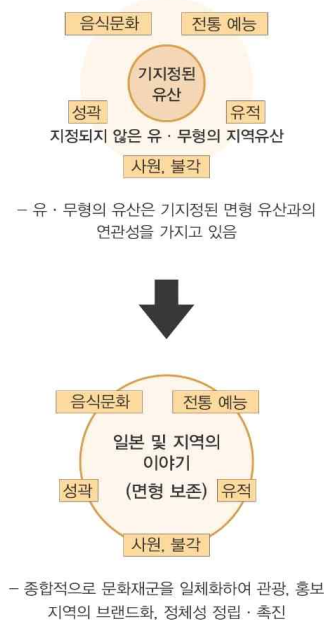
1.4 유사 개념 비교 검토(2)

1) 일본유산(日本遺産)

① 도입배경 및 개념

- ◇ 법이나 제도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받지 못하는 유·무형의 유산들의 보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종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탄생
- ◇ 제도의 지정은 일본사 또는 지역사를 중심으로 연관된 유산을 종합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택함
- ◇ 일본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유산의 등급이나 유·무형에 관계없이 지정가능한 일본유산 제도를 시작
- ◇ 물질 및 비물질 유산간의 상호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함
- ◇ 지역정체성의 강화는 물론 일본다움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확립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유산의 개념



② 시행일자

- ◇ 2015년 시작
- ◇ 매년 지정

③ 선정기준

- ◇ 수세대에 걸쳐 전해져 온 역사적으로 독특한 전통이나 관습
- ◇ 지역의 매력을 뒷받침하고 내러티브의 핵심으로 표현되는 명확한 주제.(구조물, 고고학 유적지, 관광명소 및 지역축제와 같은 문화재 포함)
- ◇ 단순히 지역 역사의 요약과 지역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아닌 내러티브를 포함

④ 유형분류 및 수량

- ◇ 유형 : 연속형, 네트워크형(다수 지자체), 지역형(단일 지자체)
- ◇ 수량 : 104개소(2020년)

⑤ 지정 유형

- ◇ 일본과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는 구전설화, 지역생활, 지역산업과 관련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1. 관련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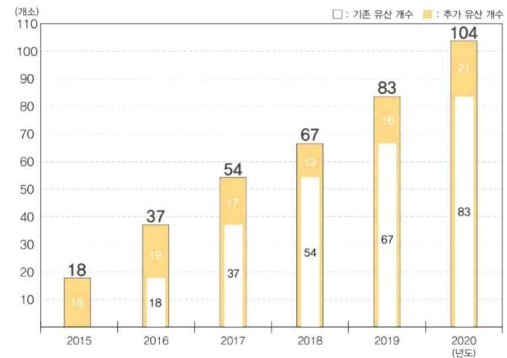
1.4 유사 개념 비교 검토(2)

1) 일본유산(日本遺産)

⑥ 지정 결과 및 지정 추이

- 2021년 현재 104개소가 지정
- 매년 10~20개소씩 증가
- 문화청이 관리의 주체이나 필요에 따라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이 가능

■ 일본유산의 지정 추이



■ 예 : 1400年に渡る悠久の歴史を伝える「最古の国道」竹内街道・横大路大道)
(1400년에 걸친 유구한 역사를 전하는 「최고의国道」 타케우치가도 · 요코오지(대도)



冬の今井町 (겨울의 이마미초)



市の鍛冶職人(사카이시의 대장장이 장인)



三輪山から昇る朝日(삼륜산에서 일출 아사히)



四天王寺の西大門(시텐노지 서대문)



竹内街道灯路祭り(다케우치 가도 등로 축제)



當麻寺 練供養会式(고마지 연공양회식)



1. 관련 개념 정립

1.4 유사 개념 비교 검토(2)

2) 20세기 유산日本の20世紀遺産)

① 도입배경 및 개념

- ◇ ICOMOS ISC20c(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20th Century Heritage)는 각국(30여 개국)에 20세기 유산을 각 20건,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요구
- ◇ 이에 일본은 2013년 20세기 일본학술위원회(NSC20c)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과제에 임했으며, 2017년에 총 21개소의 유산을 지정·발표
- ◇ 선정과 함께 이코모스 일본위원회에서는 “즉시 세계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보호 의식을 양성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할 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② 시행일자

- ◇ 2017년 시작

③ 선정기준

- ◇ 20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20世紀に新たに登場したもの)
- ◇ 19세기까지 존재했으며, 20세기에 진화 및 전개된 것(19世紀までにあり、20世紀に進化・展開したもの)
- ◇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것(歴史上の事件を象徴するもの)
- ◇ 전통과 20세기 유산의 대응합이 가능한 것(伝統と20世紀遺産の対比・融合)
- ◇ 일본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日本」という地域性を表しているもの)

④ 유형분류 및 수량

- ◇ 건축, 산업, 교통, 도시계획 / 21개소

⑤ 지정 유형

- ◇ 20세기 일본은 다양한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고 정착한 시기를 창조, 발전, 도입, 정착, 유지, 지속, 복구, 치유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계유산 등재기준과의 연계

등재기준	OUV 키워드	의미	문화·기술의 변천과정
I	일반적 정립, 걸작	창조, 발전	문화·기술이 도입되고 발전된 경우
II	교류, 전달	도입, 정착	서양에서 문화·기술이 도입된 경우
III	증거	유지, 지속	일본의 고유한 문화·기술이 유지된 경우
IV	형태, 기능, 의미		
VI	연관	복구, 치유	파괴된 문화·기술이 복구된 경우



1. 관련 개념 정립

1.4 유사 개념 비교 검토(2)

■ 20세기 일본유산의 구성과 내용

20세기유산 선정기준			유산명
20세기 새로이 등장한 것 (20世紀に新たに登場したもの)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공간 건축		요요기 옥내 종합경기장
	대규모 인프라 시설	교량	세이칸터널
		철도	신칸센
		발전시설	구로베강 발전시설군
	군사시설과 도시		마이즈루
	도시공원		우에노공원과 문화시설 군
19세기까지 존재했으며, 20세기에 진화 및 전개된 것 (19世紀までにあり、20世紀に進 化・展開したもの)	도시주변부 주택지 개발		남선사의 현대정원군
	보존재생		영빈관 아카사카리궁
	주조업		사이쵸의 주조 시설군
	요업		아리타의 문화적경관
	목조숙박시설		하코네의 목조 숙박시설군
	외래/도입된 해외 기술의 일본적 전개	철도	히사쓰선
		서양식건축	영빈관
		목조숙박시설	다테야마 사방댐
		외래/도입된 해외 기술의 일본적 전개	코이와이 농장
역사상 사건을 상징하는 것 (歴史上の事件を象徴するもの)	관동대지진		스미가와강 교량시설군
	원폭투하		히로시마 원폭돛, 기념공원
	도쿄올림픽		요요기 옥내 종합경기장
전통과 20세기 유산의 대비·융합 (伝統と20世紀遺産の対比・融合)	사찰 경내의 도시공원		우에노공원과 문화시설 군
	성하마을과 모더니즘 건축군		이가우에노마을 문화적경관
	신사 경내와 모더니즘 건축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정원 및 저택과 근대수도		남선사의 현대정원군
	근대화회건축과 현대건축		영빈관 아카사카리궁
	전통주택과 환경공학		세이치쿠이
	건축 디자인과 전통		요요기 옥내 종합경기장



도쿄국립박물관



국립요요기옥내종합경기장



다테야마 사방시설



세토대교



남선사 내 정원



가나가와 현립 근대미술관



사이쵸 주소시설군



신칸센



2. 과업 관련 논점

2.1 기존 선정기준 검토

1) 선정 기준(기준)

- ◇ 부산미래유산의 정의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분야		분야별 기준	비고
역사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상이 반영된 시설물·공간·인물·이야기 등	- 전근대·근대 비지정 문화재 -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생성된 문화유산 - 시기구분은 중세/근대/현대로 구분함	친일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유산 제외
산업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의 성장 배경이 되는 산업유산, 산업활동 공간, 물품, 인물 등	- 부산의 산업시설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품	소유자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 제외
도시	부산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 경관과 구조물 등	- 부산 역사와 도시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항만, 도로(길), 마을, 랜드마크 등	
생활 문화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 반영된 시설물·공간·물품 등	-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문화유산 - 교육, 종교, 의료 관련 생활사적 가치가 축적된 특화거리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등 제외
문화 예술	부산지역의 가치와 시민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시설물, 예술가 등	- 부산지역 시민들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및 관련 시설 - 부산의 상징적 예술가와 활동 -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2. “부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과업 관련 논점

2.2 신규 선정기준 설정

1) 선정 기준의 보완점

① 전제

- ◇ 부산광역시 부삼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주관한 학술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② 선정기준의 보완 방향

- ◇ 유산의 발생 시기는 제한 두지 않음
 - 소멸되고 있거나 소멸이 예상되는 것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정
- ◇ 유산 명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 예 : 돼지국밥 -> 부산의 돼지국밥
- ◇ 추억의 대상들은 제외함
 - 지속성이 결여된 것은 제외하되, 복원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 있음
- ◇ 이미 사라진 것은 제외함
 - 단, 터가 잔존한 것은 예외일 수 있음
- ◇ 추후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대상은 제외함
 - 본 사업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중간과정은 아니기에, 문화재 지정은 고려치 않음
- ◇ 인물의 경우, 실제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기릴 수 있는) 대상(유산)을 발굴함
 - 단순한 기념관, 추모관 등은 지양될 필요 있음

2) 선정기준(신규)

① 소멸과 해체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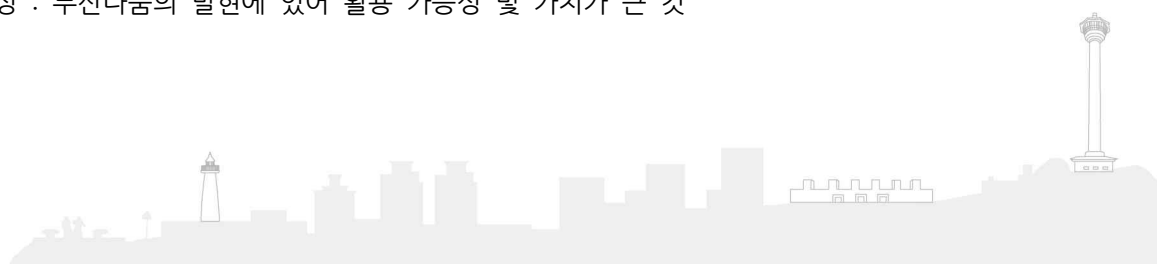
- ◇ 시급성 : 도시개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해체되거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것
- ◇ 회복가능성 : 미래 회복 또는 복원의 가능성을 가진 것

② 부산다움의 발굴과 강화

- ◇ 상징성 : 부산다움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 ◇ 희소성 : 전국 차원에서 희소한 가치를 보유한 특별한 것

③ 전승·유지를 위해 전통보존 및 성능강화가 필요한 것

- ◇ 지속성 : 현재에도 전통적인 기술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재현이 시행되고 있는 것
- ◇ 잠재성 : 점진적으로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 미래성 : 부산다움의 발현에 있어 활용 가능성 및 가치가 큰 것



2. 과업 관련 논점

2.2 신규 선정기준 설정

■ 선정기준

	역사*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분야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상이 반영된 시설물·공간·인물·이야기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의 성장 배경이 되는 산업유산, 산업활동 공간, 물품, 인물 등	부산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 경관과 구조물 등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 반영된 시설물·공간·물품 등	부산지역의 가치와 시민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시설물, 예술가 등
	* 친일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유산 제외	** 소유자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 제외		***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등 제외	
분야별 기준	- 전근대·근대 비지정 문화재 -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생성된 문화유산 - 시기구분은 중세/근대/현대로 구분함	- 부산의 산업시설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품	- 부산 역사와 도시 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항만, 도로(길), 마을, 랜드마크 등	-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문화유산 - 교육, 종교, 의료 관련 생활사적 가치가 축적된 특화거리	- 부산지역 시민들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및 관련 시설 - 부산의 상징적 예술가와 활동 -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
선정 기준(신규)	①소멸과 해체에 대한 대응		②부산다움의 발굴과 강화		③전승·유지를 위해 전통보존 및 성능강화가 필요한 것
	①-1. 시급성 : 도시개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해체되거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것 ①-2. 회복가능성 : 미래 회복 또는 복원의 가능성을 가진 것		②-1. 상징성 : 부산다움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②-2. 희소성 : 전국 차원에서 희소한 가치를 보유한 특별한 것		③-1. 지속성 : 현재에도 전통적인 기술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재현이 시행되고 있는 것 ③-2. 잠재성 : 점진적으로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③-3. 미래성 : 부산다움의 발현에 있어 활용 가능성 및 가치가 큰 것



3장

기 선정

부산미래유산의

경향 분석 및 검토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 033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1.2 기준별 분석

2. 분석에 따른 기준 재검토 • 042

2.1 검토

2.2 기 선정 유산에 대한 소주제별 분류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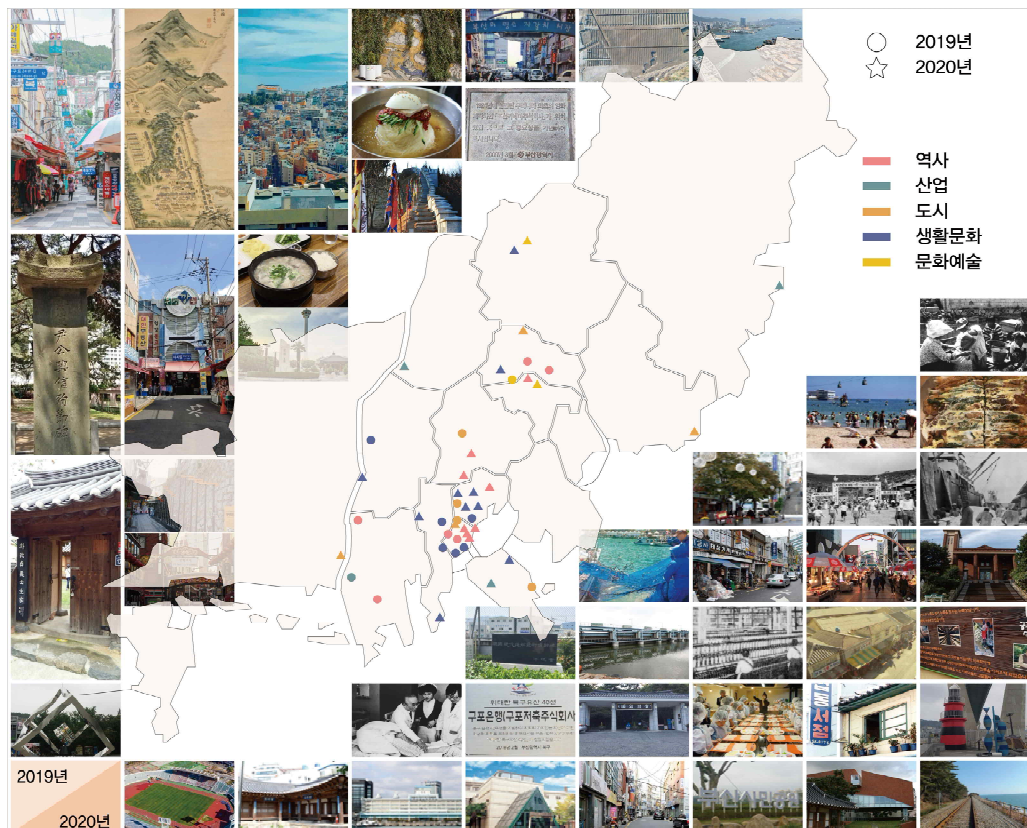
1) 총괄 : 년도별

① 2019년(1차년도) 선정 결과 : 총 20건

- ◇ 부마민주항쟁, 초량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다대진성, 박차정생가터, 6월 항쟁도, 명지염전, 산북도로, 용두산공원, 영도선착장, 어린이대공원, 부산사투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부평강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돼지국밥, 밀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

② 2020년(2차년도) 선정 결과 : 총 29건

- ◇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부산세관, 동래기영회, 조선방직총파업, 부산부두총파업,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어묵, 기장 대명치, 구포은행, 근대조선업발상지, 남선창고, 금강공원, 동해남부선, 제뢰등대, 녹산 제1수문, 부산터널, 송도해수욕장, 장기려기념관, 금정산성 누룩방, 동래파전, 낙동강 재첩국,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동광동인쇄골목, 부전동공구골목, BIFF광장, 요산문학관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2) 총괄

① 역사(14건)

- ◇ 2019년(1차년도) : 부마민주항쟁, 초량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다대진성, 박차정 생가터, 6월항쟁도
- ◇ 2020년(2차년도) :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부산세관, 동래기영회, 조선방직 총파업,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부산부두총파업

② 산업(6건)

- ◇ 2019년(1차년도) : 명지 염전
- ◇ 2020년(2차년도) : 어묵, 기장대멸치, 구포은행, 근대 조선업 발상지, 남선창고

③ 도시(9건)

- ◇ 2019년(1차년도) : 산복도로, 용두산공원, 영도선착장, 어린이대공원
- ◇ 2020년(2차년도) : 금강공원, 동해남부선, 제뢰등대, 녹산제1수문, 부산터널

④ 생활문화(17건)

- ◇ 2019년(1차년도) : 부산사투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부평 갯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돼지국밥, 밀면
- ◇ 2020년(2차년도) : 송도 해수욕장, 장기려기념관, 금정산성누룩방, 동래파전, 낙동강 재첩국,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동광동 인쇄골목, 부전동공구골목

⑤ 문화예술(3건)

- ◇ 2019년(1차년도) : 조선키네마주식회사
- ◇ 2020년(2차년도) : BIFF광장, 요산문학관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3) 2020년도(2차)의 선정 사유

역사

번호	명칭	시기	소재지	선정사유
21	부산시민공원	2014년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1920년대 경마장으로 준공되어, 이후 일제의 군속훈련소로 사용되었으며, 6.25전쟁기에는 주한미군사령부 주둔지 캠프 하리아리로 활용되는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반환운동으로 부산시민의 주체적 역할을 드러낸 것으로 부산 근현대사의 주요한 현장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22	40계단	근대	중구 중앙동 1가 일원	6.25전쟁 당시 40계단 주변으로 판자촌을 이루게 되고 피란민들의 생계를 위한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 유명하였음. 영주동 뒷산, 동광동, 보수동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10만이 넘는 피란민들에게 가장 친근했던 장소이며 피란의 현장과 피란민들의 애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
23	백산기념관	1995년	중구 백산길 11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전개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장소이자, 민족교육과 민족자본 육성을 통해 자주독립 사상의 고취를 중시했던 백산 안회제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
24	부산세관	근대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은 근대 첫 개항장, 국제무역항이라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음. 1979년 부산시의 도시계획으로 건물은 철거되고, 구 세관 청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인 종탑이 현 세관 청사 뜰에 이전, 설치됨
25	동래기영회	1846년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	조선후기 동래부 동헌에서 근무한 하급 관리 및 그 후예들의 조직으로, 이들은 조선후기 국방과 외교,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래부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중세에 설립된 조직이 근대사회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동래지역을 이끌어 왔고 지역성을 형성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6	조선방직 총파업	1930년	동구 동구 범일동 700	1930년 부산 지역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노동력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여 벌인 총파업. 일제강점기 부산 여성노동자들의 주체성 확립과 역량을 크게 드러낸 쟁의
27	부산양서판매 이용협동조합	1978년	중구 보수동 1가	1978년 부산에서 설립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 시민문화운동 · 민주화운동이라는 세 가지 성격 됨. 마산·서울·대구·울산·수원 등지에서 설립된 양서협동조합의 모델이 됨.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배후, 중부교회와의 관련성 등으로 부산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중요한 단체임.
28	부산부두 총파업	1921년	중구 중앙동 4~6가 일원	1921년 도시 내 동일 부문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전체 고용주를 대상으로 전개한 조선 최초의 대규모 노동쟁의(파업). 일제강점기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산업

번호	명칭	시기	소재지	선정사유
29	어묵	근대	부산광역시 일원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생산되는 생선살을 원료로 한 향토 음식. 일제강점기 이후 어묵 공장이 생겨났음. 6.25 전쟁 중 피란민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산업화 시기에는 서민들의 주요 반찬거리 중 하나였음
30	기장대멸치	근대	기장군 기장을 대변리	대변의 대멸치는 대부분 멸치젓갈로 소비되고 있으며, 대멸치와 멸치젓은 지역 명물로 평가 받고 있음. 멸치회를 맛보거나 멸치젓갈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기장 대멸치는 지역 특산물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음
31	구포은행	1909년	북구 낙동대로 1986 일원	1909년 설립된 구포저축주식회사를 모체로 한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 부산지역 무역상인을 상대로 한 어음 할인을 주요업무로 하여 상업자본을 구하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성장기반을 제공. 당시 구포지역의 유지, 상인층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은행임
32	근대조선업 발상지	1887년	영도구 절영로 82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 설립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로 볼 수 있음
33	남선창고	1900년	동구 초량로13번길 53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창고로서, 우리나라 근대 창고업의 효시. 개항기 부산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유통망, 한국인 객주들의 성장과 활동을 살필 수 있음. 개항 이후 부산항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유산임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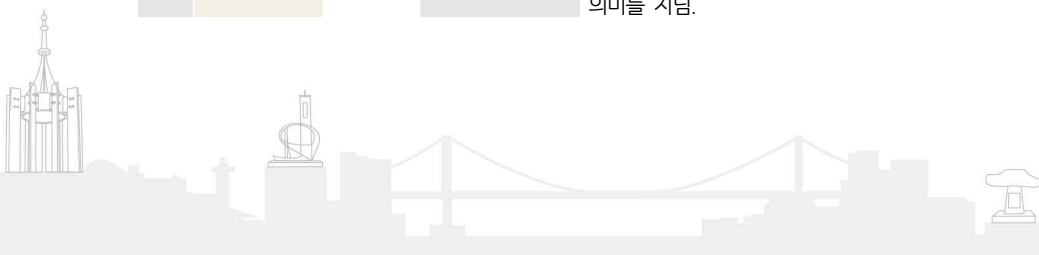
3) 2020년도(2차)의 선정 사유

도시

번호	명칭	시기	소재지	선정사유
34	금강공원	근대	동래구 우장춘로 155	일제강점기 온천장에서 여관을 하던 일본인이 온천욕을 즐기던 손님들을 위하여 조성. 1940년 금강원이라고 명명. 1965년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면서 금강공원으로 명칭 변경. 이후 금강공원 옆에 동물원과 식물원(금강식물원)이 들어서면서 부산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기억을 담재하고 있음. 광복 이후 부산의 첫 근린공원으로서 주변 문화시설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
35	동해남부선	근대	해운대구~기장군	동해남부선은 일제강점기 동해안의 석탄과 목재·광물·해산물 등을 반출하고 함경선과 부산과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였음. 여객 중심의 철도로 동래·울산등지로의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근현대사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66	제뢰등대	1905년	남구 감만동 626-1	제뢰등대는 현존하는 부산의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건축미가 뛰어나
37	낙산 제1수문	1934년	강서구 낙산동 성산마을 일원	강서구 낙산동 성산마을에 설치된 수문. 1930년경 낙동강 직선화 공사로 시작하여 1934년 4월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강과 바다를 가르는 하구둑 수문. 농 업문화재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38	부산터널	1961년	중구 영주동 ~ 서구 동대신동	'부산최초'뿐만 아니라 '국내최초'의 차량용 터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부산항의 화물 물동량이 부산터널을 통과하므로 부산 근대화의 중요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음

생활문화

번호	명칭	시기	소재지	선정사유
39	송도 해수욕장	1913년	서구 암남동 일원	1913년 송도유원을 설립하면서 해안가를 해수욕장으로 조성·개장함. 1960~70년대 위락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전국적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었음.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으로 역사성이 있음
40	장기려 기념관	2013년	동구 영초윗길 48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장기려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이자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효시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한 인물
41	금정산성 누룩방	미상	금정구 산성마을	금정산성 마을 500년 누룩종균은 역사성·지역성·전통성을 지닌 미래적 자산의 가치를 지님
42	동래파전	중세	부산광역시 일원	동래파전의 정확한 유래는 없으나 지역 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동래파전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향토 음식 중 가장 지역성과 향토성을 잘 간직한 음식으로 중요성이 있음.
43	낙동강 재첩국	근대	부산광역시 일원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을 지나면서 형성된 부산의 향토 음식.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의 지형에서 생산되어 만들어진 음식이며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
44	구덕운동장	1928년	서구 망양로 57	일제강점기에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각종 운동경기와 행사가 열렸으며, 부산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45	청학성당	근대	영도구 태종로 340	천주교가 부산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한 성당.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그 궤적을 같이 해온 장소로서 한국사의 격동기에 가톨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46	동광동 인쇄골목	1960년대	중구 동광동, 중구 중앙동 일원	중구 동광동, 중앙동에 위치한 인쇄업체 밀집지역. 동광동 인쇄골목은 부산의 인쇄 산업을 대표하는 골목으로 1960년대부터 인쇄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인쇄 및 출판 관련 점포들이 밀집한 부산 인쇄의 총 본산지가 되었음.
47	부전동 공구골목	현대	부산진구 동천로95번길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 형성된 공구상가 밀집지역. 일제강점기 공업단지로 편입된 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공구, 부품, 기계 업체들과 철물점이 모여 있던 곳. 군부대와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지리적 인접성으로 형성된 골목으로 부산 산업화 현장의 역사적 의미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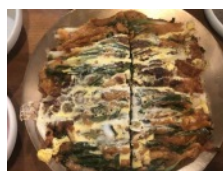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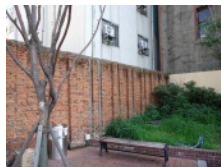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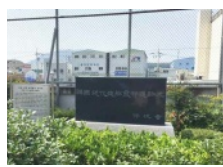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1 2019, 2020년 선정 결과

3) 2020년도(2차)의 선정 사유

문화예술

번호	명칭	시기	소재지	선정사유
48	BIFF광장	1998년	중구 비프광장로 36	일제강점기부터 극장들이 들어서면서 해방 이후 부산지역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음 해방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로 극장들이 사라지고 없지만 남아 있는 흔적과 광장의 조성을 통해 부산이 영화의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음
49	요산문학관	2006년	금정구 팔송로 60-6	요산 김정환(1908~1996)은 현대 시대의 질곡과 민중 고통을 소설로 형성화한 민족 문학 작가. 생가 옆에 문학관을 건립하여 요산 김정환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와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의 문학정신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2 기준별 분석

1) 시기별*

① 근대이전(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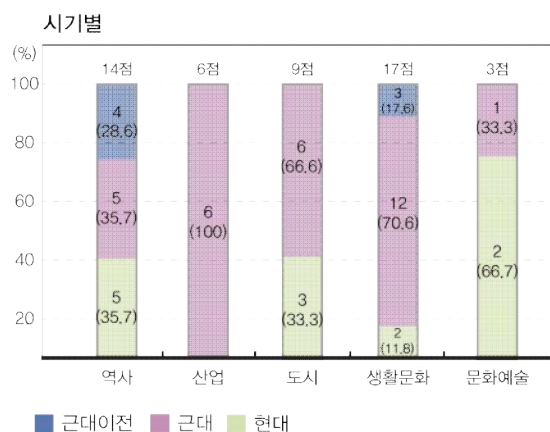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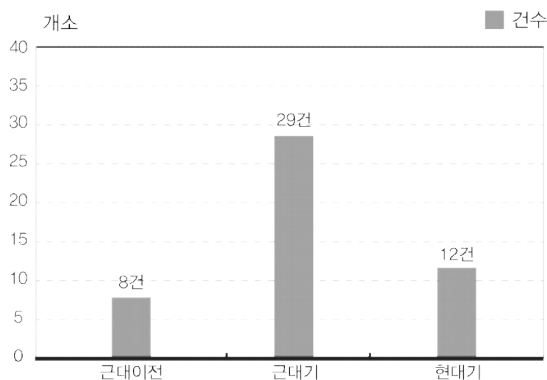
- ◇ 부산사투리, 초량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다대진성, 명지염전, 동래기영회, 금정산성 누룩방, 동래파전

② 근대기(29건)

- ◇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영도선착장, 보수동책방골목, 돼지국밥, 밀면,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조선키네마주식회사, 박차정생가터, 부평강통시장, 40계단, 부산세관, 조선방직총파업, 부산부두총파업, 어묵, 기장대멸치, 구포은행, 근대조선업발상지, 남선창고, 금강공원, 동해남부선, 제뢰등대, 녹산 제1수문, 송도해수욕장, 낙동강 재첩국,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부전동공구골목

③ 현대기(12건)

- ◇ 부마민주항쟁, 산복도로, 어린이대공원, 6월항쟁도, 부산시민공원, 부산터널, 백산기념관,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장기려기념관, 동광동인쇄골목, BIFF광장, 요산문학관



* 기준(탄생과 형성의 시점)

- 근대이전 : 1876년 개항 이전에 탄생되거나 형성된 유산
- 근대 : 개항~1963년(부산직할시 승격)에 탄생되거나 형성된 유산
- 현대 : 1963년 이후 탄생되거나 형성된 유산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2 기준별 분석

2) 속성별*

① 유형(2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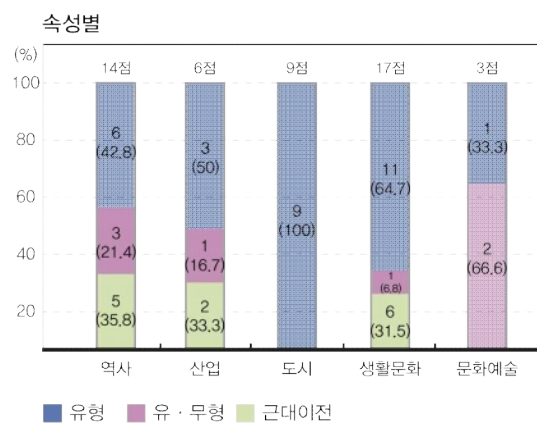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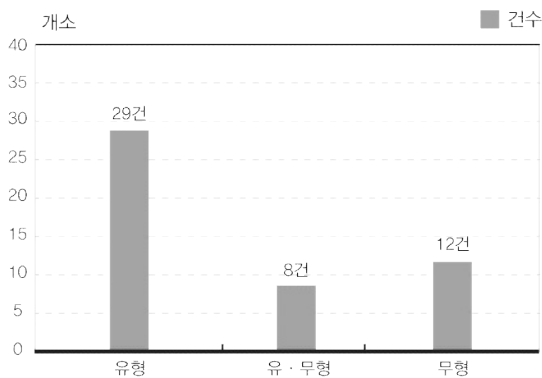
- ◇ 산복도로, 초량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다대진성, 명지염전,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부평깡통시장, 용두산공원, 영도선착장,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부산세관, 구포은행, 남선창고, 금강공원, 동해남부선, 제뢰등대, 녹산제1수문, 부산터널, 송도해수욕장, 금정산성누룩방,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동광동 인쇄골목, 부전동공구골목, BIFF광장

② 유·무형(8건)

- ◇ 조선키네마주식회사, 박차정생가터, 백산기념관, 동래기영회, 근대조선업발상지, 장기려기념관, 요산문학관, 백산기념관

③ 무형(12건)

- ◇ 부마민주항쟁, 부산사투리, 돼지국밥, 밀면, 6월항쟁도, 조선방직총파업,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부산부두총파업, 어묵, 기장대멸치, 동래파전, 낙동강재첩국



* 기준

- 유형 : 형상이나 형체를 가진 유산 / 건축물, 구조물, 장치물, 터 등을 포함
- 무형 :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유산 / 기술, 음식, 조직, 사건, 작품, 인물 등을 포함
- 유무형 : 유형과 무형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유산 / 유형의 유산과 연관성을 가진 무형 유산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2 기준별 분석

3) 현존상태별(존재유무관련)*

① 보존 대상(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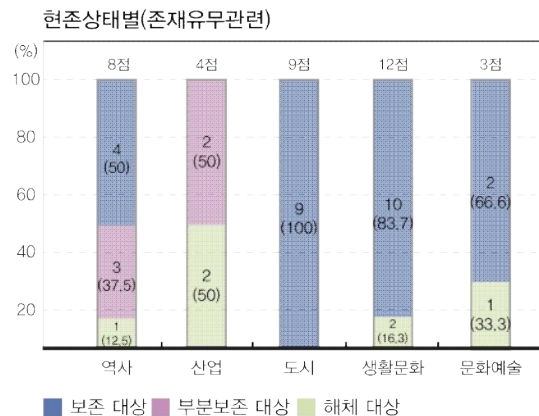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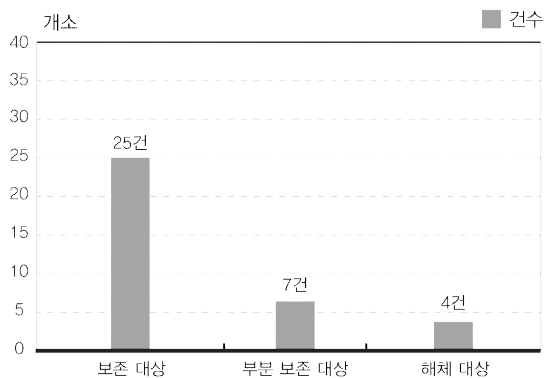
- ◇ 산복도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박차정생가터, 부평강통시장, 용두산공원,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대공원, 영도선착장,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금강공원, 제뢰등대, 녹산제1수문, 부산터널, 송도해수욕장, 장기려기념관, 금정산성누룩방, 청학성당, 동광동인쇄골목, 부전동공구골목, BIFF광장, 요산문학관

② 부분보존 대상(7건)

- ◇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초량왜관, 다대진성, 남선창고, 구포은행, 구덕운동장

③ 해체 대상(4건)

- ◇ 명지염전, 조선키네마주식회사, 부산세관, 근대조선업발상지



* 기준

- 보존 대상 : 원형 또는 변형(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유산
- 부분보존 대상 : 원형을 거의 잃은 상태로, 요소 또는 부분만이 유지되고 있는 유산
- 해체 대상 : 원형이 소멸된 상태의 유산 / 개발 등의 변화로 인해 터(장소)조차 남아있지 않는 유산



1. 기 선정 유산의 경향

1.2 기준별 분석

4) 현존상태별(기능관련)*

① 기능유지(2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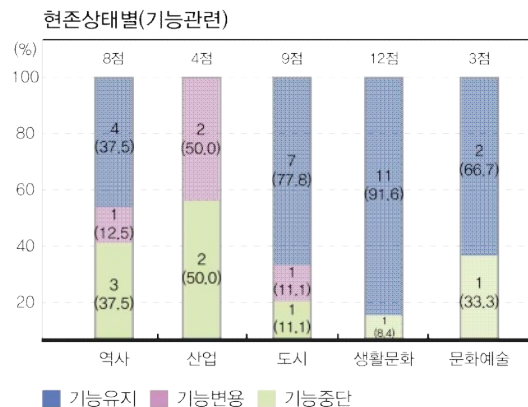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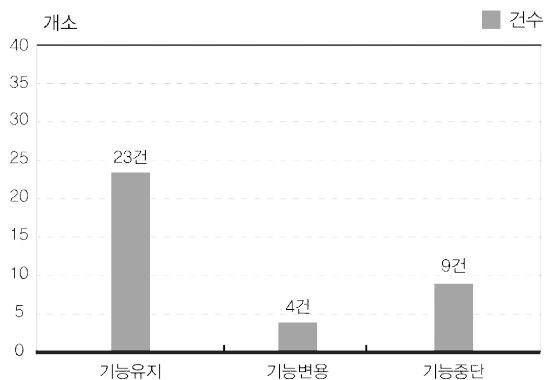
- ◇ 산복도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강통시장, 용두산공원,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대공원, 영도선착장,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금강공원, 녹산제1수문, 부산터널, 송도해수욕장, 장기려기념관, 금정산성누룩방,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동광동인쇄골목, 부전동공구골목, BIFF광장, 요산문학관

② 기능변용(4건)

- ◇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구포은행, 동해남부선

③ 기능중단(9건)

- ◇ 초량왜관, 다대진성, 명지염전, 조선키네마주식회사, 박차정생가터, 근대조선업 발상지, 제외등대, 부산세관, 남선창고



* 기준

- 기능유지 : 유산의 탄생의 근거가 되었거나 연계된 기능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유산
- 기능변용 : 시대 변화에 따라 탄생(형성) 당시의 원 기능은 소멸되었으나, 유사 또는 변형된 기능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산
- 기능중단 : 원기능이 중지되거나 소멸된 유산



2. 분석에 따른 기준 재검토

2.1 검토

- ◇ 기존 선정기준에 대한 7가지 질문과 검토
- ◇ 소주제별 대응 방안의 모색

■ 부산미래유산 선정의 기준 검토

	질문 및 의문	검토	대응
1	5개 주제별 부분이 모든 유산을 포함 할 수 있는가?	5개 주제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나 부산의 소리, 부산의 사투리 등 부산만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의 분류가 모호한 면이 있음	소주제별 접근 모색
2	개별지정방식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개별지정방식의 큰 한계는 유산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 할 수 없는 것임	소주제와 연결된 연속유산 (Serial Heritage) 개념 접목
3	선정된 부산미래유산이 과연 부산다움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부산다움(부산성)에 대한 공통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미래유산의 목적성이 다소 모호함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부산다움과 부산미래유산의 상호 연관 체계 확보
4	양면성을 가지는 유산들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속성이 혼재되어 있어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유산 속성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체계 다각화
5	소멸되거나 해체된 것의 부활과 회복을 지향 할 수 있는가?	부활과 회복을 지향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부재함	유산의 유형별 부활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6	사유재산인 유산들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 방안이 있는가?	사유재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미래유산제도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음	사례 검토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
7	선정 이후에 지속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 제도는 선정만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래의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2 기 선정 유산에 대한 소주제별 분류

① 역사

- ◇ 조선시대 국제교류 및 호국역사
- ◇ 일제강점기의 저항사
- ◇ 대한제국의 개항역사 등
- ◇ 한국전쟁의 전쟁·피란사
- ◇ 민주화 운동 등

② 산업

- ◇ 수산업 관련
- ◇ 물류업 관련
- ◇ 조선업 관련
- ◇ 제조업 관련
- ◇ 기타 산업 및 지원 기능



2. 분석에 따른 기준 재검토

2.2 기 선정유산에 대한 소주제별 분류

③ 도시

- ◇ 부산의 지형적 특성 반영
- ◇ 도시여가시설 관련
- ◇ 공공 건축 및 토목시설 관련
- ◇ 부산을 표현하는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등

④ 생활문화(17건)

- ◇ 전통시장·상업가로·노포 등 상업 관련
- ◇ 피란문화 관련
- ◇ 희생·봉사·박애 정신 관련
- ◇ 부산의 토속성 및 향토성 관련
- ◇ 생활장소로서의 현장
- ◇ 부산 정신의 구심체
- ◇ 기타

⑤ 문화예술(3건)

- ◇ 문화예술 관련 작품 등 결과물
- ◇ 문화예술 관련 활동 등
- ◇ 문화예술 관련 공간 및 시설
- ◇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인물



4장

제3차 부산미래유산 후보군 선정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 047

1.1 개관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 053

2.1 개관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2.3 설문조사의 결과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1 개관

① 시기

◇ 2021.05.10. ~ 2021.05.17.

② 대상

◇ 20~60대의 부산에 애착을 가진 시민단체와 그룹의 구성원

-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 초량왜관연구회
- 숨쉬는 동천
-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③ 후보군 개소

◇ 117건

④ 결과

◇ 43명 응답

⑤ 설문 안내문

부산미래유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나, 부산의 유산 중 미래세대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합니다. 2019년(1차년도) 20건, 2020년(2차년도) 29건 등 총 49건이 현재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 2021년(3차년도) 추가 선정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신규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총 117건의 후보군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산미래유산 후보군 중, 다음 2가지의 원칙에 따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분야별(역사,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5건 이하' 선택(총 25건 이하 선택)

2) 해당분야에 원하는 후보군이 없을 경우에는 '미표기' 가능

또한 아래 후보군 외에 추천하고 싶은 유산들이 있는 경우에는 '⑥ 기타 추가(직접 기입)'란에 직접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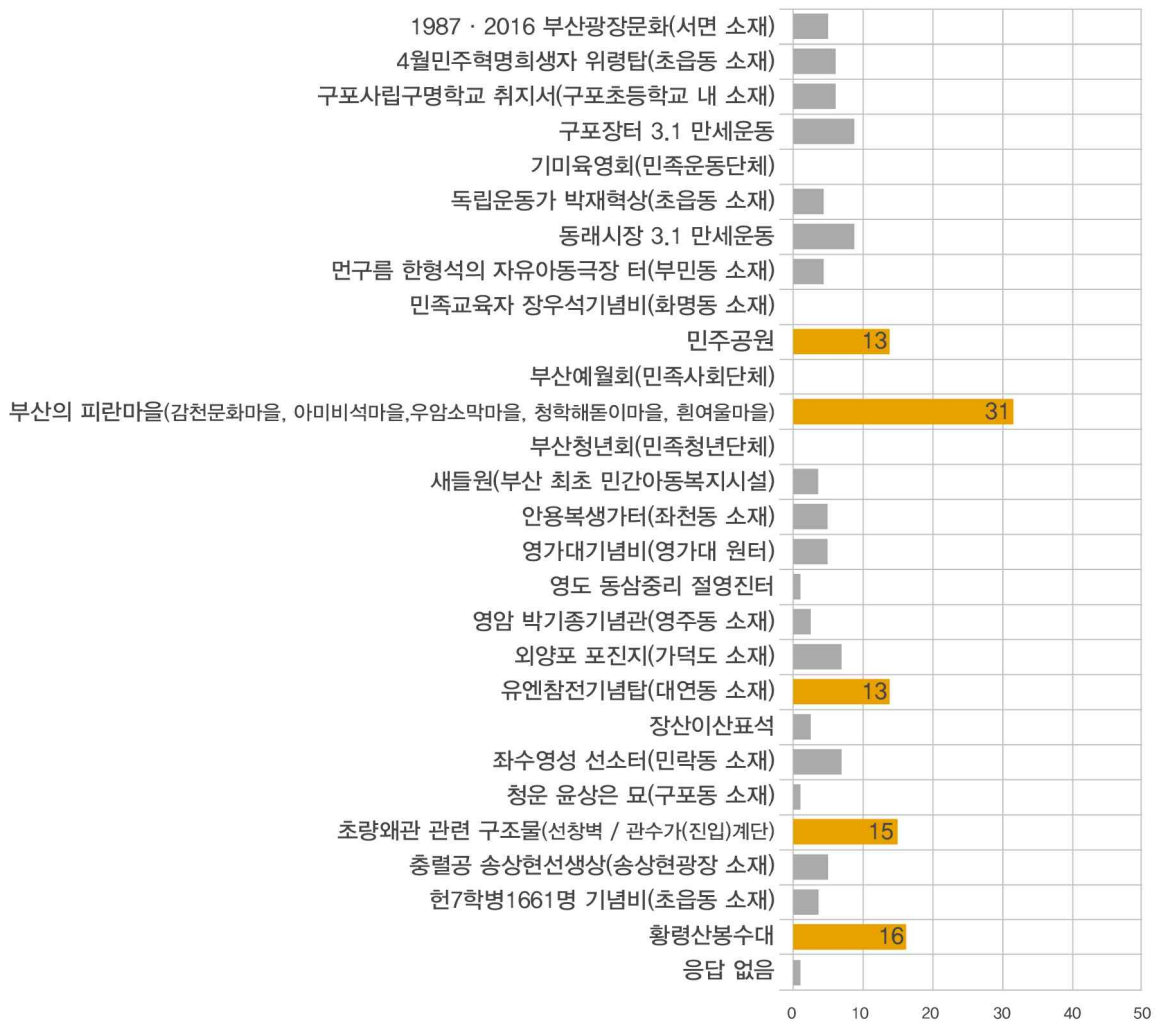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1) 역사

- ◇ 1순위 : 부산의 피란마을(아미비석마을, 우암소막마을, 청학해돋이마을, 흰여울마을)
- ◇ 2순위 : 황령산봉수대
- ◇ 3순위 : 초량왜관 관련 구조물(선창벽/관수가(진입)계단)
- ◇ 4순위 : 유엔참전기념탑(대연동 소재), 민주공원
- ◇ 5순위 :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동래시장 3.1 만세운동, 좌수영성 선사터, 외양포 포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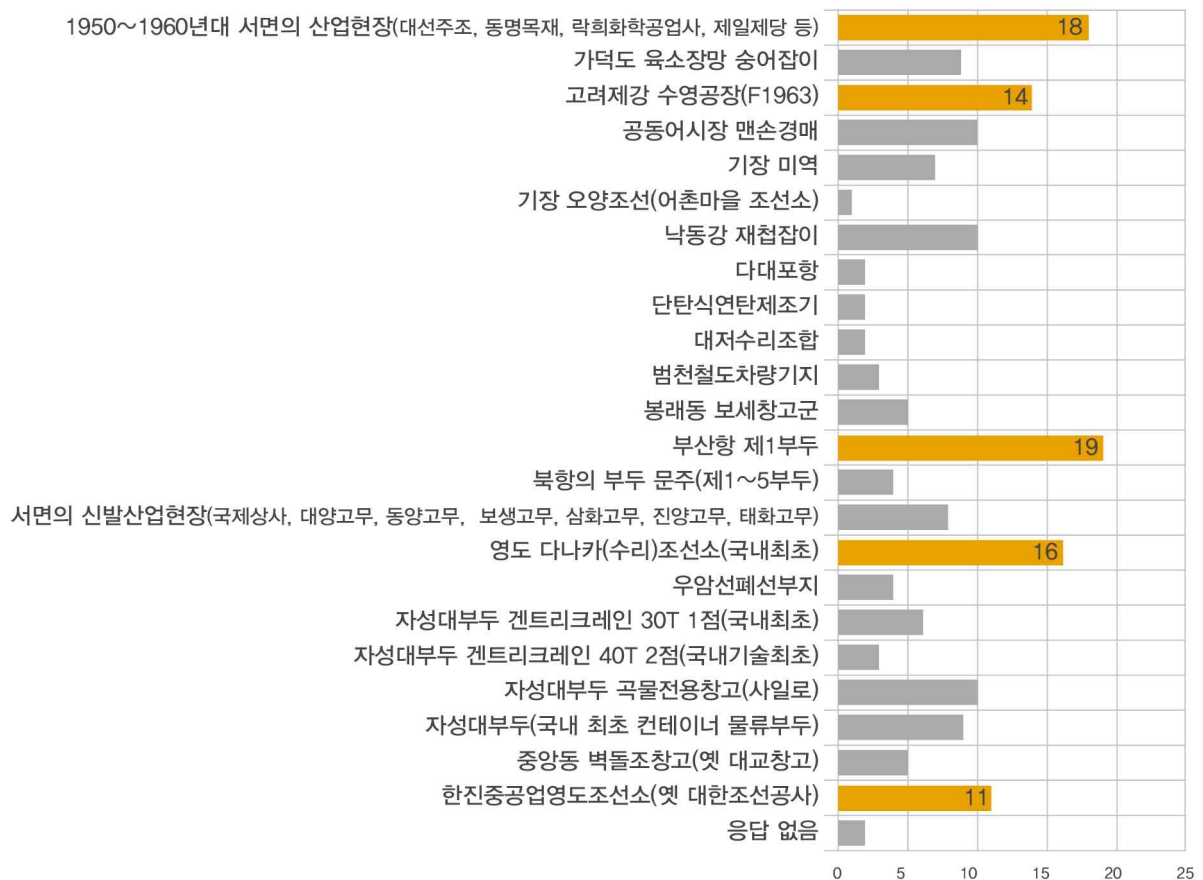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2) 산업

- ◇ 1순위 : 부산항 제1부두
- ◇ 2순위 : 1950~1960년대 서면의 산업현장(대선주조, 동명목재, 락희화학공업사, 제일제당)
- ◇ 3순위 : 영도다나카(수리)조선소(국내최초)
- ◇ 4순위 :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 ◇ 5순위 : 한진중공업영도조선소(옛 대한조선공사)
- ◇ 기타 : 공동어시장 맨손경매, 낙동강 재첩잡이, 자성대부두 곡물전용창고(사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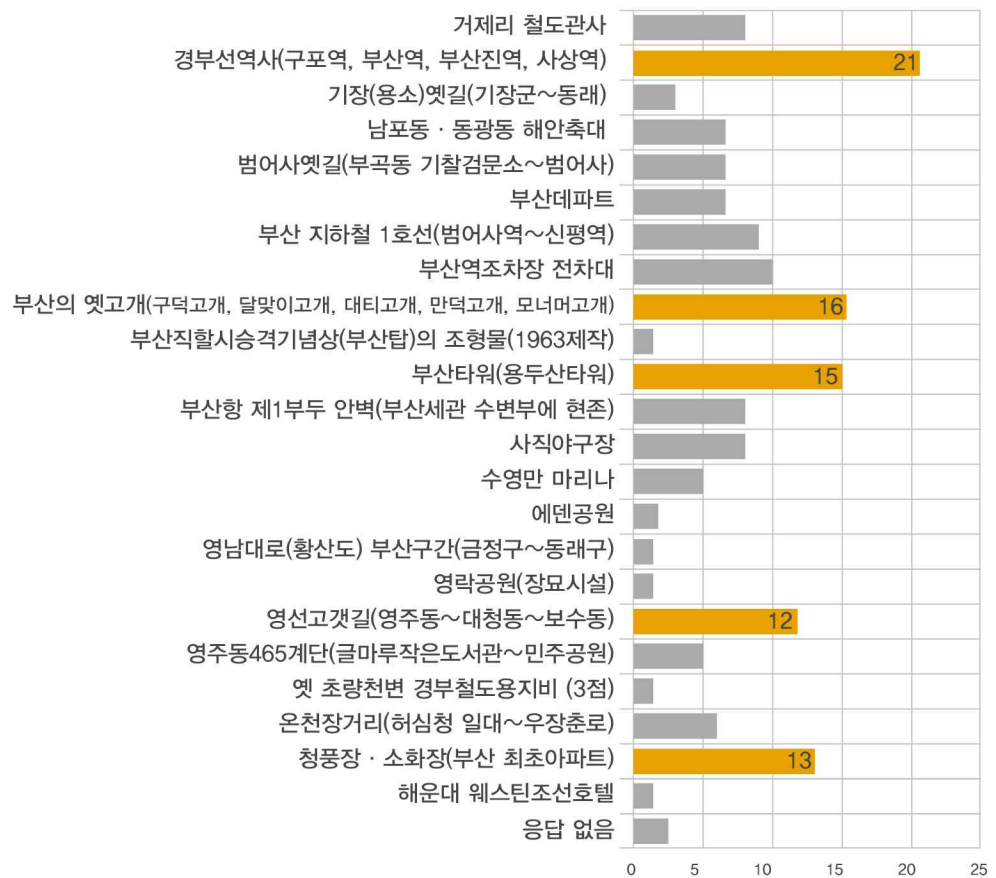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3) 도시

- ◇ 1순위 : 경부선역사(구포역, 부산역, 부산진역, 사상역)
- ◇ 2순위 : 부산의 옛고개(구덕고개, 달맞이고개, 대티고개, 만덕고개, 모녀머고개)
- ◇ 3순위 : 부산타워(용두산타워)
- ◇ 4순위 : 청풍장·소화장(부산 최초아파트)
- ◇ 5순위 : 영선고갯길(영주동~대청동~보수동)
- ◇ 기타 : 부산역주차장 전차대, 부산 지하철 1호선(범어사역~신평역), 사직야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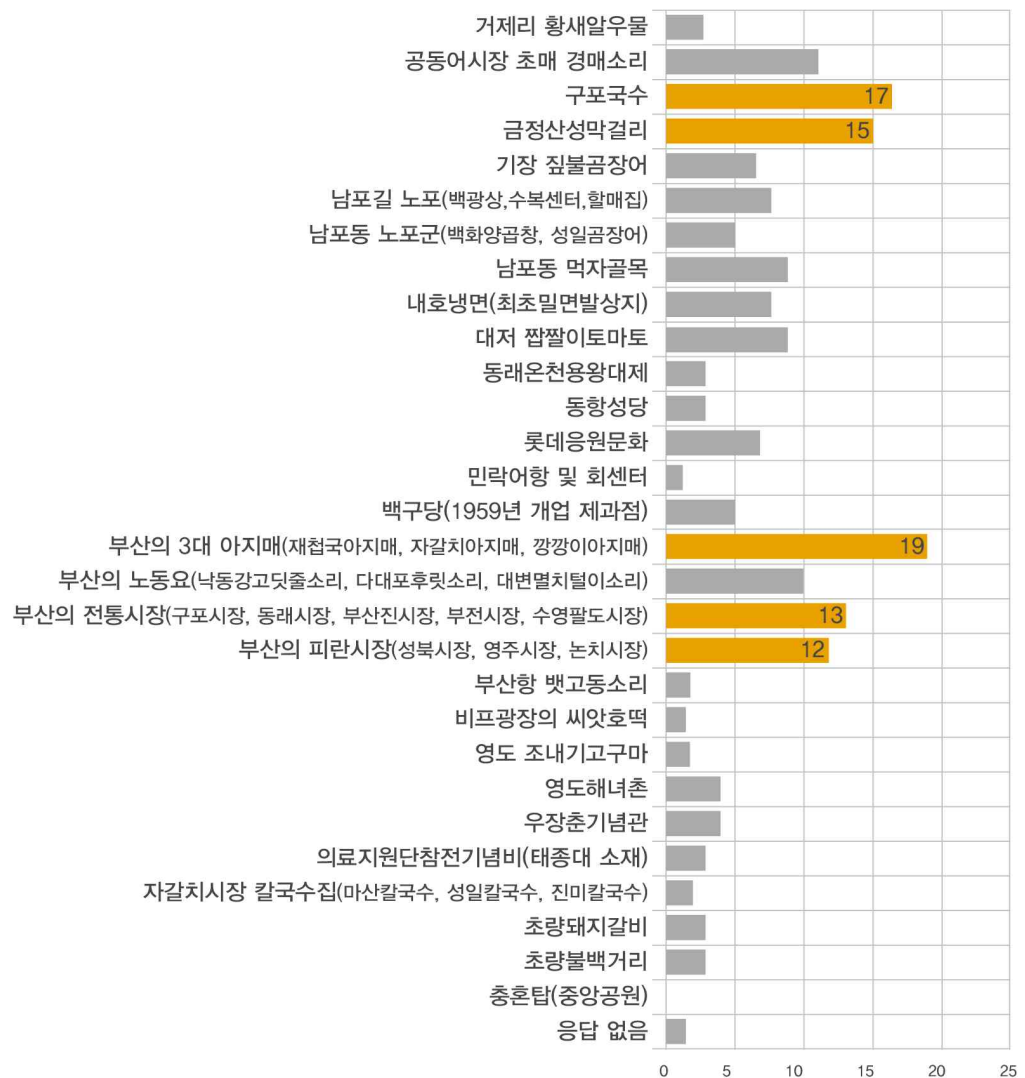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4) 생활문화

- ◇ 1순위 : 부산의 3대 아지매(재첩국아지매, 자갈치아지매, 갯강이아지매)
- ◇ 2순위 : 구포국수
- ◇ 3순위 : 금정산성막걸리
- ◇ 4순위 : 부산의 전통시장(구포시장, 동래시장, 부산진시장, 부전시장, 수영팔도시장)
- ◇ 5순위 : 부산의 피란시장(성북시장, 영주시장, 논치시장)
- ◇ 기타 : 공동어시장 초매 경매소리



1. 예비 설문조사의 시행

1.2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

5) 문화예술

- ◇ 1순위 : 조선통신사축제
- ◇ 2순위 : 피란문학(곡예사, 밀다원시대, 소시민, 탈향 등)
- ◇ 3순위 : 가요‘돌아와요 부산항에’
- ◇ 4순위 : 동래부사왜접사도(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소재)
- ◇ 5순위 : 야구선수‘최동원’
- ◇ 기타 : 가요‘이별의 부산정거장’,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부산시민회관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1 개관

1) 경과

- ◇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학술세미나(선정기준 분석 및 방향 모색) 등을 통해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 지속
- ◇ 선정기준의 설정

1. 소멸과 해체에 대한 대응

- ① 시급성 : 도시개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해체되거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것
- ② 회복가능성 : 미래 회복 또는 복원의 가능성을 가진 것

2. 부산다움의 발굴과 강화

- ③ 상징성 : 부산다움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 ④ 희소성 : 전국 차원에서 희소한 가치를 보유한 특별한 것

3. 전승·유지를 위해 전통보존 및 성능강화가 필요한 것

- ⑤ 지속성 : 현재에도 전통적인 기술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재현이 시행되고 있는 것
- ⑥ 잠재성 : 점진적으로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⑦ 미래성 : 부산다움의 발현에 있어 활용 가능성 및 가치가 큰 것

2) 설문 개요

① 시기

- ◇ 2021.08.05. ~ 2021.08.18.

② 대상

- ◇ 부산광역시 시민

③ 후보군 개소

- ◇ 59건

④ 방식

- ◇ 설문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민원 120 설문조사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minwon/survey>)
- ◇ 설문방법 : 59건의 미래유산 후보 중 10건 선택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1 개관

2) 설문 개요

⑤ 결과

◇ 588명 응답




■ 부산미래유산 설문조사 홈페이지


부산민원120

[회원가입](#)
[로그인](#)

[민원신청](#)
[제안신청](#)
[시민참여](#)
[민원안내](#)
[120콜센터](#)

[Home](#) > [시민참여](#)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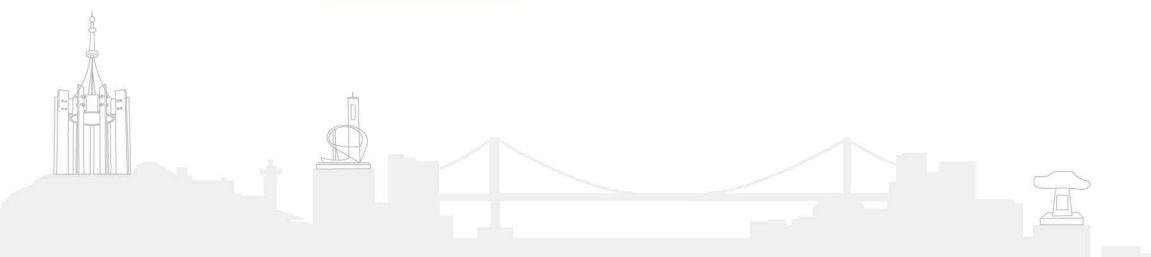
설문기간

| 2021-08-05 09:00 ~ 2021-08-18 18:00

마일리지
부여점수

| 200

- 소멸과 해체에 대한 대응
 - ① 시급성 : 도시개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해체되거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것
 - ② 회복가능성 : 미래 회복 또는 복원의 가능성을 가진 것
- 부산다움의 발굴과 강화
 - ③ 상징성 : 부산다움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 ④ 희소성 : 전국 차원에서 희소한 가치를 보유한 특별한 것
- 전승·유지를 위해 전통보존 및 성능강화가 필요한 것
 - ⑤ 지속성 : 현재에도 전통적인 기술과 방식이 적용되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재현이 시행되고 있는 것
 - ⑥ 잠재성 : 점진적으로 부산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⑦ 미래성 : 부산다움의 발현에 있어 활용 가능성 및 가치가 큰 것

[부산미래유산 후보 목록 보기](#)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1	역사	1960년·1979년·1987년·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상징성	-부산진구 새싹로1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구 부전2동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 2016년 촛불집회 등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열렬히 동참한 부산시민들의 나라사랑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광장문화
2	역사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취지서	잠재성	-북구 백양대로 1124번길 20 (현 구포초등학교)	울사조약 이후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던 시기, 민중계몽과 능력향상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의도에서 구포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했던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를 담은 문건(1906년11월 작성)
3	역사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상징성 희소성 지속성	-동래구 총렬대로 285번길 22 (동래장터) -북구 구포시장2길 (구포장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3.1만세운동에 동참하고자, 부산사람들이 오일장을 계기로 대구 모로 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에 일어남. 두 장터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 깃든 대표적인 장소임
4	역사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상징성 희소성	-부산진구 새싹로 295 (어린이대공원 내 수변공원)	일제 탄압을 응징하고자 1920년 9월 14일 '옛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통해 경찰서장을 폭사시킴으로 의열단 최초 성공 거사를 이루었고, 1921년 5월 11일 단식으로 옥중 순국한 박재혁 의사를 기념하는 동상이며, 국가보훈처 현충시설(40-1-17)로 지정되어 있음
5	역사	민주공원	상징성 미래성	-중구 민주공원길 19 일원	대한민국의 민주화(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에 혁혁한 기여했던 부산시민들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
6	역사	안용복 유적	시급성 잠재성	-수영구 수영성로 43 -동구 성남일로 57번길 10 -동구 증산로 100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던 왜인에 항의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고 돌아왔던 조선 숙종 때의 어부 안용복을 기리는 사당(수강사), 충훈탑, 동상, 생가터,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등의 유적
7	역사	영가대 원터와 영가대기념비	회복가능성 상징성 잠재성	-동구 진시장로 20번길 60	조선의 최초 군항이었던 부산포 내 바다언덕에 세워진 영가대(永嘉臺)는 예부터 군항 정박지이자 무기 저장장소로 사용되었고 조선통신사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던 해신제를 올렸던 제당이었고 출발과 귀환의 상징적인 장소였음. 그러나 일제의 경부선 부설로 이전·소멸된 후, 이곳이 영가대 터였고 영가대를 영원히 잊지 말자는 뜻으로 1951년 10월 15일 한청범이동단부(韓靑凡二洞團部)가 영가대 원터에 기념비를 세움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8	역사	개성학교	잠재성 희소성 상징성	-중구 대영로 226번길 15 (현 봉래초교부지)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교육하고자 박기중 등 4인의 유지가 설립한 한국인이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식 학교(설립일: 1896. 2.14.)로 지역근대교육의 산실이 되었음. 현 봉래 초등학교와 개성고등학교의 전신임
9	역사	외양포 포대	시급성 희소성 잠재성	-강서구 가덕해안로 1319 일원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기습공격을 목적으로 일본군이 구축했던 포진지임. 일제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은 계기가 된 러일전쟁기 상황과 군사 요충지로서의 가덕도의 입지 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식민지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영토수탈의 일면을 보여줌
10	역사	좌수영성 선소터	시급성 회복가능성 잠재성 미래성	-수영구 수영동 230 (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지 내)	재송(裁松)리에서 자란 소나무를 수영강을 통해 흘려보내 그 나무들을 재료로 좌수영에서 사용할 군선, 통신사용 선박을 만들던 곳으로, 경상좌수영의 역사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 군선을 제작하고 정박하던 선소터의 회복은 좌수영성의 완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안임
11	역사	충렬공 송상현선생상	상징성	-부산진구 전포동 (송상현공원 내)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로써, 동래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를 외치며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한 송상현을 기리는 동상(1978년 준공)
12	역사	충훈탑	상징성	-중구 영주동 218-20 (중앙공원 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부산 출신 육·해·공군 및 경찰관,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83년 8월 15일에 준공한 추모공간이자 기념물.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인 김종업의 부산 소재 작품들(5점) 중 한 곳임
13	역사	헌7학병1661명 6·25참전기념비	희소성	-부산진구 새싹로 295 (어린이대공원 내 수변공원)	한국전쟁 중 부산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1661명이 구국의 일념으로 육군헌병학교에 자원입대(1950.8.28.)했던 제7기 학병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기념비. 국가보훈처지정 국가수호관련시설물 40-2-5호로 지정
14	역사	황령산봉수대	상징성 지속성	-남구 대연3동 산53-1	조선의 국경해안 경계와 (긴급)연락을 위해서 설치된 봉수시설이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으로, 지역 내 봉수대들 중 가장 오래된 봉수대 중 한 곳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1976년에 복원되었음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15	산업	범천철도차량기지	시급성 잠재성 희소성 미래성	-부산진구 신천대로 145	1904년에 조성된 부산의 철도차량정비시설(부지면적 24만㎡)로써, 경부선 철도의 변천과 철도관련 시설들의 정비과정 일체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 철도산업유산임. 경수선 공장, 중수선공장, 세척고, 화차작업장, 객차 대차/도장/복공작업 등을 위한 공장들, 옛 청사 등 10여동의 대형 공장군과 디젤 기관차 2001호 등이 보존되어 있음
16	산업	부산진역	시급성 미래성	-충장대로 255 (부산진역CY부지 내)	동해남부선(1934.7.16.개통) 부산진~해운대 구간(총길이 18.9km)의 시·종착역으로, 부산이 개항장에서 근대도시로의 기능 전환을 상징하는 장소임. 2005년부터 역사 일대가 부산진역 CY부지로 사용되며 유휴시설화 되었고,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되어 해체될 예정임
17	산업	봉래동 보세창고군	잠재성 희소성 시급성 미래성	-영도구 봉래나루로 178	부산과 근대물류산업과 영도의 제조산업을 설명하는 30여동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집단형 저장시설군임. 해면부~안벽~물양장~창고~배후지대 등으로 연계되는 물류시스템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물류(저장)산업관련 산업유산이자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지역성을 설명하는 자산임
18	산업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시급성 잠재성 미래성 희소성	-중구 충장대로 24 일원	우리나라 최초의 부두로써, 지난 120여 년 간 물류운송업, 수산업과 관련된 부산항의 대표 구조물이며, 부산항 탄생과 매축 돌제의 축조 방식을 설명하는 유산임.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기(피란수도기), 국가재건기를 거치며 항일운동, 귀국동포귀환, 피란민수송, 국제협력, 국가경제발전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보고임
19	산업	가덕도 육소장망 송어잡이	시급성 회복가능성 희소성	-강서구 가덕해안로 일원	가덕도 연안의 송어를 잡기위한 19세기 중반에서 시작된 친환경 어법. 6척의 배가 한조를 이루어 송어가 드는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다 산위 망대의 망수(어로장)의 물색과 물 속 그림자를 인지한 후 망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올리는 전통 어법. 2019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현대화됨
20	산업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희소성 잠재성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1963년에 건립된 고려제강 수영공장의 시설과 터로써, 유휴화된 공장 전체를 산업유산으로 이해하고 기업과 관이 함께 신개념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시킨 민관 공조형 산업유산 재활용의 우리나라 대표 사례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21	산업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시급성 상징성 지속성	-서구 충무대로 202 (부산공동어시장 내)	손가락경매, 수지호가식경매 라고도 부르는 수지상향식경매 방식은 중매인이 손가락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전통방식. 수산도매시장의 원형기술이며,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소한 어업전통 거래방식임
22	산업	기장미역	시급성 상징성 지속성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원	15세기부터 왕게 진상되었던 지역산품으로, 기장 앞바다 해안가의 바위에서 채취되는 돌미역을 말하며 일명 쫄쫄이미역이라고도 부름. 1960년대 이후 자연산 미역 채취의 축소와 양식 미역의 생산이 확장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양식 미역을 포함한 기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 전체를 기장미역으로 통칭함
23	산업	낙동강 손틀어업	시급성 회복가능성 상징성	-강서구 낙동강 일원	가슴까지 올라오는 강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 '거리(손틀방)'로 불리는 도구를 이용하여 모래와 펄 속의 재첩을 채취하는 전통 손틀어업. 1987년 하구둑 건설로 낙동강 손틀어업은 급격히 퇴락됨
24	산업	영도 다나카 수리조선소	시급성 지속성 잠재성 희소성	-영도구 대평로 62	1887년 일본인 다나카가 설립한 소형 어선, 발동기선, 수리를 목적으로 한 조선소로써, 대평동을 비롯한 영도 전체가 조선기지로 발전하는 초석이 된 조선소임. 초기에는 목선을 제조하였고 철선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강강이아지매의 태동지라 할 수 있음
25	산업	자성대부두 곡물전용창고	시급성 희소성 잠재성 미래성	-동구 총장대로 314 (자성대부두의 양곡부두 내)	1978년에 탄생한 국내 최초 컨테이너물류부두(자성대부두)의 곡물저장용 전용창고(사일로). 총68개의 실린더(남동측 44개, 남서측 9개, 북측 15개)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사일로 산업유산이며, 북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경관 가치가 큼
26	산업	자성대부두 켄트리크레인(3점)	시급성 지속성 희소성 잠재성	-동구 총장대로 334 (자성대부두 내)	국내 최초 컨테이너물류부두(자성대부두)에 1978년 도입된 최초 크레인(30톤급 1점, 미쓰이사 제작)과 우리나라 기술로 1982년 제작된 크레인(40톤급 2점, 삼성중공업 제작)을 포함하며, 우리나라 물류부두의 발전과 변천 역사를 설명하는 기계유산이자 산업유산으로 정의됨
27	산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구 대한조선공사)	회복가능성 시급성 잠재성 미래성	-영도구 태종로 233	군함 등 선박 제조·수리·건조의 목적으로 193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3000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선대들과 100~300미터 길이의 선박수리용 도크(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국내 최초 도크는 매립되어 있음), 북항과 영도연안의 조선업 변천을 설명하는 산업유산임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28	도시	기장(용소)옛길	희소성 지속성 회복가능성	-기장군과 동래구 일원	기장읍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이내터 마을, 쌍다리고개, 안평리, 신명역(新明驛), 그리고 동래 도호부의 교통기점인 휴산역(休山驛)을 잇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기장의 관문길이자 옛길(약 10리~12리).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의 추적을 피해 다녔던 길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와 지역자원이 기장옛길과 연계되어 있음
29	도시	아미고개	상징성 시급성	-서구 아미동 및 사하구 감전동 일원	부산의 고개는 항구 강과 내륙·도시의 연계점이자 경관의 변곡점을 이루며 지형과 경관 특성을 드러내는 상징공간임.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아미고개는 부산의 대표 고개들(구덕,만덕,모녀머,아미,민락,감천,장고개 등) 중 피란시절의 삶의 이야기가 가장 풍성하게 남아있고 내륙(도심)과 바다(항구)를 구분 짓는 옛 모습의 원형적 가치가 가장 뛰어나
30	도시	영선고갯길	상징성 회복가능성	-중구 동광길 일원	조선시대 동래성과 초량왜관을 연결하던 (해안)길의 한 부분이며, 현재는 영주시장에서 대청로 사이의 경사진 약 1.1km 구간(동광길)을 지칭. 17세기 이후 개항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개항사, 피란생활사, 산업사 등 부산의 다양한 역사가 담겨있는 스토리의 보고임
31	도시	매축지마을	상징성 시급성	-동구 좌천동 일원	일제강점기 부산진매축사업에 의해 탄생된 매축지는 일제의 군마관리 및 군수물자 등 각종 물류의 유통지대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기에 피란마을로 재형성됨. 마구간과 연계된 피란마을의 흔적을 간직한 도심 속 오지마을로 잔존하고 있으나 조만간 도시개발에 의해 해체될 예정임
32	도시	부산시민회관	희소성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1973년 개관(설계:이광로)하였고, 노출 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신공법을 사용하고 곡선의 지붕들로 구성된 아케이드와 바다와 민속놀이 '강강술래'에서 착안한 곡선형 외부 기둥의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 부산의 산업화 이후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전담했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동질성 형성에 크게 기여함
33	도시	부산직할시승격 기념상(부산탑)	희소성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마당)	1963년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며 부산상공회의소 지원(이병철, 구인회, 강석진 등 14인)으로 서면교차로에 세워진 부산탑의 조형물. 부산탑은 전쟁이후 경제개발과 국가재건을 위해 대도시로 급성장한 부산의 상징물로 인식되다, 1981년 지하철 1호선 공사 시에 해체되었고 조형물은 부산박물관 마당에 이전하여 전시 중에 있음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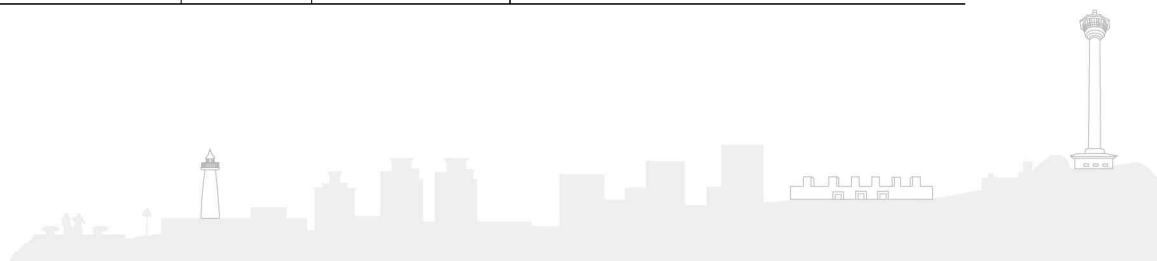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34	도시	부산대파트	시급성	-중구 중앙대로 21	1969년 동광시장을 철거하고 건립한 부산 최초의 백화점식 시장(4층)이며, 1971년 상부 5~7층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부산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중정형/5~7층)로 준공됨. 광복지하도 상가 및 도시철도와 연계된 도심공간과 주거·상업 중심의 생활 공간 간의 통합을 선도한 복합건축물이라 할 수 있음
35	도시	부산타워	상징성 미래성	-중구 용두산길 37-55 (용두산공원 내)	부산을 상징하는 높이 120m의 전망탑용 건축물로서 복층구조의 전망대는 불국사 다보탑의 보개(寶蓋) 형상에서 유추한 것으로 알려지며, 1973년 조성되어 서울의 남산타워보다 2년 앞서 건립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심 타워시설임. 용두산공원과 일체화되어 용두산타워라고도 불리고 있음
36	도시	온천천	상징성 지속성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일원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지나 수영강으로 연결되는 약 15km 규모의 하천으로 범어천, 서천 또는 동래천 등으로 불리었음. 오염되고 인공화된 하천을 1995년부터 '온천천살리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시민친수공간으로 전환시킨 지방도시 최초의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례임
37	도시	청사포	상징성 시급성 미래성	-해운대구 중1동	305km 부산 해안선에 입지하는 50여개소의 포구들 중, 해운대 미포와 송정 구덕포 사이에 위치한 청사포는 해안 경사지에 발달한 부산지역 해안마을의 대표격이자 원형적 가치(구석기시대부터의 역사, 해안 구릉을 따라 발달된 공간구조, 기장해녀 등과 연계된 지역산업 현장, 동해 일출을 만나는 자연경관 등)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38	도시	청풍장·소화장	시급성	-중구 중구로 5번길 13	남포동 비프광장 이면도로에 자리한 청풍장(1941년건립/4층)과 소화장(1944년 건립/3층)은 남항(남빈) 매립 후 개발된 택지에 들어선 부산 최초의 공동주택임
39	생활문화	감천문화마을	시급성 희소성 상징성 지속성	-사하구 감내2로 일원	1950년대 초중반 신항종교인 태극교도들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급경사지의 도시 마을로써 지형을 따라 발달된 골목계단들과 층층이 쌓인 주택들의 모습이 매우 특별한 마을임. 2000년대 후반 교세가 꺾이고 신도들이 떠나며 급격한 쇠퇴현상 가운데 2009년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마을예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재생마을로 조성됨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40	생활문화	구포국수	지속성	-북구 구포동 일원	구포국수는 구포 일원에서 생산되는 국수를 총칭. 구포국수 탄생의 3가지 조건인 풍부한 일조량, 낙동강의 해풍, 금정산 줄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의 특성이 반영된 국수이며,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국내최초의 사례임
41	생활문화	남포동 노포길	지속성 잠재성	-중구 남포동2가 일대	수복센터(1951), 할매집(1951), 서울 깎두기(1953), 원산면옥(1953), 백광상회(1958) 등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노포들이 모여 있는 120m에 이르는 원도심 골목길. 1950년대 부산 음식들의 원형들을 접할 수 있고 당시 뒷골목 상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임
42	생활문화	냉정샘터	지속성	-사상구 주례동 185	가야에서 주례동으로 넘어오는 엄광산 산등성이의 고개아래에 위치하는 자연샘, 지역민들이 냉정보존회 구성하여 냉정우물과 냉정당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택리지'에 물맛이 천하일품이라고 소개됨
43	생활문화	동항성당	상징성 잠재성	-남구 장고개로 16번길 13	1951년 1월 한국전쟁 중 공소신자와 피란 신자들이 함께 천막 공소로 시작하였고, 전쟁 후 1954년 11월 이태준(야고보)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본당이 설립됨. 이후 피란민 구제사업과 구호사업에 집중하였고, 1959년 3대 본당 신부(독일인 하 안토니오 신부)를 중심으로 지역(우암동) 일대 피란마을에 대한 빈민 구제사업을 본격화 함
44	생활문화	백구당	희소성 지속성	-중구 중앙대로 81번길 3	1959년 개업한 이래 3대에 걸쳐 가업이 계승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임
45	생활문화	아미동비석마을	시급성 지속성 잠재성 미래성	-서구 아미로 49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인공동묘지로 사용되던 터 위에, 한국전쟁 중 피란민들의 임시거처로 사용되며 형성된 피란마을. 마을 곳곳에서 500여개 이상의 비석들이 발견되는 등 피란시절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흔적이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잣집이 현존하고 있음
46	생활문화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	희소성	-영도구 벚꽃길 75 일원	영도는 우리나라 고구마 시배지이며, 1763년 동래부사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강필리에 의해 영도에 처음으로 시배함. 이를 기념하는 역사공원과 역사기념관이 시배지 주변에 개관됨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47	생활문화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상징성	-동래구 사직로 45	야구도시 부산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 '부산 갈매기'를 열창하고 '봉다리'를 머리에 올려 쓰는 집단응원 등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품은 부산사람이라는 시민적 공감대의 근원이자 기질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48	생활문화	부산의 3대 아지매	상징성 희소성	-중구, 영도구, 강서구 일원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온갖 시련에 굴하지 않으며 자갈치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던 아지매, 영도 대평동일대의 수리조선소에서 일했던 아지매, 낙동강의 재첩으로 국을 끓여 동이에 이고 골목을 누볐던 아지매 등 부산 아지매들의 정신과 생활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여성상을 상징함
49	생활문화	충무동해안시장 자갈치 칼국수골목	희소성 지속성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4-12	해방 후 충무동 해안시장에서 원조 물품으로 들어온 밀가루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칼국수로 가공하여 서민들에게 제공해 왔던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칼국수 거리임. 마산칼국수, 성일칼국수, 진미칼국수가 현존하고 있음
50	생활문화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지속성	-동구 초량동 130-3	국내산 암태지를 주재료로 하고 전승되는 양념비법을 이용하여 옛 맛을 재현해 내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돼지갈비골목이며, 부산항의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골목이라 할 수 있음
51	생활문화	현여울문화마을	시급성 희소성 상징성 지속성	-영도구 영선동4가 일원	한국전쟁의 피란마을로써의 형성 역사를 가지며, 남항 건너편 천마산과 송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급경사지에 세장형으로 발달한 해안마을이며, 피란시절의 주택과 생활의 원형적 흔적과 기억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을임
52	문화예술	금수현의 노래비	상징성 희소성	-서구 대저1동	금수현은 대중적인 가곡 '그네'의 작곡가이며(작사는 장모인 김말봉), 음악예술의 불모지였던 부산과 경남 지역에 음악의 저변을 넓힌 음악가임. 이를 기리고자 고향인 대저지역에 1992년에 노래비가 준공됨
53	문화예술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상징성	-부산광역시	부산 출신으로 영도에서 생활했던 가수 현인이 1953년에 발표한 대표작(작사 강사랑, 작곡 박시춘). 가사에 국제시장, 영도다리, 1.4후퇴 등 부산사람이면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가사와 피란민의 애환과 만남에 대한 기대를 담은 온 국민이 사랑했던 대중가요로 평가됨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2 설문조사 대상의 요약

연번	분야	명칭	선정기준	소재지	개관
54	문화 예술	김민부전망대	상징성	-동구 영초윗길 26번길 11	김민부는 대중적인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가이며 시인이자, 지역 고유의 언어와 정치 감각을 내세운 「자갈치 아지매」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창안한 인물임. 시인의 지역사랑의 마음을 기리고자 부산항이 잘 보이는 168계단 옆에 전망대를 조성함
55	문화 예술	동래부사왜접사도	상징성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진주박물관 소재	동래부사가 왜국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18세기 말의 10폭 병풍도. 한일관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에서 항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부산의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
56	문화 예술	박병제의 부산관련 그림	상징성 희소성	-부산광역시	박병제는 1954년 서구 초장동에서 출생하였고, 1979년 이후 부산의 근대화 과정을 소박하지만 섬세하게 묘사한 평면회화 작품으로 표현함. 자화상(1988), 기다림(1988), 눈길(1989), 송도의 오후(1998), 자갈치의 오후(1999), 행상(2002년) 등 그의 부산관련 그림들은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부산 역사에 대한 기억의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를 가짐
57	문화 예술	최민식의 부산관련 사진	상징성 희소성	-부산광역시	최민식은 일명 자갈치 작가로 불리며, 부산의 지역색이 듬뿍 묻어나는 작품들을 남겨 소외된 이웃들과 서민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담아내는 리얼리즘 작가이자 대한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임. 그는 작품 13만여 점을 2008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고 기증 작품들은 민간기증 국가기록물 1호로 지정됨
58	문화 예술	추리문학관	희소성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111	열악한 한국의 추리소설 장르를 개척한 소설가 김성종의 사재로 문을 연 추리문학 장르전문 사설도서관임. 우리나라의 전문 도서관 1호로 등록됨
59	문화 예술	피란문학	상징성	-부산광역시	과거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예술분야가 문학임. 한국전쟁기 피란의 삶 속에서 탄생된 ‘밀다원시대’(김동리), ‘곡예사’(황순원), ‘소시만’(이호철), ‘비오는날’(손창섭) 등의 작품들은 피란시절 당시의 부산과 시민들의 삶을 매우 풍부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억의 보고로 평가됨



■ 제3차 부산미래유산 설문조사 후보군 목록



동래장터와 구포장터(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민주공원



항령산봉수대



충렬공 송상현선생 상



감천문화마을



부산타워



현여울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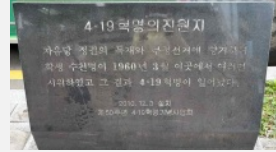
온천천



충혼탑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1960년 · 1979년 · 1987년
· 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1960년 · 1979년 · 1987년 · 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기장미역



안용복생가터



청사포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부산시민회관



동래부사왜접사도



부산진역



구포국수



아미동비석마을



피란문학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구 대한조선공사)



부산직할시승격기념상
(부산탑)



가요 '군세아라
금순아'



현7학병1661명
6 · 25참전기념비



가덕도 육소장망
송어잡이



매죽지마을



좌수영성 선사터



남포동 노포길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부산의 3대 아지매



개성학교



아미고개



영도 다나카 수리조선소



외양포 포대



최민식의 부산관련 사진



추리문학관



기장(용소)옛길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밭상지



낙동강 손틀어업



동항성당



범천철도차량기지



초량동돼지갈비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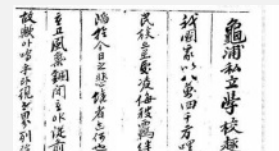
영가대 원터와
영가대기념비



봉래동 보세창고군



부산데파트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취지서



충무동해안시장 자갈치
칼국수골목



자성대부두 곡물전용창고



영선고갯길



자성대부두
겐트리크레인(3점)



김민부전망대



냉정샘터



백구당



금수현의 노래비



박병제의 부산관련 그림



청풍장 · 소화장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3 설문조사의 결과

1) 종합

① 총 득표 : 총 5,760표

② 분야별 득표

- ◇ 역사분야(14건) : 2,061표
- ◇ 산업분야(13건) : 1,004표
- ◇ 도시분야(11건) : 1,032표
- ◇ 생활문화분야(13건) : 1,157표
- ◇ 문화예술분야(8건) : 506표

■ 본 설문조사의 결과 : 득표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역사	316	5.50%	
2	민주공원	역사	277	4.82%	
3	황령산봉수대	역사	275	4.78%	
4	충렬공 송상현선생 상	역사	218	3.79%	
5	감천문화마을	생활문화	210	3.65%	
6	부산타워	도시	188	3.27%	
7	현여울문화마을	생활문화	180	3.13%	
8	온천천	도시	167	2.90%	
9	충혼탑	역사	161	2.80%	
10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생활문화	156	2.71%	
11	1960년·1979년·1987년·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역사	153	2.66%	
12	기장미역	산업	151	2.63%	
13	안용복 유적	역사	141	2.45%	
14	청사포	도시	140	2.43%	
15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역사	130	2.26%	
16	부산시민회관	도시	122	2.12%	
17	동래부사왜첩사도	문화예술	120	2.09%	
18	부산진역	산업	105	1.83%	
19	구포국수	생활문화	104	1.81%	
20	아미동비석마을	생활문화	103	1.79%	피란유산등재 연계
21	피란문학	문화예술	103	1.79%	
22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산업	99	1.72%	피란유산등재 연계 2020년 보류



2.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3 설문조사의 결과

1) 종합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23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산업	99	1.72%	
24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구 대한조선공사)	산업	98	1.70%	
25	부산직할시승격기념상(부산탑)	도시	98	1.70%	
26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문화예술	93	1.62%	
27	현7학병1661명 6·25참전기념비	역사	87	1.51%	
28	가덕도 육소장망 송어잡이	산업	86	1.50%	2020년 보류
29	매죽지마을	도시	84	1.46%	
30	좌수영성 선소터	역사	80	1.39%	
31	남포동 노포길	생활문화	80	1.39%	
32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산업	78	1.36%	
33	부산의 3대 아지매	생활문화	76	1.32%	
34	개성학교	역사	70	1.22%	
35	아미고개	도시	68	1.18%	
36	영도 다나카 수리조선소	산업	67	1.17%	
37	외양포 포대	역사	66	1.15%	
38	최민식의 부산관련 사진	문화예술	66	1.15%	
39	추리문학관	문화예술	63	1.10%	
40	기장(용소)옛길	도시	61	1.06%	
41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	생활문화	57	0.99%	
42	낙동강 손틀어업	산업	56	0.97%	
43	동향성당	생활문화	55	0.96%	
44	범천철도차량기지	산업	49	0.85%	
45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생활문화	49	0.85%	
46	영가대 원터와 영가대기념비	역사	45	0.78%	
47	봉래동 보세창고군	산업	45	0.78%	
48	부산데파트	도시	45	0.78%	2020년 보류
49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취지서	역사	42	0.73%	
50	충무동해안시장 자갈치 칼국수골목	생활문화	42	0.73%	
51	자성대부두 곡물전용창고	산업	39	0.68%	
52	영선고갯길	도시	37	0.64%	
53	자성대부두 겐트리크레인(3점)	산업	32	0.56%	
54	김민부전망대	문화예술	29	0.50%	
55	냉정샘터	생활문화	26	0.45%	
56	백구당	생활문화	19	0.33%	
57	금수현의 노래비	문화예술	17	0.30%	
58	박병제의 부산관련 그림	문화예술	15	0.26%	
59	청풍장·소화장	도시	12	0.21%	2020년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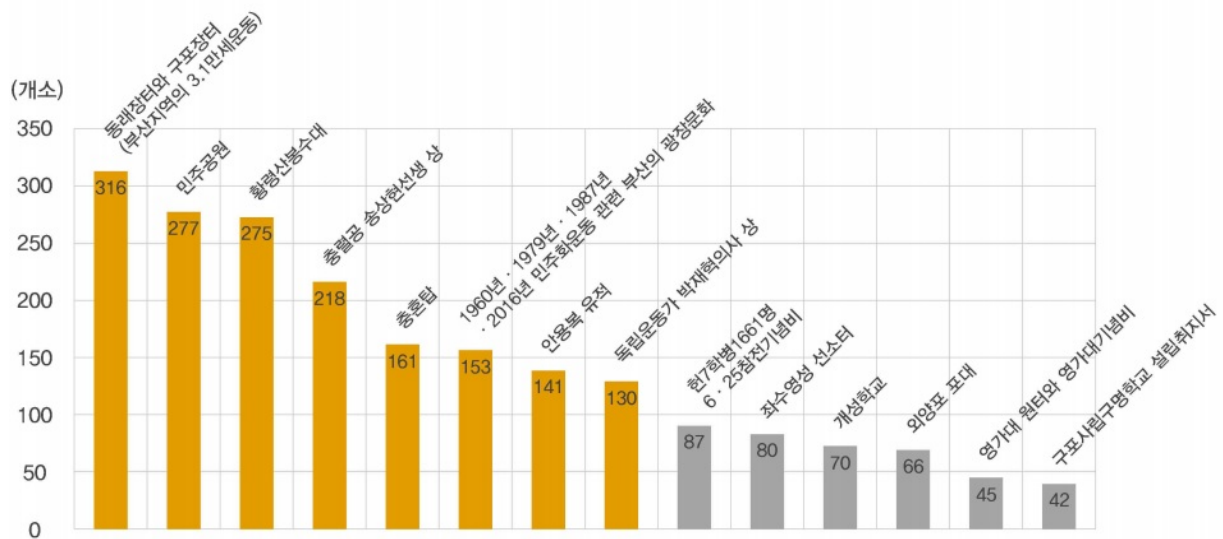
2. 본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3 본 설문조사의 결과

2) 분야별 득표수

① 역사 : 2,061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역사	316	5.50%	
2	민주공원	역사	277	4.82%	
3	황령산봉수대	역사	275	4.78%	
4	충렬공 송상헌선생 상	역사	218	3.79%	
5	충혼탑	역사	161	2.80%	
6	1960년·1979년·1987년·2016년 민주 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역사	153	2.66%	
7	안용복 유적	역사	141	2.45%	
8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역사	130	2.26%	
9	헌7학병1661명 6·25참전기념비	역사	87	1.51%	
10	좌수영성 선소터	역사	80	1.39%	
11	개성학교	역사	70	1.22%	
12	외양포 포대	역사	66	1.15%	
13	영가대 원터와 영가대기념비	역사	45	0.78%	
14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취지서	역사	42	0.73%	



분야별 득표(역사) : 2,061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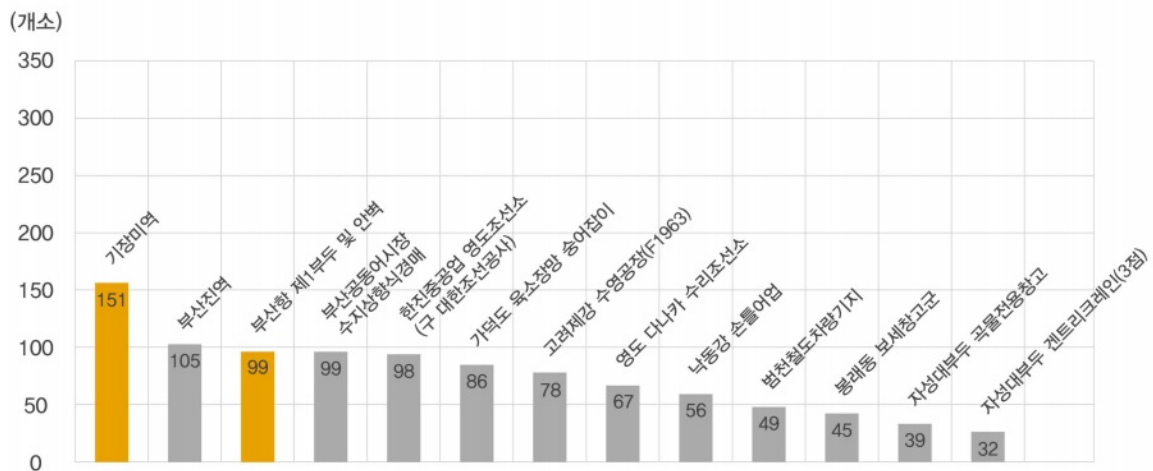
2. 본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3 본 설문조사의 결과

2) 분야별 득표수

② 산업 : 1,004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기장미역	산업	151	2.63%	
2	부산진역	산업	105	1.83%	
3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산업	99	1.72%	세계유산 등재 연계
4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산업	99	1.72%	
5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구 대한조선 공사)	산업	98	1.70%	
6	가덕도 육소장망 송어잡이	산업	86	1.50%	
7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산업	78	1.36%	
8	영도 다나카 수리조선소	산업	67	1.17%	
9	낙동강 손틀어업	산업	56	0.97%	
10	범천철도차량기지	산업	49	0.85%	
11	봉래동 보세창고군	산업	45	0.78%	
12	자성대부두 곡물전용창고	산업	39	0.68%	
13	자성대부두 겐트리크레인(3점)	산업	32	0.56%	



분야별 득표(산업) : 1,004표



2. 본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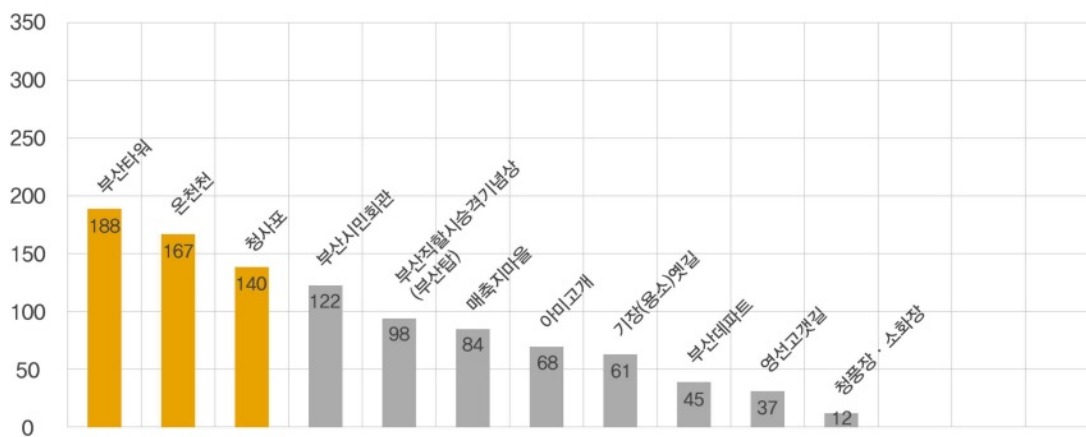
2.3 본 설문조사의 결과

2) 분야별 득표수

③ 도시 : 1,032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부산타워	도시	188	3.27%	
2	온천천	도시	167	2.90%	
3	청사포	도시	140	2.43%	
4	부산시민회관	도시	122	2.12%	
5	부산직할시승격기념상(부산탑)	도시	98	1.70%	
6	매곡지마을	도시	84	1.46%	
7	아미고개	도시	68	1.18%	
8	기장(용소)옛길	도시	61	1.06%	
9	부산데파르트	도시	45	0.78%	
10	영선고갯길	도시	37	0.64%	
11	청풍장·소화장	도시	12	0.21%	

(개소)



분야별 득표(도시) : 1,032표



2. 본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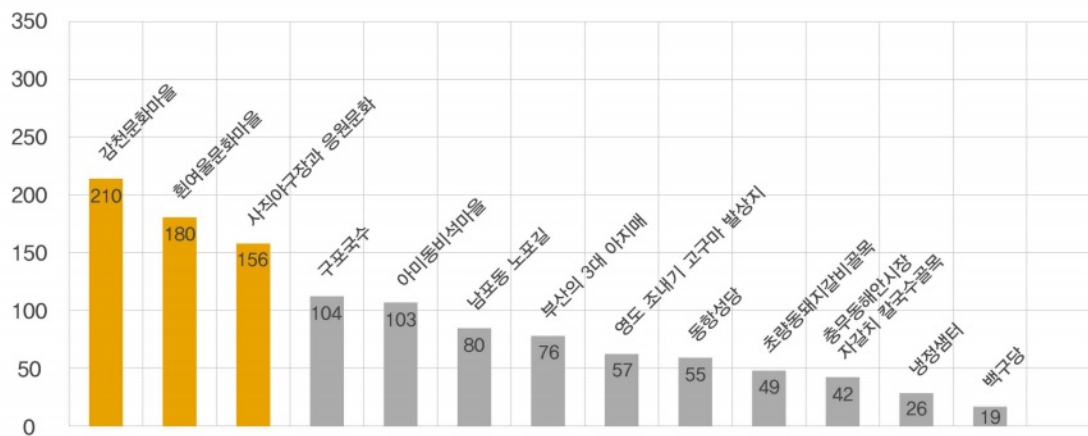
2.3 본 설문조사의 결과

2) 분야별 득표수

④ 생활문화 : 1,157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감천문화마을	생활문화	210	3.65%	
2	흰여울문화마을	생활문화	180	3.13%	
3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생활문화	156	2.71%	
4	구포국수	생활문화	104	1.81%	
5	아미동비석마을	생활문화	103	1.79%	세계유산 등재 연계
6	남포동 노포길	생활문화	80	1.39%	
7	부산의 3대 아지매	생활문화	76	1.32%	
8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	생활문화	57	0.99%	
9	동항성당	생활문화	55	0.96%	
10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생활문화	49	0.85%	
11	충무동해안시장 자갈치 칼국수골목	생활문화	42	0.73%	
12	냉정샘터	생활문화	26	0.45%	
13	백구당	생활문화	19	0.33%	

(개소)



분야별 득표(생활문화) : 1,157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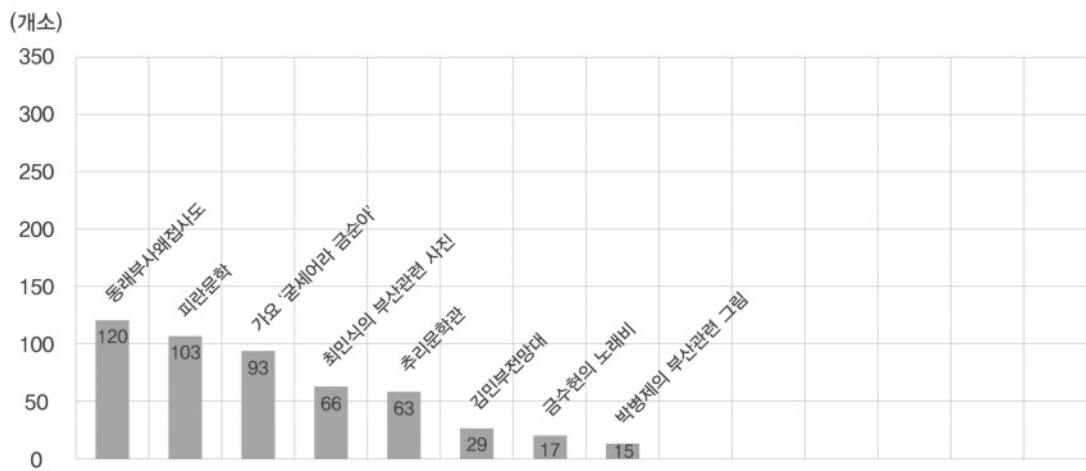
2. 본 설문조사(시민설문)의 시행

2.3 본 설문조사의 결과

2) 분야별 득표수

⑤ 문화예술 : 506표

연번	명칭	분야	참여인원	비율	비고
1	동래부사왜첩사도	문화예술	120	2.09%	
2	피란문학	문화예술	103	1.79%	
3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문화예술	93	1.62%	
4	최민식의 부산관련 사진	문화예술	66	1.15%	
5	추리문학관	문화예술	63	1.10%	
6	김민부전망대	문화예술	29	0.50%	
7	금수현의 노래비	문화예술	17	0.30%	
8	박병제의 부산관련 그림	문화예술	15	0.26%	



분야별 득표(문화예술) : 506표



5장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기초현황조사

1. 유산의 선정 • 075

- 1.1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예비 선정
-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1.3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최종 선정

2. 기초현황조사 •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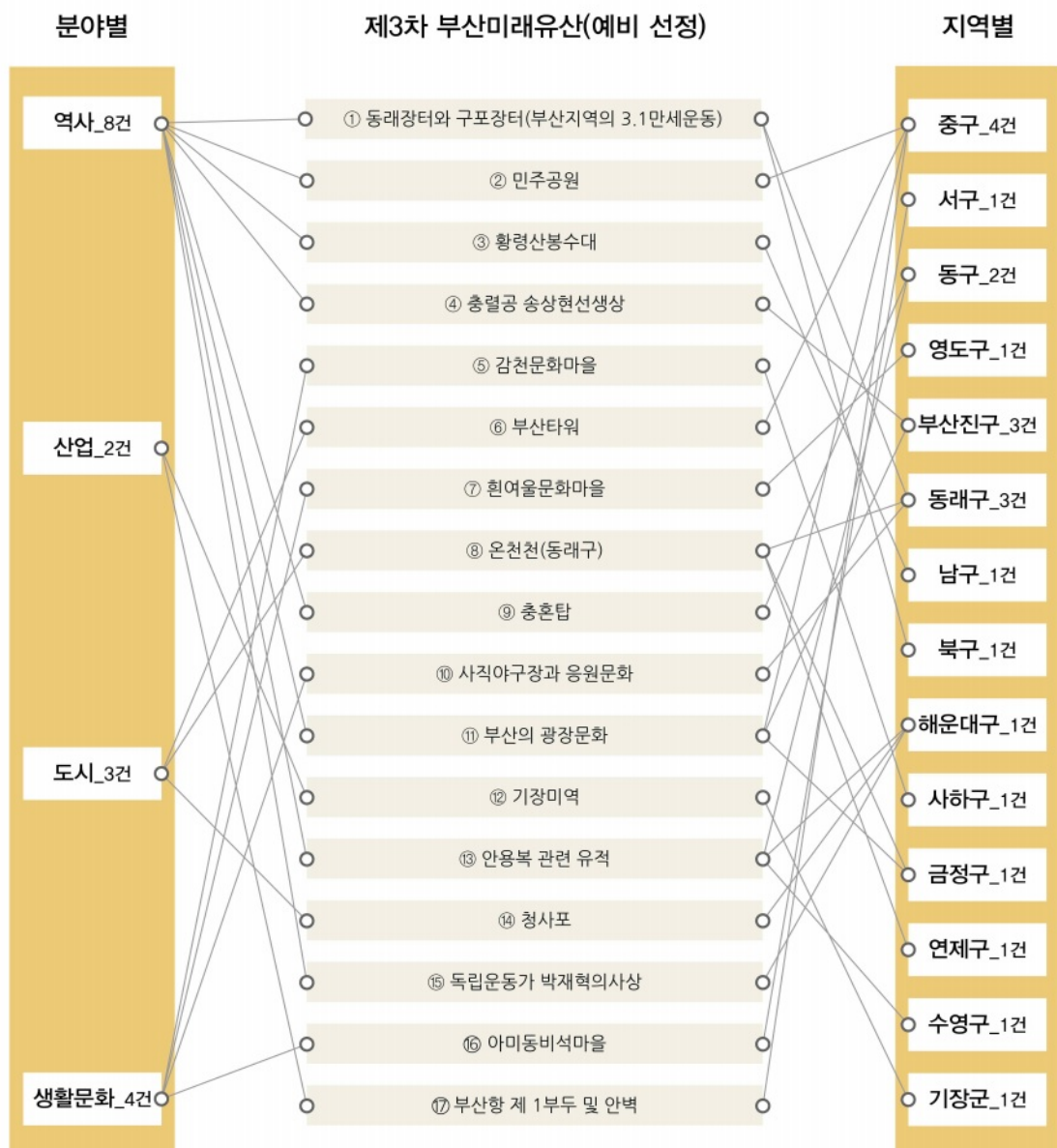
-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 2.2 민주공원
-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 2.4 감천문화마을
- 2.5 온천천
- 2.6 충혼탑
-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 2.8 기장미역
- 2.9 안용복 관련 유적
- 2.10 박재혁의사 유적
- 2.11 우장춘 유적

1. 유산의 선정

1.1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예비 선정

1) 예비 선정된 유산의 구성

-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위원회에서는 59건에 대한 시민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총 17건의 제3차 부산미래유산을 예비 선정
- ◇ 역사 8건, 산업 2건, 도시 3건, 생활문화 4건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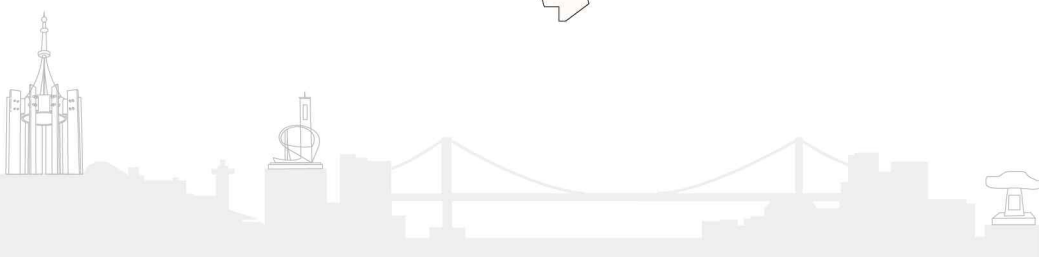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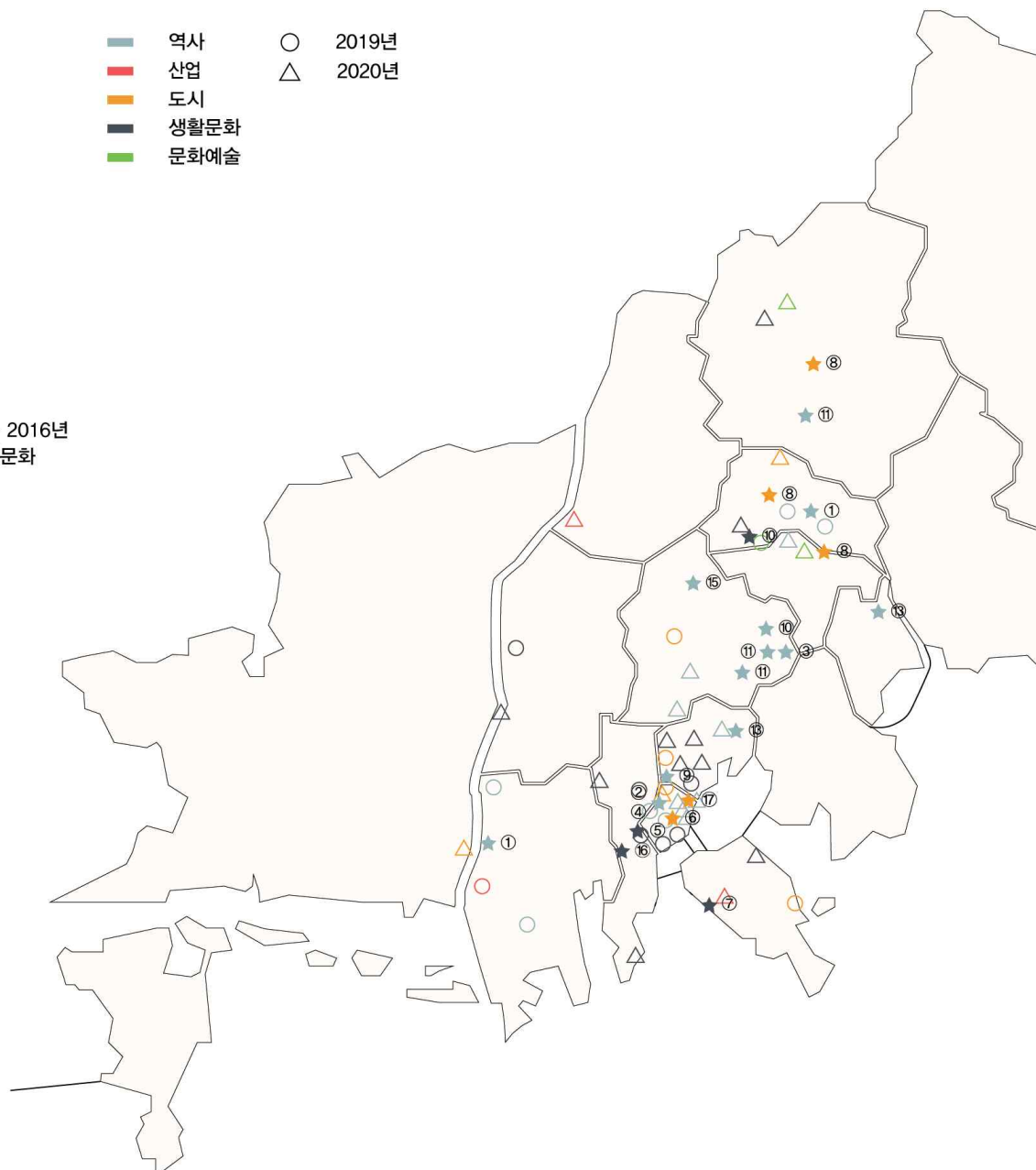
1. 유산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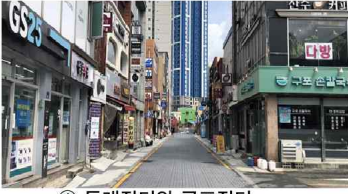
1.1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예비 선정

2) 예비 선정된 유산의 분포

- ①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 ② 민주공원
- ③ 황령산봉수대
- ④ 총렬공 송상헌선생 상
- ⑤ 감천문화마을
- ⑥ 부산타워
- ⑦ 흰여울문화마을
- ⑧ 온천천
- ⑨ 충혼탑
- ⑩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 ⑪ 1960년 · 1979년 · 1987년 · 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 ⑫ 기장미역
- ⑬ 안용복 유적
- ⑭ 청사포
- ⑮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 ⑯ 아미동비석마을
- ⑰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 | | |
|------|---------|
| 역사 | ○ 2019년 |
| 산업 | △ 2020년 |
| 도시 | |
| 생활문화 | |
| 문화예술 | |





①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② 민주공원



③ 황령산봉수대



④ 충렬공 숭상현생생 상



⑤ 감천문화마을



⑥ 부산타워



⑧ 은천천



⑩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⑨ 충훈탑



⑪ 1960년 · 1979년 · 1987년 · 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⑦ 현어울문화마을



⑬ 안옹북 유적



⑮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⑮ 아미동비석마을



⑫ 기장미역



⑭ 청사포



⑰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① 동래장터와 구포장터(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회소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동래장터와 구포장터(3.1만세운동)으로 수정 요망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두 장터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 깃든 대표 장소 → 두 장터는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새겨진 장소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장터라는 민중의 공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부각되도록 명칭을 '동래장터와 구포장터'의 만세운동으로 수정이 필요함	○
위원 14	부산지역 3.1운동 장소로 기장, 좌천도 포함됨	×
위원 15	역사적 사건과 공간의 결합에서, 공간의 의미를 한 사건에만 한정하는 오류. 그리고 3.1운동 발생 장소로서 장터는 의미 있으나 동래, 구포 이외 좌천, 명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함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일제강점기 동안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자주적 저항 운동의 흔적을 기념하는 유적은 근대화의 강압적 측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사람들의 애환과 노력을 부각시킨다는 중요한 균형추로 서의 의미가 있음
- ◇ 부산지역에서 발생했던 3.1만세운동의 최초 합성은 3월 11일 부산진(좌천)에서 울려 퍼졌으며, 3월 13일 동래장터에서 연이어 봉기함. 부산진과 동래에서의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은 구포장터와 기장장터 등에서의 만세운동은 계층을 초월한 민중의 참여라는 특성을 가짐
- ◇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장터라는 일상적 터전에서 부산지역의 민중들이 풀뿌리 차원에서 일제에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물증임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부산지역 내 곳곳에서 봉기했던 3.1만세운동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 부산진(좌천) 3.1만세운동
 -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남
 - 지역 최초(3월 11일)의 만세 함성으로 부산지역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자 기폭제가 됨
 - 1차 만세운동 후, 지역민과 함께 좌천정 시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됨
 - 2) 동래장터의 3.1만세운동
 - 3월 13일 동래장날에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선창한 것으로 시작됨
 - 200여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는 미리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귀향한 동래고보 출신 졸업생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띠었음
 - 만세운동은 동래기영회 등과 연계되었던 항일운동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구포장터의 3.1만세운동
 - 부산진과 동래의 영향을 받은 구포장터의 3.1만세운동은 지역민은 물론 장을 보러왔던 김해, 양산 등지의 타지역민도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3.1만세운동이 농민, 상인, 노동자 등 계층을 초월하여 민중으로 확산되는 본격적인 계기를 제공함
 -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1920년대 구포지역 청년 및 농민 주도의 사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 4) 기장장터의 3.1만세운동
 -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단발성 시위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역 내·외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였고, 경남도에서의 만세운동은 양산, 김해 등이 대표적임
 - 4월 5일에 일어난 기장장터 3.1만세운동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였음
- ◇ 부산지역에서 봉기한 3.1만세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학생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어 상인, 노동자, 부녀자, 농민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족적 항일운동으로 발전함
 - 둘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봉기하여 지역 내·외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
 - 셋째, 3.1만세운동의 정신은 계승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독립 및 항일운동 확산의 바탕을 제공함

검토

- ◇ 부산지역에서 발생했던 3.1만세운동의 현장들 중 그 특성과 공간적 한정이 분명하고 시민들에 널리 알려져 있는 ‘동래장터와 구포장터(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를 예비 선정하였음
- ◇ 위원1, 위원13의 평가/검토에 따라, 유산 명칭에 병기된 ‘부산지역의’를 삭제하거나 명칭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위원14, 15의 평가/검토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3.1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린 일신여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진(좌천)과 농민 중심의 민족적 성격을 띤 기장장터에서의 3.1만세운동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3.1만세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② 민주공원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미래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지리적 특성으로 서울, 광주 등지의 유관 단체에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공간임. 관련 설명 요망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대한민국의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부산의 저항정신의 계승과 이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함	○
위원 14	-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민주공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에 혁혁한 기여를 해온 부산시민들의 저항정신을 계승하며, 이를 학습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의 장소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임
- ◇ 숭고한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즈음하여 개관하였고, 공원녹지와 어우러진 기념관 이자 문화복합 공간의 성격을 가짐
- ◇ 민주공원에서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교육, 탐방, 전시, 참여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시민 자부심의 고취는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학습과 인간 존엄 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민주공원의 주요한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옥외 : 공연기능을 가진 '바깥놀이 마당'과 '어렵사리 마당' 등과 오픈된 기념관의 중심부에는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태의 '뜻기림 햇불'이 조성되어 있음
 - 옥내 : 다양한 기획, 전시, 공연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옥상에는 산복도로와 부산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인 '바람 마당'이 있음

검토

- ◇ 민주공원은 부산사람들을 저항정신의 계승과 이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기 선정된 부산시민공원이 외세를 기원에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민주공원은 부산사람들의 주체적인 민주화를 상징한다는 대비의 의미가 큼
- ◇ 기 선정된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도'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념하기에는 특화된 장소성이 부족한 측면이 강하였음
- ◇ 민주공원의 경우, 사건의 실제 장소라는 현장성은 부족하지만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부산사람들의 민주화 열정을 한 장소에 결집하여 기념하는 장소적 상징성은 미래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짐
- ◇ 다만,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도 등 기 선정유산들과의 상보적 관계를 다각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③ 황령산봉수대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1976년 복원되었고 다른 봉수대 중 문화유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우리나라의 봉수제도는 시급을 요하는 국난 발생 시에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며 일정하게 조직된 봉수망을 따라 작동되던 일종의 재난 정보 통신시스템이었음
- ◇ 봉수의 유형은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되는 목역산(남산)을 중심으로 한 ‘경(京)봉수’, 국경선이나 해륙변경 지대에 설치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했던 ‘연변(沿邊)봉수’, 그리고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중간적 성격을 가진 ‘내지(內地)봉수’로 구분됨. 또한 연결방식을 기준으로 거화지점에서 서울까지의 최단 거리를 잇는 ‘직봉(直烽)’과 중간 거점을 잇는 ‘간봉(間烽)’으로 구별됨
- ◇ 부산지역은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연변봉수들이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조선시대의 봉수선로는 총 5개소였음. 부산지역은 동래에서 경북, 충북과 경기도를 거쳐 목역산으로 연결되는 '제2거'에 해당됨
 - 초기 : 석성봉수대~황령산봉수대~간비오산봉수대~기장남산봉수대~기장아이봉수대~기장이길봉수대를 거쳐 영해, 안동, 목역산으로 연결되는 선로
 - 후기 : 해안 노선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가덕도 연대봉에서 시작하여 응봉봉수대~황령산봉수대~계명산봉수대~양산원적산봉수대~언양부로산봉수대를 거쳐 경주, 영천로 연결되는 내륙봉수 및 직봉으로 채택됨. 기존 해안노선은 간봉으로 변경됨
- ◇ 1894년 봉수제도가 폐지된 후 대부분의 봉수대는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 정확한 구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원형으로 잔존하던 기장이길 봉수대와 기장아이봉수대, 기장남산봉수대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거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영역과 봉수군의 생활영역 등에 대한 원형 구조가 규명되었음
- ◇ 전국의 봉수대 중 10여 곳이 지역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기장남산봉수대는 '시지정 문화재자료'로, 기장이길봉수대와 기장아이봉수대는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 되어 있음
- ◇ 황령산봉수대는 사방이 트여 있는 산정에 입지하여, 내지봉수와 연변봉수의 분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왜적의 침입을 알리는 남해안 최전방 감시초소 겸 통신부대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 ◇ 황령산봉수대는 연변봉수 체계 속에서는 석성봉수대와 간비오산봉수대를 연결하였고, 내지 봉수로는 응봉봉수대와 계명산봉수대를 연결하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부산지역의 공간 입지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라 할 수 있음

검토

- ◇ 세종 7년(1425) 「경상도지리지」에 부산지역에는 동평현의 석정봉수대, 동래현의 황령산봉수대, 동래현의 간비오산봉수대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황령산봉수대는 지역 내의 가장 오래된 봉수대들 중 한 곳이라는 역사성이 확인됨
- ◇ 황령산봉수대는 기능적으로 해운대(옛 해운포)와 부산항(옛 부산포) 및 그 일대 앞 바다의 왜적 침입을 감시하던 해안 초소이자 내지봉수와 연변봉수가 분기되는 결절점으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됨. 또한 황령산봉수대는 내륙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입지적 가치와 시민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봉수대들 중 활용 가치가 가장 큰 봉수대인 것으로 판단됨
- ◇ 황령산봉수대의 상부구조는 1976년에 복원되었으나, 당시 발굴된 상태를 기본으로 문헌의 기록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짐. 차후 인근 봉수대의 발굴 성과를 참고로 하여 정확한 고증·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황령산봉수대는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활용적 가치가 매우 큰 유산으로 검토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④ 총렬공 송상현선생 상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동래읍성의 송공단과 총렬사에서 기록과 연계된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동상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는 어려움	×
위원 14	동상 등의 기준(우선 순위)은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상에 대한 전수조사와 동상이 위치한 시기, 배경 및 연혁 등을 고려해야 함	×
위원 15	-	○
위원 16	선정기준에 '인물의 경우, 실제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기릴 수 있는) 시급한 것이 발굴되어야 함'라고 되어있음.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청주 출생의 송상현(1551~1592)은 1591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동래성을 지키며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라는 글을 목패에 쓴 후 항전하였고, 동래성이 함락되자 공은 조복(朝服)을 군복 위에 겹쳐 입고 정좌한 채 42세를 일기로 순절함
- ◇ 임진왜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이 자기 책무를 저버리고 달아나는 세태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순국한 공의 절의는 매우 뛰어났으며 죽음으로서 의를 지키고 충을 실천한 사회적 모범으로 추송되었음. 전 후, 선조는 송상현이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을 ‘충운(忠殞)’이라 평가하고 그의 행위는 ‘의중(義重)’의 발로라고 칭송하였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현종, 숙종, 순조 등의 사제문(賜祭文)에 오랑캐마저도 대의를 취한 죽음에 공경을 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고, 18세기에 작성된 일본 역사서들에도 공의 절의는 높게 평가되어 있음
- ◇ 공에게는 두 명의 첩(김섬, 이양녀)이 있었고, 이들 첩도 임진왜란 때 송상현과 함께 싸우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검토

- ◇ 현재 부산지역의 인물을 기리는 주요 동상으로는 고운 최치원선생 동상, 충렬공 송상현선생 상, 정발 장군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윤흥신 장군 석상, 사명대사 동상, 안용복 장군 상, 박재혁 의사 동상, 박차정 의사 동상, 백산 안희제 선생 동상, 백재덕 호국영웅 상, 독립유공자 조정환 선생 흉상, 독립유공자 이수강 선생 흉상, 독립유공자 김근도 선생 흉상, 소해 장건상 선생 동상, 우장춘 박사 상, 가수 현인 동상, 야구선수 최동원 동상 등이 있음
- ◇ 고운 최치원 선생 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왜란 극복의 우국충절의 인물상,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관련 인물상, 현대기의 인물상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 위원13과 위원16의 평가/검토에 의하면, 송상현선생 상을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부산의 대로(송공삼거리)이자 송상현광장 내에 건립되어 있는 상은 1978년에 조성되어 40년이 넘는 역사성은 물론, 공간입지 및 경관적으로도 상징성이 크기에 부산미래유산의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미래유산의 경우, 세종로(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등 2점이 선정되어 있음
- ◇ 위원7의 추가제안을 고려하여, 임진왜란 시 순국한 세 인물인 송상현, 정발, 윤흥신 장군의 동상을 함께 묶어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 충렬공 송상현선생 상이 부산미래유산에 선정될 경우, 기 선정유산인 동래기영회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송공단과 충렬사 등과의 연계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송상현 선생의 업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⑤ 감천문화마을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희소성 상징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문화재생마을로 재탄생 → 문화재생마을로 조성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자연 및 문화마을의 종류와 연혁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떤 마을이 미래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과 함께 부산지역의 피란 온 태극교도들의 임시정착지였던 보수동에서 집단 이주하며 정책적으로 형성된 마을임. 감천동의 급경사지에 형성된 마을은 부산의 산복도로가 가진 지형학적인 특성에 연계된 주택의 변천과정과 피란민의 삶을 인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으로 평가됨
- ◇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스스로 정한 ‘마을과 주택 조성의 원칙(모든 길은 통하고,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말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성되었음. 개별 가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수차례의 증개축을 거쳤지만,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발달된 공간조직(길, 필지 등)의 형상과 배열은 변하지 않은 채 지형을 따라 발달된 골목계단들과 층층이 쌓인 주택들의 이루어내는 마을풍경이 매우 특징적인 마을임
- ◇ 관련된 마을의 공간과 경관 가치는 다음과 같음
 - 1) 지형을 따라 수평으로 연결된 집들은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독특한 장소성을 보여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2) 폭 50cm 정도의 좁은 골목길들과 수직으로 오르는 계단길들은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1950년대 조성 당시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음
- 3) 계단식으로 쌓여 있는 집들은 마치 성냥갑을 쌓은 듯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집들의 색상은 오랜 세월에 따라 탈색되어 파스텔 톤의 리트로(retro)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 2000년을 전후하여 교세가 급격히 꺾이고 신도들의 마을을 떠나면서 인구 감소와 쇠퇴가 본격화됨
- ◇ 2008~2010년 경, 마을공동체의 끈끈한 결속력과 마을의 공간경관적 가치에 착안한 지역예술가들(진영섭, 김태홍, 이명희 등)의 참여로 문화관광부 마을예술공모사업에 ‘꿈을 꾸는 부산의 맞추픽추’,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등이 연이어 당선되면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재생마을로 조성됨
- ◇ 지역민과 예술인, 지역행정 등의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진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이며,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경제문화적 생존력을 확보하는 문화재생마을의 모델이자 연 3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임

검토

- ◇ 부산의 산복도로는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에 타지에서 들어 온 이주민과 해방 후 귀국동포들의 임시주거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 시에 피란민들의 유입으로 산복도로의 형성은 본격화됨. 산복도로는 부산항의 배경을 이루는 동구, 중구, 서구, 부산진구, 사하구, 영도구 일원 산지 중턱 및 그 이상의 고지대에 형성된 산동네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양로, 진남로, 엄광로, 천마산 산복도로, 옥녀봉 산복도로, 청학동 산복도로 등)를 말하나, 실제 산복도로는 도로 상하부의 공간과 주민의 삶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됨
- ◇ 산복도로의 산동네들은 형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간·경관차원에서의 원형이 잔존하는 부산지역의 대표 마을로는 동구의 안창마을, 연제구의 물만골, 부산진구의 아바이마을, 서구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과 닥밭골, 영도구의 흰여울문화마을과 해돋이마을,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 등이 있음. 마을 대부분은 한국전쟁기 피란민들의 임시주거지로 형성되었거나 이후 피란민들의 정착으로 조성된 마을이며 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적 쇠퇴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2009년 이후 각종 재생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 감천문화마을은 2013년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기 전,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예술인들과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발의로 구축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마을재생이 시작된 전국 최초의 문화재생마을의 대표 사례임
- ◇ 지나친 상업화와 마을 전반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 최초로 보전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⑥ 부산타워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미래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2019년 부산미래유산에 용두산공원이 선정되었는데, 부산타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건설 당시에 초라함에 대한 비판, 그냥 돌 것인가?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부산타워보다 용두산타워가 더 잘 알려져 있으므로 함께 표기 : 부산타워(용두산타워)	○
위원 14	용두산공원과의 관계(포함, 미포함)	○
위원 15	-	○
위원 16	2019년 용두산공원이 지정된 바 있음. 선정기준으로 중복 배제 논의가 있었음.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부산타워는 1973년 용두산공원의 신사가 있던 자리에 건립된 120m 규모의 전망용 건축물로서, 복층구조의 전망대 형상은 불국사 다보탑의 보개(寶蓋)에서 유추된 것으로 알려짐
- ◇ 부산타워는 반세기가 넘도록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부산항과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조망점 및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고 용두산공원 내의 핵심시설로 사용되어 왔음
- ◇ 부산타워가 입지한 용두산은 예부터 소나무가 울창하여 송현산(松峴山)이라 불렸고, 초량소산(草梁小山)이라고도 불렸음
- ◇ 해방과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용두산의 경사면은 귀국동포들과 피란민의 주거지로 채워졌으나 1954년 용두산 대화재 후 산림이 복원되고 196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1973년 부산타워의 완공은 용두산공원에 새로운 기능, 즉 부산항과 원도심 일대에 대한 조망 기능이 추가되게 했고, 이후 부산타워는 시민들과 함께 외부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도시전망대로 사용됨

검토

- ◇ 부산타워는 공원 내 시설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용두산공원과 공존하는 시민 추억의 장소이자 풍경을 기억하는 근원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부산타워는 1975년에 조성된 서울의 남산타워보다 준공시기가 2년 빠르며, 1992년에 완공된 대구타워(현 83타워)보다는 20년이 앞서는 전국 최고의 역사적인 구조물임
- ◇ 위원16의 평가/검토와 같이 부산타워는 용두산공원과 일체화된 공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나, 부산타워는 지역과 원도심의 랜드마크로서 경관 및 여가문화 선용과 관련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시설로 인식할 수 있음
- ◇ 부산타워는 용두산에 있는 타워시설이었기에 오랫동안 시민들은 ‘용두산타워’로 불러 왔음. 따라서 위원13의 평가/검토와 같이 용두산공원을 변기하여 ‘부산타워(용두산타워)’로 명칭 부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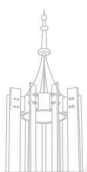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⑦ 흰여울문화마을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희소성 상징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피란마을로써의 형성 역사를 가지며 → 피란마을로 형성된 역사를 지니며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자연 및 문화마을의 종류와 연혁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떤 마을이 미래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흰여울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영선2동 해안가 급경사에 세장형으로 형성되어 피란민의 애환과 연결된 장소성이 매우 강한 마을임
- ◇ 마을은 급격한 경사에 좁은 지형을 따라 형성된 서민들의 주거지대인 관계로 합필 등을 통한 대형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결과적으로 이곳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주택들과 미로 같은 골목길들과 계단들의 변화가 없어 피란시절의 삶의 원형들을 인지할 수 있음
- ◇ 영도의 경우, 봉래산 자락의 청학동, 신선동, 영선동 등에 피란시절을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산동네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으나, 흰여울문화마을은 이와 관련된 흔적과 기억을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로 정의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흰여울문화마을 내의 주 보행로(해안절벽길)는 “봉래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 의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내림으로써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듯 빠른 물살의 모습과 같다.”하여 불리는 ‘흰여울길’이며, 마을은 흰여울길과 영도 내 순환도로인 절영로 사이에 형성된 세장한 절벽부에 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러한 공간 여건은 흰여울문화마을에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애칭을 부여하게 했음.
- ◇ 마을에서는 앞으로 펼쳐진 남항의 아름다운 석양과 건너편 천마산과 송도의 풍경, 그리고 남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수십여대의 대형 선박들의 이국적인 풍광을 만날 수 있음
- ◇ 마을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었던 공공근로 사업 중 영선동의 해안산책로와 흰여울문화마을을 수직으로 직접 연결하는 계단길의 정비였음. 이후 2013년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의 로케이션지로 사용되면서 매년 100만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피란시절을 추억하는 마을로 자리를 잡게 됨

검토

- ◇ 부산의 산복도로에 피란주거지로 탄생된 산동네들 중, 조성 당시의 원형(공간, 경관, 기능 등)이 남아있고 높은 방문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는 감천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등이 해당됨(3곳 마을들은 모두 3차년도 부산미래유산 후보지에 선정되어 있음)
- ◇ 이 중, 흰여울문화마을은 해안 경사지에 발달한 관계로 바다풍경과 연계된 피란시절의 정취와 추억을 체감할 수 있는 특성이 두드러지며, 바다(절벽)를 끼고 선형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들과 계단길, 층층 집합된 소규모 주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피란주거지로서의 원형과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임
- ◇ 흰여울문화마을은 급경사 지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피란민들의 삶의 애환과 시대 변천에 따른 공간 변용과 변형의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유산임
- ◇ 그러나 수용력을 초과하는 방문자들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부족과 지나친 상업화의 문제들은 마을의 장기 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⑧ 온천천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명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동래천, 범어천이라는 기록이 있음)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온천천은 유역면적 56.28km², 총연장 14.13km, 폭 30~90m의 규모, 그리고 안락천, 쌍미천, 거제천 등 14개소의 지류를 보유한 수영강의 제1지류임
- ◇ 온천천은 금정산의 고당봉과 계명봉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 계곡을 지나 동래구와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들
- ◇ 온천천은 조선시대 동래읍성과 수영강과 연계된 역사·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풍부하며, 예로부터 동래지역의 젖줄 역할을 했던 중심 하천이었음. 상류의 범어사 계곡 지역의 하천을 '범어천'으로 그 아래의 하천을 '서천' 혹은 '동래천'이라 불렀으나, 중류부에 온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옛 이름은 사라지고 전체가 '온천천'으로 불리게 됨
- ◇ 온천천은 도시내 생태통로이자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친수공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지하철 제1호선 개통으로 형성된 동래지역의 온천천 제외지(지하철 역사 아래 주변부 둔치)에서 청년문화가 탄생되고 실험되는 청년예술문화의 현장이기도 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검토

- ◇ 온천천은 1995년부터 ‘온천천살리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서울의 양재천에 이어 오염되고 인공화된 하천을 시민친수공간으로 전환시킨 지방도시 최초의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례임
- ◇ 온천천은 역사적, 생태기능적, 여가문화적인 차원에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하천임. 최근에는 온천천의 주변 골목에 카페문화가 형성되면서 문화거리로 변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 그러나 온천천 양안에 공동주택의 건설과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온천천 자체의 왜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 위원14의 검토 결과, 온천천의 명칭은 원래 범어천, 동래천 등으로 불리다 온천을 테마로 하는 지역(온천장)의 발달에 따라 온천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옛 명칭과 병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류부의 하천을 범어천이라 불렀고, 중·하류부 전체를 동래천이라 불렀기에 병기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⑨ 충혼탑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긍정 일반도가 아닌, 권위주의적 측면의 성격을 적절하게 첨가함으로써 역사적 시대적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설명이 필요함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탑도 전수조사한 후 시기, 연혁, 내용 등을 고려해 순차 지정 필요	×
위원 15	-	○
위원 16	기념물 선정은 지양해야 됨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충혼탑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부산 출신 육·해·공군 및 경찰관, 전몰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중앙공원 내에 건립한 추모공간이자 기념물(1983.8.15. 준공)임
- ◇ 높이는 70m(돌탑부 39m, 철탑부 31m)이며, 8개의 연못 형태 좌대와 9개의 기둥 아래에 9천 338명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반원형의 영현실이 안치되어 있음
- ◇ 충혼탑은 구봉산(404m) 자락의 중앙공원에 입지하여 시내 어디서도 인지가 가능한 경관구도를 가지고 있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이 향토의 수호신이 되어 부산의 푸른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듯한 위엄을 갖춘 조형물임
- ◇ 반면 70m에 이르는 높이는 구봉산과 보수산(169m)을 연결하는 주변 능선의 흐름과 맞지 않고 수직과 축선이 강조되는 경직된 형상으로 인해 다소 권위적인 조형물로 평가되기도 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설계자인 건축가 김중업은 충혼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월간 건축문화’1983년 12월 31호, pp.101.)

“몸 바쳐 나라와 겨레를 위한 단심을 길이 후손에게 새긴다는 작업은 두손 모아 정성껏 하늘에 바치는 기도하는 자세에서만 빛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릿한 혼백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뜨거운 뜻을 형상화 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항도 부산의 대청공원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짜릿한 감동으로서 장한 이들의 귀히 흘린 피를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함은 건축가로서 그지없이 보람있고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홉 개의 원륜들은 아홉 개의 벽체들이 높이받쳐 올린다는 영감은 이일을 위임받는 순간 떠올랐다. 원륜이란 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곳. 아홉 개의 벽체들은 항룡사 9층탑을 세웠을 당시의 천지우주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전 우주를 돌고도 남기에 나라와 겨레를 위한 혼백들이 온갖 방향에서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다. 186m고지 위에 9엽의 못에 140m 길이로 투영된 70m 높이의 탑은 항도의 상징이며 항시 험준했던 남쪽바다를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색빛이 황홀히 빛날 이 탑이 충혼들의 뜨거운 진혼가를 읊어 빛을 더해주리라 믿고 둥근 석굴 속에 깊이 잠드소서.”

검토

- ◇ 충혼탑은 건축가 김중업이 부산에 남긴 5점의 건축물(첫 작품인 송도의원은 멸실) 중 하나로 1982년 6월 6일에 기공하여 1983년 8월 15일에 완공하였음
- ◇ 70m의 높이로 수직으로 솟은 충혼탑은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수평적 조형미와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애국 전몰용사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
- ◇ 부산지역의 탑 형식의 기념 또는 추모를 위한 조형물은 1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조영 시기에 따른 주요 조형물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음
- 1) 항일운동 관련 : 부산 3.1운동 기념탑(마안산 소재, 1996년 준공), 부산 항일학생의거 기념탑(어린이대공원 소재, 2004년)
 - 2) 한국전쟁 관련 : 유엔참전기념탑(유엔교차로 소재, 1975년 준공), 6.25전쟁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태종대 소재, 1976년 준공), 헌7학병 1661명 기념비(어린이대공원 소재, 2001년 준공), 국군용사 충혼탑(오봉산 소재, 1993년 준공)
 - 3) 전몰용사 관련 : 충혼탑(중앙공원 소재, 1983년 준공)
 - 4) 민주화운동 관련 : 4.19혁명 희생자 위령탑(민주공원 소재, 1961년 준공)
 - 5) 기타 : 안용복 충혼탑(수영사적공원 소재, 1967년 준공), 순직선원 위령탑(태종대 소재, 1979년 준공) 외
- ◇ 충혼탑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용사(부산 출신의 육·해·공군 및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성격을 가진 유일한 조형물로 검토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⑩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타 지역에도 응원문화가 존재함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가요 '부산갈매기'를 떴창하고 → '부산 갈매기'를 열창하고	○
위원 10	-	○
위원 11	선정 이유가 상징성이지만, 오히려 공동어시장경매와 같은 것이 더욱 부산을 상징한다고 사료됨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부산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일찍 일본 야구를 접할 수 있었고, 부산지역의 고교 야구의 열기와 활성화로 비롯된 부산야구에 대한 자부심 등이 어우러져 오래전부터 '야구 도시'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었음
- ◇ 이러한 야구도시로서의 정체성은 1980년대 초반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부산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언어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동질감의 표출 현상으로 이어짐
- ◇ 부산사람들의 다소 다혈질적이고 화통한 기질적 특성들은 자연스레 지역프로야구팀을 위한 응원문화로 연결되었고, 이러한 응원문화는 타야구장에서도 부산출신 시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전국 야구관련 응원문화의 전형이 되었고, 주요 응원은 다음과 같음
 - 부산경제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우승을 고대하며 열창하는 '부산 갈매기'
 - 미래세대를 위한 '아주라' 문화, 신문지 응원도구를 이용한 신문지 응원, 경기장을 끝없이 도는 '파도타기'
 -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를 머리 위에 풍선 모양으로 뒤집어 쓴 '주황색 봉다리 응원'
 - 투수 견제구 시 다 같이 외치는 '마! 응원', 선수 개인들에 적용되는 '로고송 응원가' 외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이러한 응원방식과 내용은 자유로움과 솔직함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응원문화의 형성으로 나아갔고,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로 정착됨

“쫄잔한 야구는 과감하게 거부하겠다는, 부산 앞바다처럼 거칠고 짠 내 가득한 응원이다. 사직야구장은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용광로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야구로 치면 바로 돌직구, 쉽게 돌아가는 법이 없는 사람들, 부산 사람들에게 사직야구장은 자신들의 면모를 강하게 동질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해방구다.”

(자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2018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 기억들”, pp.96-97)

검토

- ◇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는 야구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유산임
- ◇ ‘부산 갈매기’를 열창하고 ‘봉다리’를 뒤집어쓰고 집단 응원하는 모습 등의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는 연고팀의 장기적인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사직야구장을 넘어 부산과 부산사람들의 이미지로 확장되었음
- ◇ 비록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만의 응원문화이지만, 이곳의 응원문화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품은 부산사람이라는 시민적 공감대의 근원이자 기질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 ◇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의 창의적인 형식과 내용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⑪ 1960년 · 1979년 · 1987년 · 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부산의 광장문화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광장과 민주운동으로 수정 요망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매우 돋보이는 선정. 흔하지 않은 부산의 독보적 요소인만큼, 식상하지 않는 의미 규정 요망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2019년 미래유산으로 '6월 항쟁도'와 '부마민주항쟁'이 선정되었고, 이를 정리한 2021년에 '민주공원'까지 추가된다면 역사분야에 편중됨	△
위원 14	광장 문화라기 보다는 도로(길) 문화가 아닌지 논의 필요	×
위원 15	광장문화의 다양성이 사건으로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음. 특정의 광장을 중심으로 유산을 지정하고, 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그리스의 아고라(agora)를 기점으로 하는 서구 광장의 내면에는 장터와 축제의 장이자 열린 토론과 항거의 장으로 이해되는 '민주적 속성'과 권위적 위압이나 폭력과 처형으로 장이라는 '비민주적 속성'이 융합되어 있음
- ◇ '1960년·1979년·1987년·2016년 민주화운동 관련 광장문화'는 '항거의 장'으로서의 민주적 속성과 연계되며, 1960년의 4.19혁명,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7년의 6월민주 항쟁, 2016년의 촛불집회를 대상으로 함
 - 1) 1960년의 4.19혁명 : 정권 독재와 억압을 타도하는데 성공한 민중이 주도한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었음. 부산은 대구, 마산과 더불어 혁명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진원지이자 거점이었음. 이에선 청년학생운동 조직의 결성과 활동, 국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언론방송매체의 공론장 형성과 적극적인 여론 주도 등의 요소가 복합 작용하였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2) 1979년 부마민주항쟁 : 1979년 10월 부산에서 시작하여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일원에서 전개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반대투쟁의 정점이었고, 대통령 암살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서 유신체제에 조종을 올린 사건이었음. 이의 바탕에는 종교계와 노동계, 청년학생과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결합했던 연대 활동이 존재했음
 - 3) 1987년 6월민주항쟁 : 1980년대 부산의 민주항쟁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인한 지속성, 동아리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연대성, 저항의식 강한 부산시민들의 폭발적 에너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투쟁역량을 체계적으로 배분·결집한 현장 조직성 등이 바탕을 이루었음. 당시 부산지역의 6월민주항쟁은 전체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결정적인 국면 전환에 기여하는 폭발적인 투쟁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정치와 사회의 민주적 변동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음
 - 4) 2016년 촛불집회 : 2016년 10월에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정농단에 대한 언론보도의 여파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하는 집회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집회였음. 부산은 2016년 10월 26일 4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하야 요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를 계기로 시작되어 2017년 3월 10일까지 민중총궐기 부산준비위와 부산백남기투쟁위원회의 주관으로 매일 집회가 진행되었음
- ◇ 4.19혁명의 진원지는 서면역과 서면로터리 일대이며, 부마민주항쟁은 부산대학교 교정과 광복로 일원을 진원지로 삼을 수 있음. 6월민주항쟁은 서면교차로와 부산진시장 일대이며, 촛불집회는 서면 주디스 태화 일대로 규정할 수 있음

검토

- ◇ 부산의 근대역사의 핵심체는 대한민국의 민주항쟁사와 함께 하며, 독재 권력에 대한 부산시민의 항쟁사는 국가 민주항쟁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민주항쟁이 독재정권을 직접 패퇴 시켰던 1960년의 4.19혁명과 1987년의 6월민주항쟁, 정권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과 2016년의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마다, 항거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부산사람들의 대규모 참가와 결정적인 공헌이 자리 잡았었기 때문임
- ◇ 공히 부산은 대한민국 정치 변동사의 뇌관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항쟁사와 민주화의 흐름을 주도해 온 도시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이러한 점은 다른 대도시들이 가지지 못한 부산의 독특한 자산이자 부산사람들이 느끼는 역사적 자부심과 자존감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음
- ◇ 한편, 해안선을 낀 가파른 산지 위주의 부산의 도시공간은 시민 공론장인 넓은 광장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띠고 있음. 그럼에도 부산시민들은 100여 년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가장 선구적이고 강렬한 시민정치를 부산만의 독특한 광장문화, 즉 도로를 광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광장문화는 활동 목적이 종료되는 순간 다시 일상의 거리로 복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억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위원들의 평가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산의 명칭에 ‘민주화운동 관련’을 포함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⑫ 기장미역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상징성 지속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두 말 할 것 없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지만, 고리원자력이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로 미래가 불안한 미래유산임을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	○
위원 15	-	○
위원 16	기장미역은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있음. 돼지국밥의 경우 부산의 돼지국밥으로 지정되었음. 근래 청사포에서는 청사포 미역이 출시되었음. 이들 지역은 미역 산지의 대표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선정 기준에서 합의한 명칭, 지역 간의 갈등을 고려해야 함. 현재 자연 채취는 기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장 돌미역을 선정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조에 “기장미역을 진상하였다.”는 기록과 「비변사등록」에 “고리지역 ‘화사읍포’에 있던 왕가 미역밭인 곡전(藿田)이 왕세자의 소득원이 되었다,” 등의 기록을 보아, 기장미역은 15세기 이전부터 지역 특산물이자 진상품이었던 것으로 인식됨
- ◇ 기장 일대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고 무엇보다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수온이 해조류 생장에 적합하여, 미역을 중심으로 다시마, 물, 톳, 서실, 까시리, 개내이, 진도바리, 까막바리 등 다양한 해조류가 풍성하게 생산되고 있음

- ◇ 원래 기장미역은 기장 앞바다 해안가 바위에서 채취되는 ‘일명 쫄쫄이미역이라 부르는 돌미역’을 말함. 현재에도 자연산 돌미역은 송정을 중심으로 한 해녀들의 나잠어업(裸潛漁業)에 의해 자연 채취되고 있으며, 그 전통성과 상품가치는 보전되고 있음
- ◇ 일반적인 기장미역은 ‘양식으로 생산되는 미역’을 말하며, 1967년 11월 국립수산물진흥원에서 배양에 성공한 미역종자를 분양받아 일광면 이동리와 학리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후, 1970년대 이후 양식 미역의 생산은 기장 전역으로 확산되었음
- ◇ 지역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착안하여 1998년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미역의 역사성을 부각시켰고, 이후 2007년 미역 다시마 특구 지정, 2009년 ‘기장미역’ 상표 등록, 2010년 축제 활성화 등의 정책과 활동들이 이어지며 기장미역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지역산품으로 육성 되었음

검토

- ◇ 기장미역은 15세기부터 알려진 부산지역의 산품으로, 기장 앞바다 해안가의 바위에서 해녀들의 나잠어업에 의해 채취되는 ‘자연산 돌미역’과 1960년대 중반 이후 기술 개발로 인해 생산되기 시작한 ‘양식 미역’으로 대별되나, 1980년대 이후에는 양식 미역을 포함한 기장 지역에서 생산 되는 미역 전체를 기장미역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 ◇ 기장미역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미역으로 인정받고 있음
- ◇ 위원16의 평가/검토 결과에 따라, 기장미역에 대한 명칭과 기장만의 산품인 기장 돌미역으로 국한하여 지정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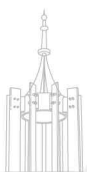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㉓ 안용복 유적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잠재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안용복 유적으로 수정 요망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유적의 범주가 명칭에 불명확. 생가터, 사당이 역사적 의미가 있음	×
위원 15	형식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생가터처럼 불명확한 유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위원 16	2021년 선정 기준 논의에서 '유산 명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제시되어 있음. 이에 준해 본다면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한 부산 출신의 어민이었음. 그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 水軍節度使營)의 수군 병졸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능로군(能櫓軍)이었으나, 두모포왜관 근처에 살았던 관계로 일본어를 습득하고 있었음
- ◇ 1693년 안용복은 다른 어부들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그곳에 고기잡이하러 나온 일본 어부들과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다툰 후, 안용복과 울산 어부 박어둔은 돛토리 번으로 납치되었음. 그러나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 어부들의 불법적인 침입을 항의하였고 결국 대마도와 왜관을 경유하여 동래부사에게 인계되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당시 조선 정부는 뱃길이 험하여 울릉도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음
- 그럼에도 당시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권을 포기한 섬이거나 무인도로서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안용복 일행과 충돌하였던 것임
- ◇ 1696년 5월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다시 일본 어부들을 만나게 되자 스스로 조선의 관료라 사칭하고, 10명의 조선 어부들을 인솔하여 일본의 돛토리 번에 가서 다시 항의함. 안용복은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하여 조선 정부의 조사 후 관료 사칭죄 등으로 귀양 처벌을 받았음
- 당시 일본 막부는 이미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금지한 상태였음
- 그 사실을 조선 조정에게 통고하는 것을 미루던 대마도주는 안용복의 항의 후 1696년 10월 그 뜻을 조선 조정에게 전한 후 1697년 2월 동래부사에게 서계(書契)를 보내음
- ◇ 1957년 11월 부산에서 안용복장군기념회가 설립되었음. 이후 1967년 수영사적공원에 안용복 장군 충혼탑과 동상을 세워졌고, 2001년 3월 사당인 수강사가 건립되어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음. 2014년 3월에는 동구 좌천동에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이 개관되었고, 2015년에는 생가터가 확인되었음

검토

- ◇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던 왜인에 대해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항거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고 돌아옴. 그의 활동은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족정신의 상징체임
- ◇ 안용복의 항거는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생활 및 생산공간이라는 사실이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기록물에 기재되고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현재까지 한국이 동해의 해양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 이러한 안용복의 항거는 조선조정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한다."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로 이어짐. 즉, 울도군(울릉군) 내에 죽도와 석도(독도)를 포함시켜 울릉도 전체를 군도 개념으로 확장하여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함
- ◇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된 가운데, 1967년에 조성된 충혼탑과 동상, 2001년에 조성된 사당(수강사)과 2015년에 확인된 생가터 그리고 2014년에 건립된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을 포함하여 부산미래유산 '안용복 관련 유적'으로 상정함
- ◇ 위원15와 위원16의 평가/검토와 같이 생가터에 대한 확인 작업,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의 포함 여부 등을 비롯한 유산 명칭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위원1의 평가/검토에 따라 '안용복 관련 유적'에서 '안용복 유적'으로 변경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⑭ 청사포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시급성 미래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상징성은 보유하고 있지만, 시급성과 미래성의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위원 3	-	○
위원 4	천예의 절경으로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본인 관광의 부산물로 개발되어 오늘에 이른 역사를 가진 곳. 자랑 일변도가 아닌, 내 고장의 치부도 직시하는 설명 필요	○
위원 5	-	○
위원 6	타 해변지역도 중요함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부산을 대표하는 포구인지 의문. 자연 및 문화 포구 등의 전수 조사 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5	-	○
위원 16	선정 이유를 담은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음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포는 송정·해운대권역에 속하며 해운대의 미포와 송정의 구덕포 사이에 위치하며 해안 경사지에 발달한 부산지역 해안마을들 중 대표성을 가지는 마을임 ◇ 청사포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며, 해안구릉을 따라 발달된 공간구조, 기장해녀 등과 연계된 지역산업 현장, 동해 일출을 만나는 자연경관 등 남해와 동해의 경계를 이루는 입지적 특성이 강하게 인지되고 표출되는 해안마을이며, 당산과 망부송, 갯바위, 풍어제, 해녀, 방파제 등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포구의 자연성과 기능성이 다양하게 보전되고 있음 ◇ 특히 와우산 자락 아래로 펼쳐진 지형구조에 따른 마을 경계가 명확하여, 경사 연안지대에 형성된 자연형 해안마을의 특성이 지속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임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검토

- ◇ 305km의 길이에 이르는 부산 연안에는 약 50개소의 자연형 해안마을(포구 또는 어항)이 자리하고 있음
 - 기장권역 : 효암, 월내, 임랑,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이동, 이천, 학리, 죽성(두호)월전, 대변항, 신암, 서암, 동암, 시랑리, 공수 외
 - 송정·해운대권역 : 송정, 구덕포, 청사포, 미포, 동백항 외
 - 광안리·용호권역 : 우동, 민락, 남천, 용호(분포), 백운포 외
 - 부산항 영도·송도권역 : 북항, 하리, 중리, 대평, 남부민항, 암남 외
 - 다대·장림권역 : 모지포, 감천항, 서평포, 다대항(다대포), 흥티, 보덕, 장림, 하단 외
 - 강서·가덕권역 : 진목, 중리, 하신, 동리, 신호, 성산, 대저, 순아, 선창, 울리, 장항, 천성, 대항, 대항새바지, 외양, 동선새바지, 놀차, 항월, 정거 외
- ◇ 그러나 도시의 발달 및 광역화로 인해 많은 포구들이 왜소화 되거나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현재에도 이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음
- ◇ 현재 포구로서의 기능과 관련된 적정 규모와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는 포구는 10여 개소로 확인되나, 이들 중에서도 공수와 하리 등은 매립과 개발로, 강서·가덕권역의 놀차, 천성, 대항 등은 거가대교의 개통과 전개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인한 급변이 예상됨
- ◇ 청사포의 경우, 부산 연안의 타 포구들과 유사하게 개발 분위기와 급격한 상업관광화로 인해 고유한 경관과 공간구조가 점차 파괴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사포가 가진 자연형 해안마을로서의 고유성과 원형적 가치는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 이러한 측면에서 청사포는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자연형 해안마을로 정의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들의 평가/검토에 따른 명칭 등에 대한 조정은 필요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⑮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상징성 회소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동상의 제작 시기, 배경, 연혁,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5	인물과 관련해서 인물 중심으로 유산설정이 필요해 보임. 동상을 유산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후 생가 등 관련 유산이 만들어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6	선정 대상이 추상적임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박재혁 의사의 일생은 다음과 같음

- 1915년 3월 부산상업학교(현 개성고교)를 졸업하고 부산전기회사의 전차 종업원과 무역회사의 직원에 종사하며 항일독립운동에 전념하기로 함
- 1917년 상하이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며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였고, 1920년 7월 창단된 무장항일독립단체인 '의열단'에 입단하여 부산경찰서 폭파를 요청받음
- 1920년 9월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후, 9월 14일 하시모토(橋本秀平) 부산경찰서 서장을 면회하는 가운데 폭탄을 던져 서장을 폭사시키고 의사 또한 중상을 입음
- 현장에서 체포된 의사는 1921년 3월 사형이 확정된 후 대구형무소에서 단식 투쟁 중 1921년 5월 27세로 순국함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의사의 부산경찰서 투탄이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음 (박철규 2019, pp.243-244)
 - 1) 1920년 청설된 의열단의 최초 성공 거사
 - 2) 독립운동가로서의 신념을 명확하게 표출함.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라는 옥중 전언과 목숨을 건 투탄과 감옥에서의 단식 등은 항일운동에 대한 의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
 - 3) 동지들에 대한 의리와 무한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음. 의사는 투탄에 앞서 동지들과 단독 범행으로 약속했고, 끝까지 고문을 견디며 단독 범행임을 관철시킴. 그리하여 공범자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6명의 동지들은 1심 재판 전에 기소유예로 석방됨
 - 4) 의사의 투탄은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위축되어가는 항일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의열 투쟁의 시발점이 됨
- ◇ 박재혁의사 상은 의사가 햇불을 들고 조국 독립을 외치는 군상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며, 전체 높이가 6.5m(동상높이 3.1m, 좌대높이 3.4m)이며, 동상 및 부조는 청동으로, 좌대는 화강석임
- ◇ 2003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40-1-17)로 지정됨
- ◇ 의사 상의 건립 연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산시민의 정성과 뜻을 모아 박재혁의사님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동상이 이곳에 우뚝자리 잡기까지 연유를 여기에 새겨 박재혁의사님을 추모하는 시민의 마음이 세세연연 이어지기를 바란다. 1921년 5월 14일 박재혁의사님의 운구가 부산진역에 도착하자 시민과 함께 피 눈물로 통곡하신 의사의 거사동지이신 소정 최천택선생님이 좌천동 동산에 정성껏 모신 이후 1966년 국립현충원에 이전 안장되었고 1998년 부산시민과 부산상고동창회와 3.1동지회 회원들이 박재혁의사님의 동상을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

검토

- ◇ 박재혁 의사는 부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며, 부산정신을 논할 수 있는 인물임
- ◇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은 의열단 최초의 성공 거사로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일본에는 충격을 가한 쾌거였고, 부산항일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음. 옥중 단식 중 27세의 나이에 순국한 그는 항일독립투사의 전형임
- ◇ 의사를 기리는 후대 활동으로는 1946년 10월 정공단 내에 박재혁 의사비 건립(1981년 부산 진보통학교(현 부산진초등학교) 교정으로 이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1966년 의사 묘역의 국립현충원 이전 안장, 1998년 5월 12일 박재혁 의사 상 건립, 2012년 좌천동 독립운동가 박재혁 거리 지정, 2019년 생가터 확인 등임
- ◇ 현재 거리와 생가터는 안내판만 있을 뿐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이에 의사의 항일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유산으로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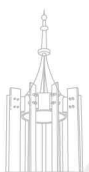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⑩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적정여부 (○, △,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지속성 잠재성 미래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아미동비석문화마을과 아미동비석마을 중 공식명칭은 무엇인가?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독특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존재.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시키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자연 및 문화마을의 종류와 연혁 및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떤 마을이 미래유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 개항 후 1906년 이래 서구 아미동 일대는 ‘일본인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음. 한국전쟁기 및 이후 아미동 일대는 피란주거지로 변화되었고, 특히 공동묘지 위에 형성된 비석문화마을 일대는 피란 주거지의 탄생과 확장, 정체 및 해체로 이행되는 변화 특성이 공존하는 생활유적지로 정의됨
- ◇ 전쟁을 전후하여 부산의 인구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피란민들의 생존의 현상이자 삶터였던 원도심 주변의 능선, 공터 등에는 피란민의 임시주거들이 난립하였음. 원도심과 연결한 아미동 공동묘지인 ‘산19번지’에도 피란민 임시거주의 조성이 허용되며 묘지 위에 피란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음
- ◇ 피란민들은 공동묘지의 상석과 비석을 계단, 담장, 축대, 벽의 일부로 사용했고 사각형 판형의 묘지를 바닥으로 삼아 주택을 지었음. 또한 1954년 정부 주도로 부산시내 판잣집이 철거될 때 철거민들 일부가 아미동 ‘산22번지’로 이주하면서 피란마을의 형성이 본격화되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 이를 전후하여 산상교회와 은천교회가 천막교회를 설립하고, 1953년에는 거리의 부랑자들과나 정신질환자들을 보살피는 ‘그리스도구원선’ 활동(한삼복 권사 주도)이 시작되었음
- ◇ 1950년대 중반 아미동 인근에 감천2동 태극도마을(현 감천문화마을)의 형성되면서 이 일대는 임시 주거지에서 정착 주거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아미동 화장장이 당감동으로 이전되고 1959년에 아미초교가 개교되면서 도시내 주거지대로서 기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음
- ◇ 1975년 약 3만으로 정점에 달했던 아미동 인구는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원도심 및 배후주거지대의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0년 부산시는 아미동 일대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 한곳의 사업지로 선정하였음. 또한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로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아미동 일대의 재생사업은 본격화됨
- ◇ 이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집들은 70여년의 속에서 천막, 판잣집, 슬레이트 블록집, 슬래브 주택 등으로 변해 왔음. 현재 노출되어 발견되는 총 297개 지점, 537개 비석들은 공동묘지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탄생된 절박했던 주민들의 삶을 반증하는 것임

검토

- ◇ 공간 측면에서 부산 지역의 피란마을은 크게 산 능선, 수변부, 공터 등에 무단 점유를 통해 형성된 유형과 공공시설(방공호, 소막사, 말막사, 공동묘지 등) 내에 형성된 마을로 대별 할 수 있음.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조성된 피란마을임
- ◇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민족적 애환과 피란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주거·생활사적 가치가 큰 지역 자산임
- ◇ 2014년 8월 도로확장공사 중 발견된 비석주택은 묘지 석축과 석조묘책 위에 피란민 임시주거 시설로 지어졌으며, 그 시기는 피란수도 시절인 1953년 7월 무렵인 것으로 추정됨(벽지로 사용된 1953년 7월 18일 자 국제신보 신문지 발견). 발견된 비석주택은 전쟁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조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잣집으로 추정됨. 비석주택은 전국 유일의 물증으로, 후대에 역사교훈의 현장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되어야 함
- ◇ 비석문화마을은 공동묘지 위에 형성된 주거지라는 총체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피란민들이 살던 피란 주거지(住居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즉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일본인 공동묘지, 피란민, 그들의 고생담으로만 연결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의미와 가치를 보유한 현장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장기적으로 마을 내에 산재한 비석의 흔적이 발견되는 길과 옹벽, 주택 기단 등에 이르는 공간 조직과 맥락 전체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이는 한국전쟁의 아픔과 이를 이겨낸 대한민국 근대역사의 현장을 영원히 지키고, 시민 삶과의 공존을 설명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 ◇ 또한 진정한 마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하의 문화재 보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삶과 연관된 총체적인 마을보전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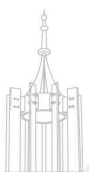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⑰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적정여부 (○,△,×)
(예비)선정의 근거		
시급성 잠재성 미래성 희소성		
위원(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1	-	○
위원 2	-	○
위원 3	-	○
위원 4	-	○
위원 5	-	○
위원 6	-	○
위원 7	-	○
위원 8	-	○
위원 9	-	○
위원 10	-	○
위원 11	-	○
위원 12	-	○
위원 13	-	○
위원 14	-	○
위원 15	-	○
위원 16	-	○
(예비)선정 유산의 가치와 주요 특성		

◇ 부산항 제1부두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1) 1910년대 : 1902년 이후 시행된 제1,2차 북빈매립공사로 폭 24m, 길이 276m의 잔교 및 철도 횡단교가 개설되었고, 이는 제1부두의 모태가 됨
- 2) 일제강점기 : 1912년 제1부두가 완공(돌제와 잔교는 1911년 완공)되었음. 당해 10월에 서양식 철골상옥이 건립되어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부산축항 제2기 공사(1919-1929)'를 통해 각종 부속시설들이 확충됨. 이후 1937년까지 이어진 공사로 철도관련 부속시설이 완비되어, 무역 및 철도환승형 여객부두로 완성되었음
- 3) 해방 및 한국전쟁기 : 제1부두는 귀국민 수송 및 전쟁 물자, 피란민 수송 기능을 담당하며 국난 극복의 현장으로, 특히 유엔군의 입항과 군수 및 구호물자 조달의 현장이자 전쟁의 교두보로 사용됨
- 4) 1950~1960년대 : 제1부두 남측을 어시장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결정에 따라 1963년 11월 제1부두에 '부산종합어시장'이 개장됨. 이후 제1부두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어시장으로 사용되었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 5) 1970년~2000년대 : 1973년 1월 어시장의 남부민동 이전 후,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1974~1980)'에 따라 잔교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건립되었고 제1부두는 국제무역부두로서의 기능을 회복함. 2000년 중반 이후 북항재개발로 인해 부두 활동이 중단되었고, 모든 기능은 부산신항으로 이전함
- ◇ 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1912년 준공 이래 약 1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근대역사의 변천과 부산항 변화의 단면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음
 - ◇ 다양한 측면에서 제1부두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됨
 - 일제강점기 : 국내 최초의 부두시설, 김마리아에 의해 3.1운동의 불씨가 도착했던 역사적 장소, 강제노역과 학병으로 떠났던 애환의 현장 외
 - 해방과 한국전쟁기 : 140만 귀국동포가 귀환했던 영광의 부두, 6.25전쟁과 피란수도기, 피란민과 유엔군이 들어온 후방 군수기지이자 역사의 현장, 1952년 최초 수출화물선의 출항 지점 외
 - 1960년대 이후 : 대한민국의 원양산업과 수산업(종합어시장)의 개척지, 최초 크루즈선 팬스타 허니호의 출항 외
 - ◇ 제1부두에 연결된 안벽은 1912년에 완공된 돌제가 내륙의 물양장과 연장되어 형성되었고 (현 부산세관 물양장), 국내의 현존하는 안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됨

검토

- ◇ 부산항 제1부두와 안벽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시설이자, 부산항 탄생과 매축 돌제의 축조방식을 설명하는 유산이며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기(피란수도기), 국가재건을 거치며 항일운동, 귀국동포 귀환, 피란민 수송, 국제협력, 국가경제 발전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사자산임
- ◇ 20세기에 진행된 각종 한국 근대역사의 살아있는 현장이자 장소로 기능하였고,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유엔의 군사 및 구호활동과 피란활동의 증거물이며, 전쟁 역전을 계기를 제공했던 역사적인 물증임
- ◇ 현재 제1부두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구성 유산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부두 소유자가 부산항만공사인 관계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제1부두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 또한 강하지만, 부처이기주의와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해 제1부두와 안벽은 원형 훼손의 위기에 처해있음(안벽 앞 공유수면은 2021년 12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에 있음)
- ◇ 지역차원에서 미래 유산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대상임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추가 추천(부산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1	매축지마을 :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
위원 2	구포국수,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 매축지마을, 이기대
위원 3	-
위원 4	-
위원 5	-
위원 6	-
위원 7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 정발장군동상, 윤흥신장군상 : 대로변 3대 동상으로 송상현상과 함께 의로운 저항을 상징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구 대한조선공사) 개성학교
위원 8	-
위원 9	-
위원 10	-
위원 11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 경매 :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당연 부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대화에서 잊혀지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함(상징성, 시급성)
위원 12	-
위원 13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 : 유희화된 공장 전체를 산업유산으로 선정, 관리, 그리고 활용하고 시민의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상징적 공간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산에 남겨진 공업단지와 학교 등의 공간 활용의 바람직한 예시로서의 상징성과 지속성도 좋음
위원 14	외양포 포대, 부산진역, 부산시민회관, 부산직할시승격기념상, 청풍장소화장, 피란문학, 박병제의 부산그림, 최민식의 부산사진
위원 15	구포국수 : 상징성과 미래성의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판단
위원 16	-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추천 유산의 개관

- **매축지 마을(상징성, 시급성)**
일제강점기 부산진 매축사업에 의해 탄생된 매축지는 일제의 군마관리 및 군수물자 등 각종 물류의 유통지대로 사용된다. 한국전쟁기에 피란마을로 재형성됨. 마구간과 연계된 피란마을의 흔적을 간직한 도심 속 오지마을로 잔존하고 있으나 조만간 도시개발에 의해 해체 예정임
- **구포국수(지속성)**
구포국수는 구포 일원에서 생산되는 국수를 총칭. 구포국수 탄생의 3가지 조건인 풍부한 일조량, 낙동강의 해풍, 금정산 줄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의 특성이 반영된 국수이며,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국내 최초의 사례임
- **영도 조내기 고구마 발상지(희소성)**
영도는 우리나라 고구마 시배지이며, 1763년 동래부사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와 강필리에 의해 영도에 처음으로 시배함. 이를 기념하는 역사공원과 역사기념관이 시배지 주변에 개관됨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구 대한조선공사)(회복가능성, 시급성, 잠재성, 미래성)**
군함 등 선박의 제조·수리·건조 목적으로 193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3000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선대들과 100~300미터 길이의 선박수리용 도크(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도크는 매립되어 있음), 북항과 영도연안의 조선업 변천을 설명하는 산업유산임
- **개성학교(잠재성, 희소성, 상징성)**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교육하고자 박기종 등 4인의 유지가 설립한 한국인이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식 학교(설립일:1896.2.14.)로 지역 근대교육의 산실이 됨. 현 봉래초등학교와 개성고등학교 교의 전신임
-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 경매(시급성, 상징성, 지속성)**
손가락 경매, 수지호가식 경매 라고도 부르는 수지상향식 경매 방식은 중매인이 손가락으로 의사를 표시 하는 전통방식으로 수산도매시장의 원형기술이며,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소한 어업 전통거래방식임
- **고려제강 수영공장(F1963)(희소성, 잠재성)**
1963년에 건립된 고려제강 수영공장의 시설과 터로써, 유희화된 공장 전체를 산업유산으로 이해하고 기업과 관이 함께 새로운 개념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시킨 민관공조형 산업유산 재활용의 우리나라 대표사례로 평가됨
- **외양포 포대(시급성, 희소성, 잠재성)**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기습공격을 목적으로 일본군이 구축했던 포진 지임. 일제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은 계기가 된 러·일 전쟁기 상황과 군사 요충지로서의 가덕도의 입지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식민지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영토 수탈의 일면을 보여줌



1. 유산의 선정

1.2 시민설문 결과에 따른 평가 및 검토

추천 유산의 개관

○ 부산진역(시급성, 미래성)

동해남부선(1934.7.16. 개통)의 부산진~해운대 구간(총길이 18.9km)의 시·중착역으로, 부산이 개항장에서 근대도시로의 기능 전환을 상징하는 장소임. 2005년 일대가 부산진역 CY부지로 사용되며 유희시설화 되었고,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포함되어 해체될 예정임

○ 부산시민회관(희소성)

1973년 개관(설계: 이광로)하였고, 노출 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신공법을 사용하고 곡선의 지붕들로 구성된 아케이드와 바다와 민속놀이 '강강술래'에서 착안한 곡선형 외부 기둥의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임. 부산의 산업화 이후 부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전담했던 공간으로, 부산시민의 동질성 형성에 크게 기여함

○ 부산직할시승격기념상(희소성)

1963년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며 부산상공회의소 지원(이병철, 구인회, 강석진 등 14인)으로 서면 교차로에 세워진 부산탑의 조형물임. 부산탑은 전쟁이후 경제개발과 국가재건을 위해 대도시로 급성장한 부산의 상징물로 인식되다 1981년 지하철 1호선 공사 시에 해체되었고 조형물은 부산박물관 마당에 이전하여 전시 중에 있음

○ 청풍장소화장(상징성, 시급성, 미래성)

남포동 비프광장 이면도로에 자리한 청풍장(1941년 건립/4층)과 소화장(1944년 건립/3층)은 남항(남빈) 매립 후 개발된 택지에 들어선 부산 최초의 공동주택임

○ 피란문학(상징성)

과거의 삶을 가장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예술분야가 문학임. 한국전쟁기 피란의 삶 속에서 탄생된 '밀다원시대'(김동리), '곡예사'(황순원), '소시민'(이호철), '비오는날'(손창섭) 등의 작품들은 피란시절 당시의 부산과 시민들의 삶을 매우 풍부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억의 보고로 평가됨

○ 박병제의 부산그림(상징성, 희소성)

박병제는 1954년 서구 초장동에서 출생하였고, 1979년 이후 부산의 근대화 과정을 소박하지만 섬세하게 묘사한 평면회화 작품으로 표현함. 자화상(1988), 기다림(1988), 눈길(1989), 송도의 오후(1998), 자갈치의 오후(1999), 행상(2002년) 등 그의 부산관련 그림들은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부산역사에 대한 기억의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를 가짐

○ 최민식의 부산사진(상징성, 희소성)

최민식은 일명 자갈치 작가로 불리며, 부산의 지역색이 듬뿍 묻어나는 작품들을 남겨 소외된 이웃들과 서민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담아내는 리얼리즘 작가이자 대한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임. 그는 작품 13만여 점을 2008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고 기증 작품들은 민간기증 국가기록물 1호로 지정됨



1. 유산의 선정

1.3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최종 선정

1) 유산의 구성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예비 후보 중 11건을 제3차 부산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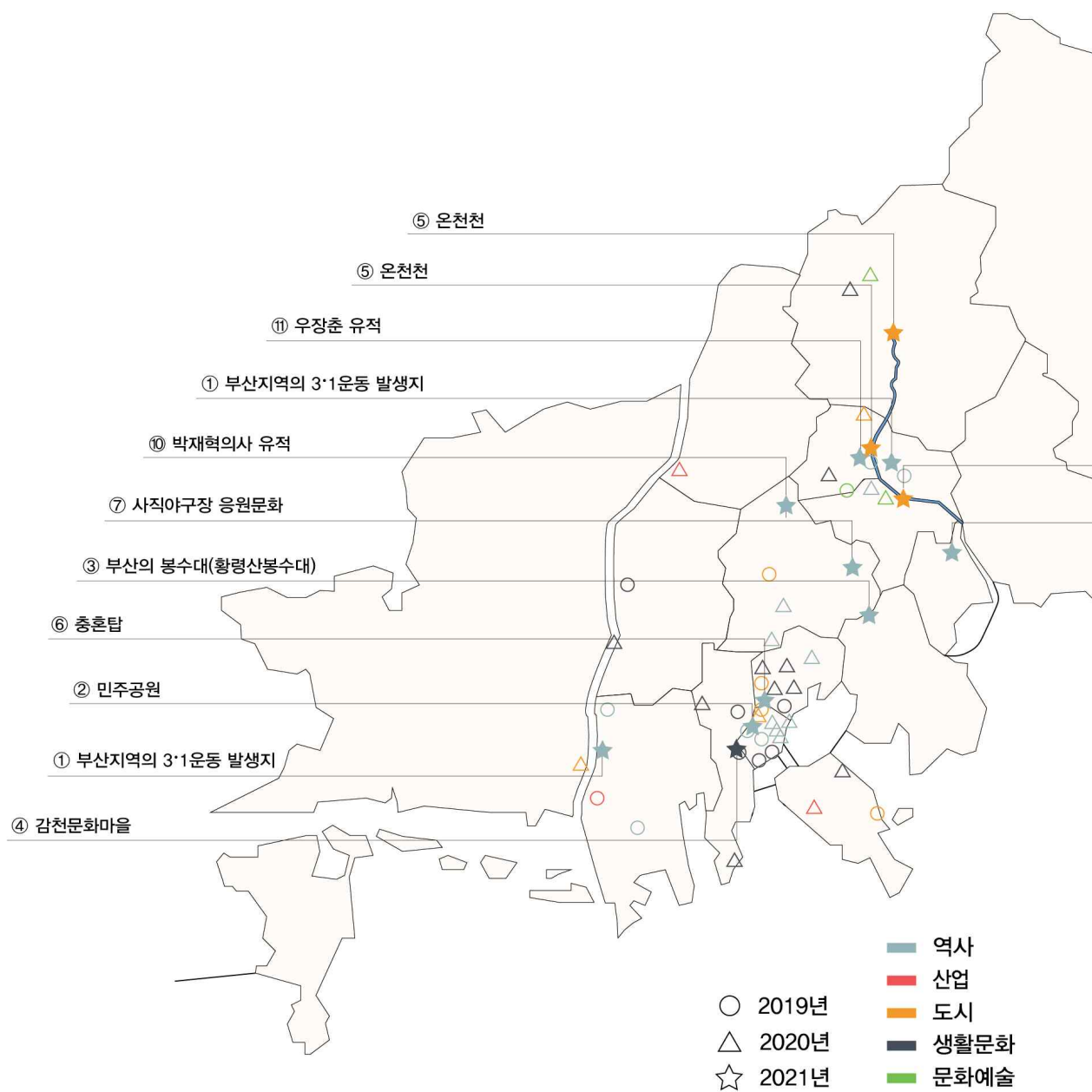
명칭	심의결과	심의 근거	연번	최종 선정
동래장터와 구포장터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수정선정	명칭 변경	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민주공원	선정	-	2	민주공원
황령산봉수대	수정선정	명칭 변경	3	부산의 봉수대 (황령산봉수대)
총렬공 송상헌선생 상	보류	타 동상들을 포함한 종합 검토 필요	-	-
감천문화마을	선정	-	4	감천문화마을
부산타워	보류	제1차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용두산공원에 포함	-	-
흰여울문화마을	보류	피란시대 형성된 마을이 아니며 마을 명칭도 급조	-	-
온천천	선정	-	5	온천천
충혼탑	선정	-	6	충혼탑
사직야구장과 응원문화	수정선정	명칭 변경	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1960년·1979년·1987년· 2016년 부산의 광장문화	보류	민주화 운동으로 재검토 필요	-	-
기장미역	선정	-	8	기장미역
안용복 관련 유적	선정	-	9	안용복 관련 유적
청사포	보류	개발사업으로 많은 변형 예상, 해녀 등 다른 관점에서 검토 필요	-	-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수정선정	명칭 변경	10	박재혁의사 유적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보류	지방 등록문화재 지정 예정	-	-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보류	해양수산부 지정 거절	-	-
우장춘 기념관	수정선정	2020년 보류 유산	11	우장춘 유적



1. 유산의 선정

1.3 제3차 부산미래유산의 최종 선정

2) 유산의 분포





①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동래장터 3·1만세운동)



④감천문화마을



⑧기장미역



①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구포장터 3·1만세운동)



⑤온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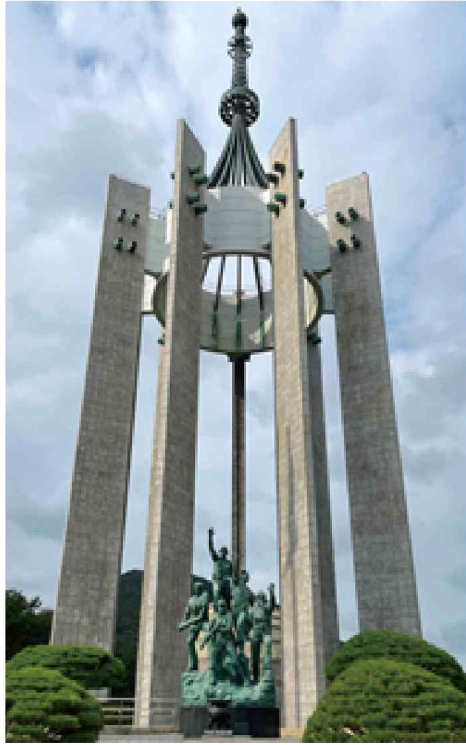
⑨안용복 관련 유적



⑧ 기장미역

⑤ 온천천

⑨ 안용복 관련 유적



⑥충혼탑



⑩박재혁의사 유적



③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⑦사직야구장 응원문화



⑪우장춘 유적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1) 개관

분야	역사	형성시기	1919.3.13, 1919.3.29
초기형태	시장	현재기능	시장
소유자	-	관리자	-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46,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만세길		

▷ 연혁

- 부산지역에서 발생했던 3.1만세운동의 최초 함성은 3월 11일 부산진(좌천)에서 울려 퍼졌으며, 3월 13일 동래장터, 3월 29일 구포장터, 4월 9일 기장장터에서 연이어 봉기되었음
- 부산지역 내 곳곳에서 봉기했던 3.1만세운동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1) 부산진(좌천) 3.1만세운동
 -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남
 - 지역 최초(3월 11일)의 만세 함성으로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 시발점이자 기폭제가 됨
 - 1차 만세운동 후, 지역민과 함께 좌천정 시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됨
 - 2) 동래장터의 3.1만세운동
 - 3월 13일 동래장날에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선창한 것으로 시작됨
 - 200여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는 미리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귀향한 동래고 출신 졸업생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띠었음
 - 만세운동은 동래기영회 등과 연계되었던 항일운동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구포장터의 3.1만세운동
 - 부산진과 동래의 영향을 받은 구포장터의 3.1만세운동은 지역민은 물론 장을 보러왔던 김해, 양산 등지의 타지역민도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3.1만세운동이 농민, 상인, 노동자 등 계층을 초월하여 민중으로 확산되는 본격적인 계기를 제공함
 -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1920년대 구포지역 청년 및 농민 주도의 사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
 - 4) 기장장터의 3.1만세운동
 -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단발성 시위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역 내·외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였고, 경남도에서의 만세운동은 양산, 김해 등이 대표적임
 - 4월 5일에 일어난 기장장터 3.1만세운동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였음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1) 개관

[동래장터]

- 오일장을 계기로 대규모로 만세운동이 발생
- 1910년대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성행하자 조선에서도 종교계를 비롯한 가계 지도자들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결의되고,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3.1만세운동이 발생함
-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3.1만세운동이 시작됨
-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은 3월 13일 장날을 기해 봉기되었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으며 6개월 ~ 2년 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루었음

<약력>

- 1919년 3월 13일과 18일, 19일 등의 날에 동래장터 일대에서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명정학교 및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3.1만세운동이 전개됨
- 동래장이 섰던 1919년 3월 13일 오후 3시에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 만세를 선창함과 동시에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를 제창하면서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은 본격화됨. 그러나 일본 군경 발포와 주도자 검거로 진압되었고, 이 시위에는 약 200명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임. 동래고보학생들의 만세시위는 미리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고 귀향한 동래 출신 졸업생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띠었음*
- 1919년 3월 18일 장날에도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관련자들의 밀고로 만세운동의 주동자들이 연행됨
- 1919년 3월 19일 아침에 다시 학생들이 독립사상의 고취를 주장하는 내용의 격문을 배포하였고, 오후 5시경에 동래장터 남문 근처에서 시위가 개시됨
-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명위원회에서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옛 남문 터와 동래시장 주변을 동래만세거리로 지정함*
- 1996년부터 매년 3월 1일 동래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홍순권, 2019, p.20

▶ 부산역사문화대전
연합뉴스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1) 개관

[구포장터]

-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3.1 운동의 소식을 접한 구포지역의 유지들과 노동자, 농민, 상인을 중심으로, 구포장의 장날인 3월 29일 구포 일대에서 발생
- 3월 중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이 구포로 내려오면서 구포면 서기 임봉래를 찾아가 서울과 평양의 3.1만세운동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독립선언서를 제시하면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 진행 됨

<약력>

- 1919년 3월 27일과 28일 임봉래, 유기호, 윤경, 김옥겸, 김윤길, 허정, 김용이 등은 박영초·이수련 집에서 논의를 거듭한 후 3월 29일을 구포 장날을 거사일로 정함
- 1919년 3월 29일 정오 박덕홍, 손진태, 김장학 등의 청년들은 비밀리에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 배포하고, 시위를 시작함. 구포 주민은 물론 장을 보러왔던 김해, 양산, 동래 등 사람들도 참여하였고, 검거되어 갇은 고문과 문초를 받은 주동인물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농민, 상인, 노동자들이 대다수였음
- 1995년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를 제막하고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기 시작함
- 2021년 '구포장터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문화재 태극기 사진전'을 구포만세거리 내의 만세갤러리에서 개최함

강대민, 2010, pp.64~65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광역시북구청

평가

- ◇ 일제강점기 동안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자주적 저항의 흔적을 기념하는 유적은 근대화의 강압적 측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사람들의 애환과 노력을 부각시킨다는 중요한 균형추로서의 의미가 있음
- ◇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최초 함성은 부산진(좌천)에서 울려 퍼졌으며, 연이어 봉기한 동래장터에서 만세 함성이 봉기함. 부산진과 동래에서의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발발한 구포장터와 기장장터 등에서의 만세운동은 다양한 민중의 참여라는 특성을 가짐
- ◇ 부산지역에서 봉기한 3.1만세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청년학생들의 봉기에서 시작되어 상인, 노동자, 부녀자, 농민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한 민주적 항일운동으로 발전함
 - 둘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봉기하여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
 - 셋째, 3.1만세운동의 정신은 계승되어 지역 청년들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독립 및 항일운동의 바탕을 제공함
- ◇ 부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장터라는 일상적 터전에서 부산지역의 민중들이 풀뿌리 차원에서 어떻게 일제에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소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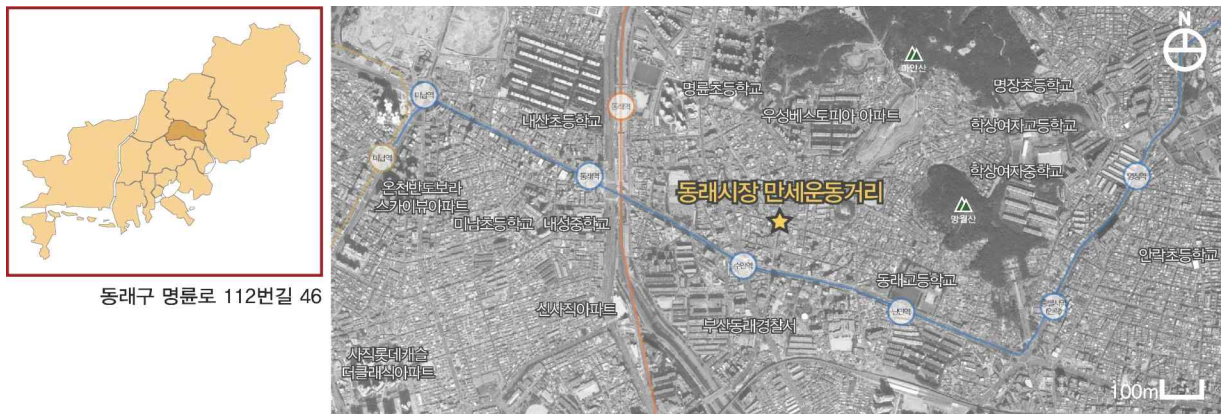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2) 현황

▷ 입지여건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46

▷ 공간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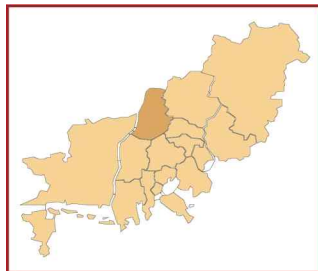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2) 현황

▷ 입지여건



북구 구포만세길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2)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명위원회'에서 구 대동병원사거리 맞은편 하나은행(옛 동래읍성 남문터)~동래시장~동래구청~북천박물관까지의 도로(연장 570m, 폭 8m)를 3.1만세거리로 지정함 · 매년 3월 1일에 동래장터 3.1만세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의 재현행사는 동래고등학교 정문에서 박차정의사 생가를 지나 동래시장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까지 이어짐 · <구포>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출신 선열들의 항일운동의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고, 구포역부터 구포시장 입구까지 약 600m 도로를 구포장터 3.1만세거리로 지정함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현 행사는 시행되고 있으나, 기념비, 안내시설 등 유산관련 시설들이 장터의 각종 거리시설물들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혼란스런 경관이 연출되고 있음 · 3.1만세운동의 진정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	-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3.1만세운동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장터라는 특성을 강화하여 지역투어프로그램과 긴밀한 연계 방안을 마련함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3) 관련 이미지

▷ 동래장터 3.1만세운동



동래시장 만세운동거리 전경



동래시장 만세운동거리



동래시장 만세운동거리



동래시장 만세운동거리 표석



동래시장 만세운동거리 표석(인물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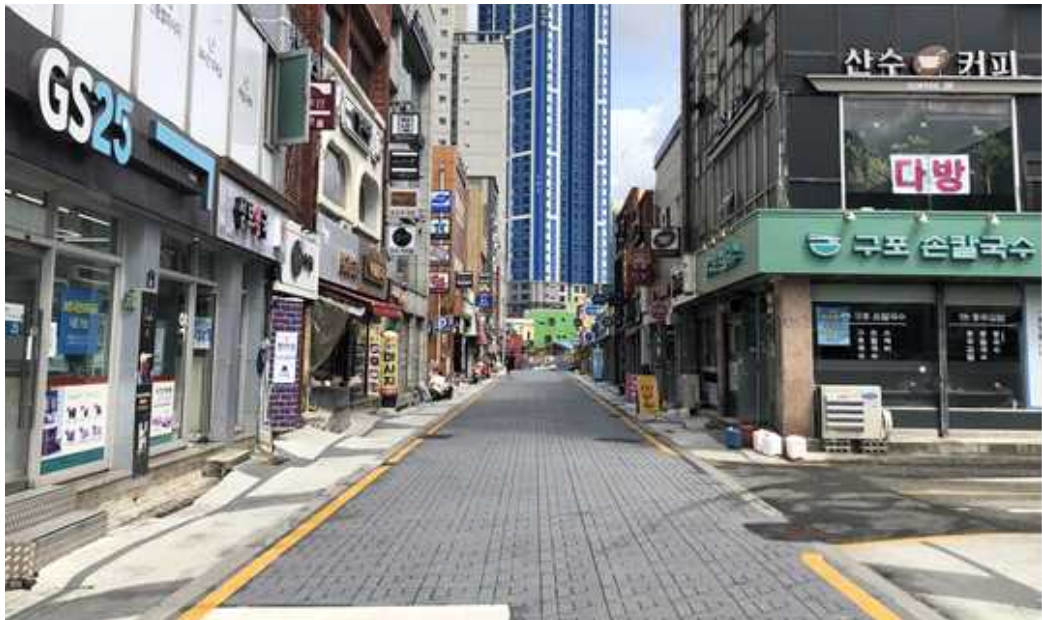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3) 관련 이미지

▷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구포만세거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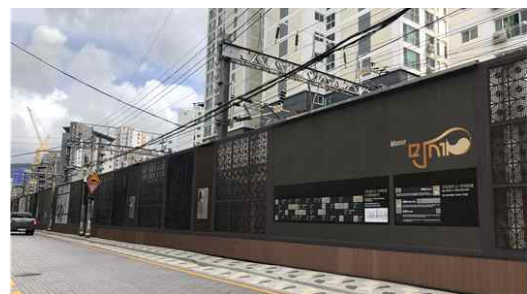
구포만세거리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



구포만세역사 테마거리



구포만세역사 테마거리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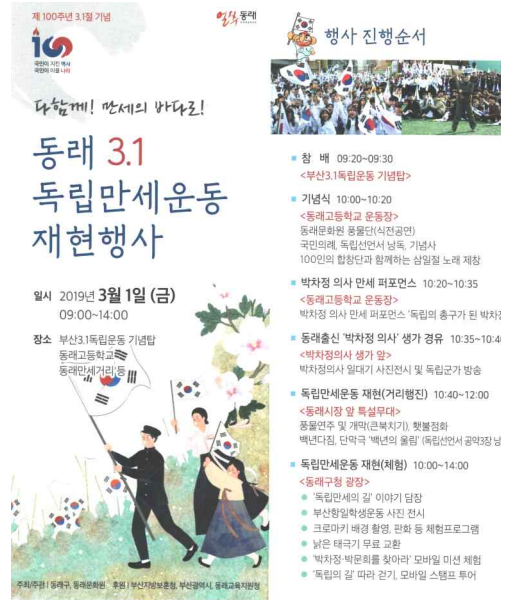
4) 관련 자료

▷ 동래장터 3.1만세운동 도면 및 사진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뉴스시스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포스터

©동래문화원 홈페이지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연합뉴스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김사익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수막

©배짚이총각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4) 관련 자료

▷ 구포장터 3.1만세운동 도면 및 사진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포스터
©부산광역시 북구청 블로그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부산광역시 북구청 블로그



2. 기초현황조사

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상지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강대민 2010,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호, pp.41-90.
-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권, pp.33-73.
- 김용욱 2001, “부산의 역사와 정신”, 전망.
- 오미일 2019,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권, pp.57-104.
- 표용수 2010,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 홍순권 2019,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항도부산』, 37권, pp.105-151.
- 2002.02.19. 국민일보, 『“3·1절 기념식 초대합니다”… 부산시, 참가신청 받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93097>
- 2009.02.27. 뉴시스, 『부산서 3.1절 90돌 기념행사 다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48276>
- 2011.02.28. 부산일보, 『'동래·구포 만세운동' 재현 아파트 태극기 110% 달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228000076>
- 2019.02.19. 부산일보, 『구포1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구포장터를 태극 물결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19000007>
- 2019.02.20. 부산일보, 『동래구, 100년 전 '동래3.1독립만세운동' 재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20000007>
- 2019.02.21. 국제신문, 『'동래 만세 거리'서 일제 맞서던 그날을 기리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010920.01001E01223>
- 2019.02.28. 부산일보, 『[3·1절 100주년] 유공자 선정에 웃고…“父 독립운동 사실 93년 만에 알아”』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2819511314412](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2819511314412)
- 2021.03.09. 테크월드, 『부산 북구,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1>



2. 기초현황조사

2.2 민주공원

1) 개관

분야	역사	형성시기	1999.10.16
초기형태	공원	현재기능	공원
소유자	부산광역시	관리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재지	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 연혁

- 대한민국의 민주화(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에 혁혁한 기여했던 부산시민들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의 장소이자 교육의 장

〈약력〉

- 1995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기념탑, 부산민주항쟁기념관, 부마민주항쟁기념공원 등의 조성 추진을 결의함
- 1996년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함
- 1996년 12월 부산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997년 기공식과 공사 시작
- 1998년 12월 전시실, 운영 프로그램, 각종 용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등 발주
- 199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일에 개관
- 1999년 12월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역사문화대전
민주공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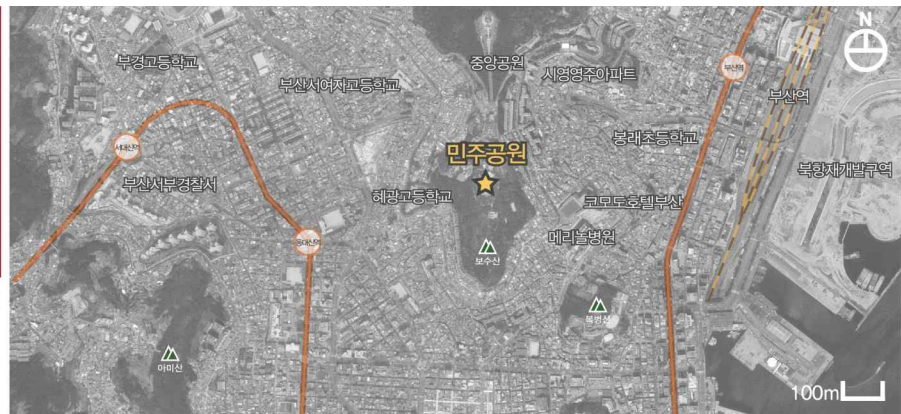
평가

- ◇ 민주공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기여를 해온 부산시민들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의 장소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임
- ◇ 숭고한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계승·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을 즈음하여 개관한 공원형 기념·문화복합공간임
- ◇ 민주공원은 부산사람들을 저항정신의 계승과 이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기 선정된 부산시민공원이 외세를 기원에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민주공원은 부산사람들의 주체적인 민주화를 상징한다는 대비의 의미가 큼
- ◇ 기 선정된 '부마민주항쟁'와 '6월 항쟁'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념하기에는 특화된 장소성이 부족한 측면이 강하였음. 비록 사건의 실제 장소라는 현장성은 부족하지만 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부산사람들의 민주화 열정을 한 장소에 결집하여 기념하는 장소적 상징성은 교육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



2.2 민주공원

▷ 입지여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2 민주공원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공원의 전체 부지면적은 2만 337㎡에 이릅니다 · 옥외공간으로는 공연기능을 가진 ‘바깥놀이 마당’과 ‘어렵사리 마당’ 등이 있으며, 옥내는 다양한 기획, 전시, 공연이 가능한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음 · 민주항쟁기념관의 하부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중심공간에는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뜻기림 햇불’이 있음 · 민주공원 내 건축물인 부산민주항쟁기념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 공연이 가능한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고, 옥외에는 공연기능을 가진 ‘바깥놀이 마당’과 ‘어렵사리 마당’ 등이 있음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지역성을 대변하고 ‘민주’를 테마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공원이라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사건의 실제 장소라는 현장성 부족과 함께 전반적인 홍보 부족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전국 차원에서의 명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월요일, 공휴일 휴무	08:00 ~ 20:00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민주화운동(1960년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부산사람들의 민주화 열정을 한 장소에 결집하고 네트워킹하여, 이를 기념하는 교육의 앵커공간으로 활용 · 부산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화 작업을 활성화 함 		



2. 기초현황조사

2.2 민주공원

3) 관련 이미지



민주공원 전경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민주의 햇불 조형물



민주공원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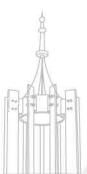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민주항쟁기념관



4.19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넋기림마당



2. 기초현황조사

2.2 민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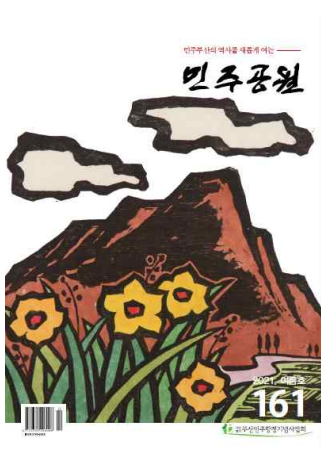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민주공원 안내도

©민주공원 홈페이지



민주공원 소식집

©민주공원 홈페이지



민주공원 행사 포스터

©민주공원 홈페이지



부산민주공원 배치도

©부산일보

2. 기초현황조사

2.2 민주공원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한국민족문화』, 67권, pp.363-396.
-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2016,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2016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 이지형 2012, “부산 민주공원 상전시실 운영을 기억하며... - 2003년 재개관부터 2005년까지의 전시실 운영 사례 -”에 대한 토론”, 『한국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2, pp.1-3.
- 정유경 2011, “부산지역의 부마항쟁에 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39권, pp.314.
- 최원준 2016, “3월에 가보자, 부산정신 타오르는 상징공원으로”, 다이나믹 부산 통권 제112호(2016년 2월호).
- 1996.04.15. 국제신문, 『“민주공원”대청공원에 선다...고 박종철군 흉상등 설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19960415.01031179421>
- 1996.07.05. 부산일보, 『민주공원 조성 본격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60705000313>
- 1996.12.21. 부산일보, 『“부산민주공원” 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61221000537>
- 1999.09.22. 부산일보, 『YS “민주공원 개관식 참석”』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90922000045>
- 1999.10.16. 부산일보, 『부산민주공원 역사적 개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91016000651>
- 1999.10.16. 국제신문, 『민주공원 개관 기념...민주공원 개관까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19991016.01004342658>
- 2009.11.20. 부산일보, 『“엄마와 동생도 함께 올 걸 그랬어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1918572180067>
- 2020.04.19. 부산일보, 『[포토뉴스] 민주공원 꽃구경 ‘복적’』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1918572180067>
- 2021.05.09. 부산일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전시와 판화로 만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0421131337614>



2. 기초현황조사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1) 개관

분야	역사	형성시기	고려시대
초기형태	봉수대	현재기능	전망대
소유자	-	관리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체육과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 50-1		

▷ 연혁

- 조선의 국경해안 경계와 (긴급)연락을 위해서 설치된 봉수시설이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임
- 지역 내 봉수대들 중 가장 오래된 봉수대 중 한 곳이며, 1976년에 복원됨

〈약력〉

-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는 고려 말에 최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함
- 세종 7년(1425) 「경상도 지리지」에 부산지역에는 동평현의 석정봉수대, 동래현의 황령산 봉수대, 동래현의 간비오산봉수대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음
- 연변봉수 체계 속에서는 석성봉수대와 간비오산봉수대를 연결하였고, 내지봉수 체계로는 응봉봉수대와 계명산봉수대를 연결하였음
- 1592년 임진왜란 때 전국의 봉수대 중에서 최초로 봉화를 올림
-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시에서 학술조사를 거쳐 복원함

부산역사문화대전
위키백과

평가

- ◇ 부산지역은 왜구 침입이 빈번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봉수대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었고,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는 사방이 트여 있는 산정에 입지하여 왜적의 침입을 알리는 남해안 최전방 감시초소 겸 통신부대로 역할을 담당하였음
- ◇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는 지역 내의 가장 오래된 봉수대 중 한 곳이라는 역사성이 가지며, 해운포와 부산포 일대의 왜적 침입을 감시하던 내지봉수(경봉수)와 연변봉수가 분기되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적 가치도 높게 평가됨
- ◇ 내륙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입지적 가치와 시민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봉수대들 중 가장 활용 가치가 큼
- ◇ 현재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의 복원된 상부구조는 당시 발굴된 상태를 기본으로 문헌의 기록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차후 인근 봉수대의 발굴 성과를 참고로 한 복원 작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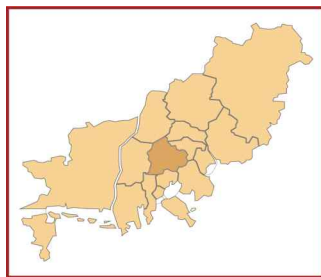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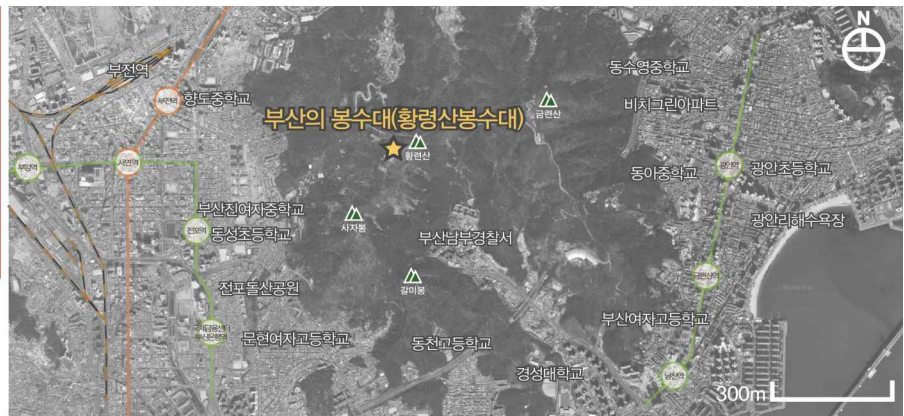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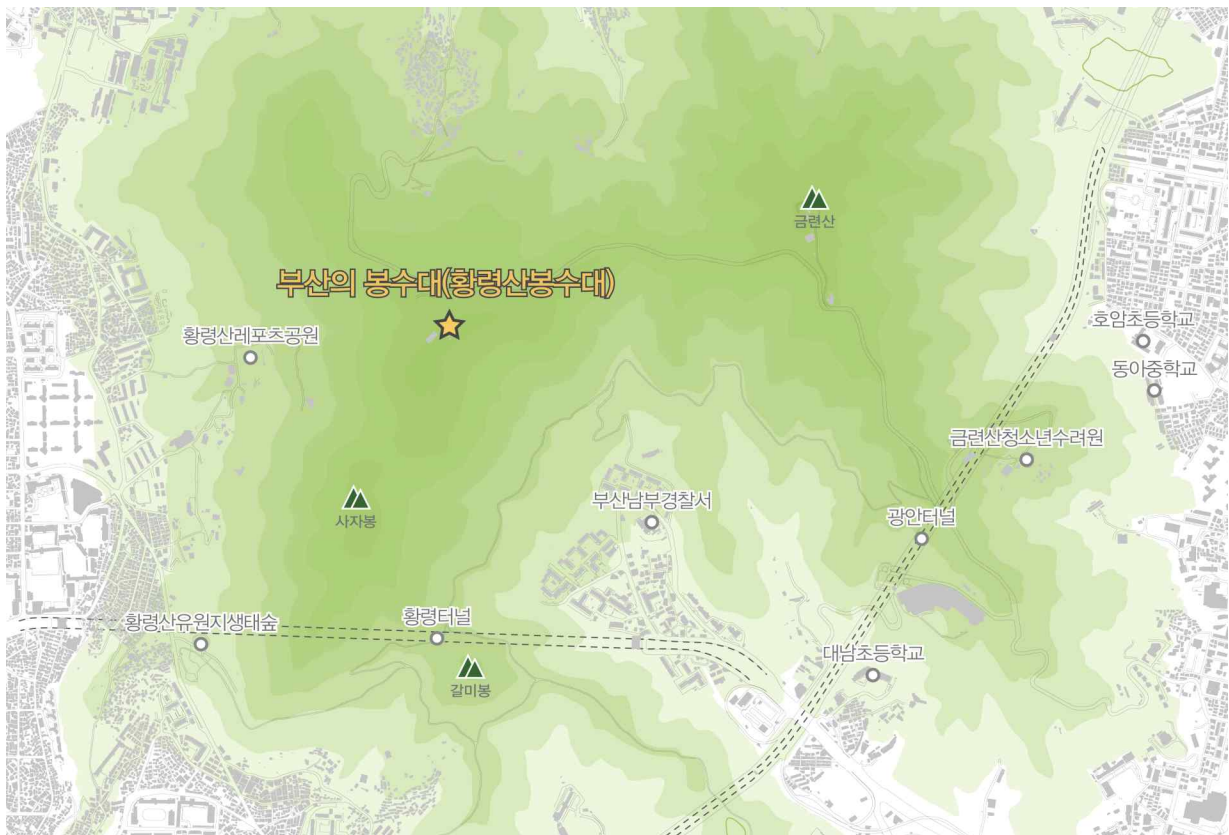
▷ 입지여건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 전에는 봉수대 하부구조만 잔존하였으며 일직선상의 구들이 횡으로 5줄 있었다고 알려져 있음 · 현재 5개의 연굴과 4각형 굴뚝, 그 앞에 원형 화덕 5개가 설치된 부뚜막 형식의 봉수대가 복원됨 ·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에서 동쪽으로 해운대와 광안대교, 서쪽으로 개금과 주례, 북쪽으로 서면과 동래방면, 남쪽으로 영도와 부산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짐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복원을 하였으나, 복원된 현재의 형상을 원형이라고 볼 수 없음 · 주변 송신탑과 경관이 어울리지 못함 · 부산시가 황령산에 전망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상충이 예상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	-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확보 차원에서, 봉수대의 원형 파악이 가능한 기장이길봉수대, 기장이아봉수대, 기장남산봉수대 등의 발굴조사의 기록과 현장에 대한 조사작업을 통해 봉수대의 정확한 고증·복원이 필요함 ·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는 부산지역의 봉수대들 중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강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봉수대로서의 장소성과 조망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부산지역 봉수대들의 봉수 체계(연변(沿邊)봉수와 내지(內地)봉수)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함 		



2. 기초현황조사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3) 관련 이미지



전경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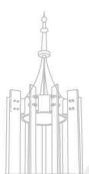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연조



연대 및 연조



화덕



2. 기초현황조사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황령산봉수대 전망대 야경

©다이내믹부산



평화통일 염원행사

©부산일보



황령산봉수대에서 본 불꽃축제

©동아일보



2. 기초현황조사

2.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 봉수대)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부산은행 “부산,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 이귀혜 2001, “釜山地方의 烽燧臺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군 1997,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1”, 부산을 가꾸는 모임.
- 2000.07.01. 국제신문, 『황령산 봉수대 정비완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00701.01025378644>
- 2000.04.11. 부산일보, 『황령산 봉수대 다시 불 지핀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00411000126>
- 2002.09.25. 국제신문, 『[두리아 통신] 36억 화합의 봉화 타오른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0119934>
- 2008.02.12. 국제신문, 『황령산 봉수대 심터 변신 전망대·휴게시설 등 조성』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19991016.01004342658>
- 2007.10.02. 세계일보, 『2020년 올림픽 부산 유치 기원 "봉화식" 열린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071002002202>
- 2008.07.05. 국제신문, 『“동짓날 불씨” 설화 간직한 마하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8800&key=20080705.88001214734>
- 2020.01.20. 부산일보, 『부산 중심 황령산, 105m 전망대 세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12019401085004>
- 2021.08.19. 문화일보, 『“황령산 전망대, 자연과 지형 친화적 건축으로 가치 높일 것”』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901071227098001>



2. 기초현황조사

2.4 감천문화마을

1) 개관

분야	생활문화	형성시기	1950년대 초중반 이후
초기형태	태극도 신도들의 집단촌	현재기능	문화마을
소유자	-	관리자	사하구, 마을주민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03		

▷ 연혁

- 감천동의 급경사 사면부에 태극교도들이 집단 이주하며 정책적으로 형성된 마을
- 산복도로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한국전쟁 후 피란민의 삶을 인지할 수 있는 생활현장

〈약력〉

- 1950년대 초중반 태극도 신앙공동체가 보수동에서 집단으로 이주함
- 2009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마을예술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프로젝트가 당선되면서 낙후되었던 주거지가 문화마을로 탈바꿈
- 2011년~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 2012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대상 수상
-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년 보전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선정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평가

- ◇ 195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스스로 정했던 ‘마을과 주택 조성의 원칙(모든 길은 통하고,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말자.)’을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조성되었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의 증·개축은 있었지만,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발달된 공간조직(길, 필지 등)의 형상과 배열은 변하지 않은 채 지형을 따라 발달된 골목계단들과 층층이 쌓인 주택들의 모습이 매우 특징적인 마을임
- ◇ 지역민과 예술인, 지역행정 등의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진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경제·문화적 생존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재생마을의 모델이자 연 300만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임
- ◇ 감천문화마을은 2013년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기 전,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예술인들과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발의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이 시작된 전국 최초의 문화재생마을의 대표 사례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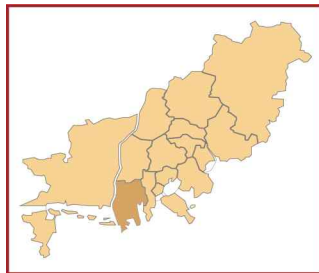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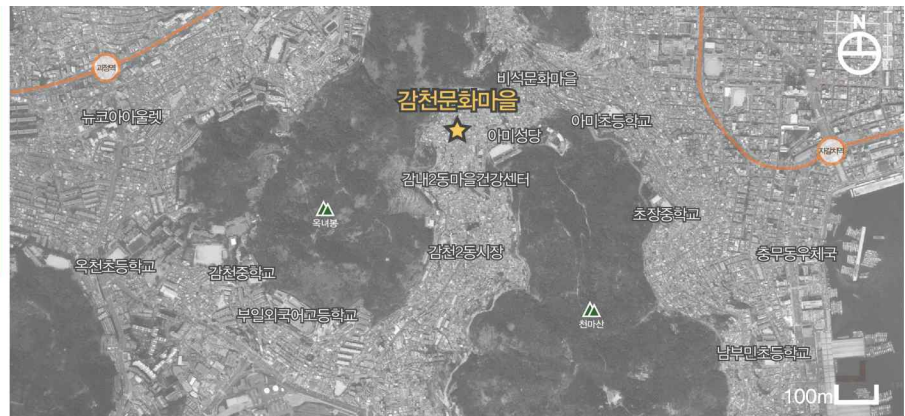
2.4 감천문화마을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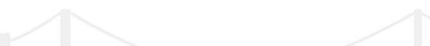
▷ 입지여건



사하구 감내2로 203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4 감천문화마을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사업이 시작된 후 마을의 빈집을 예술창작실 혹은 갤러리로 개조하거나 북카페, 식당, 민박집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마을 공터와 옥상을 생태 정원으로 바꾸는 등 여러 유형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문제, 마을 전반의 빈곤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상업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상업화가 과하게 진행됨 · 마을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광객들의 밀집으로 마을 공간이 매우 혼란스러우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주민과의 갈등도 발생 중 · 지역 스스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 최초로 보전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연중개방	-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온 마을 전체의 풍경을 체계적으로 보전·유지·관리하여 지역 풍경마케팅의 최적지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마을 자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함 · 지역민 스스로의 자생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민의 삶과 문화가 연동되는 살아있는 산복도로의 명소로의 육성이 필요함 		



2. 기초현황조사

2.4 감천문화마을

3)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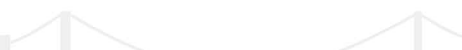
전경



고등어를 테마로 하는 마을 벽화



층층이 쌓인 감천의 집들



2. 기초현황조사

2.4 감천문화마을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이주전 1950년 감천문화마을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59년 흙과 돌 운반
©태극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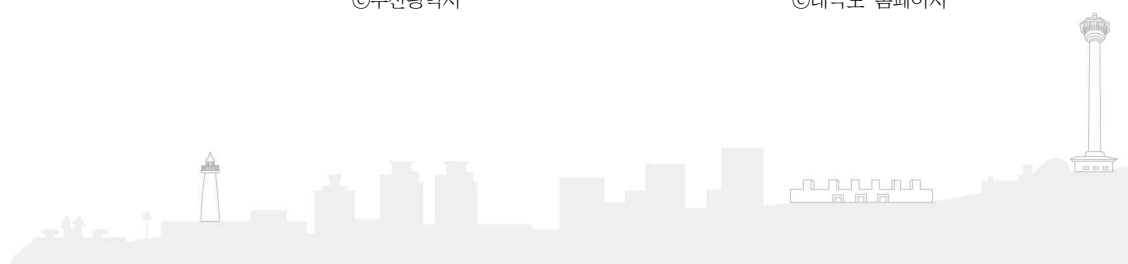
1988년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1960년대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주민
©국제신문



1959년 판옥집
©태극도 홈페이지



2. 기초현황조사

2.4 감천문화마을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창수 20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99-112.
- 박현희 2013, “낙후된 산동네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마을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국토」, pp.55-60.
- 손영림 외 1명, 2021, “부산 피란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주민 인지성 연구 -감천문화마을, 우암 소막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2권.1호, pp.33-40.
- 우양호 2019, “마을공동체의 진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 -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 「실천민속학연구」 38권 pp.399-440.
- 이석환 2015, “감천문화마을 만들기”. 「건축」, 59권 6호, pp.42-45.
- 이연숙 외 1명 2014,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4권 3호, pp.111-120.
- 이영준 외 1명 2014, “도심 재생 사례 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pp.355-356.
- 2012.09.16. 국제신문,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프리카 도시재생모델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917.22010204905>
- 2012.11.29. 부산일보, 『부산감천문화마을, 아시아 최고 경관 마을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1129000221>
- 2013.08.16.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세계가 주목하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0816000149>
- 2013.11.14. 국제신문, 『정부도 반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1115.22001213240>
- 2013.12.12.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민관협력 대상 대통령상』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1212000096>
- 2014.04.13.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1108000147>
- 2021.01.31. 부산일보, 『해인사·감천문화마을 부울경 명소 15곳 ‘한국 관광 100선’ 선정(종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3119240281043>



2. 기초현황조사

2.5 온천천

1) 개관

분야	도시	형성시기	-
초기형태	자연하천	현재기능	하천
소유자	-	관리자	금정구/동래구/연제구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작되어 동래구, 연제구를 흐르는 하천		

▷ 연혁

- 온천천은 유역 면적 56.28㎢에 유로 연장 14.13km, 폭 30~90m의 규모를 가진 수영강의 제1지류이며, 금정산의 고당봉과 계명봉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 계곡을 지나 남서쪽으로 흘러 동래구를 지나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임
- 오염되고 인공화된 하천을 1995년부터 ‘온천천살리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시민친수공간으로 전환시킨 지방도시 최초의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례임

〈약력〉

- 1980년 초반까지 자연하천으로 남아있었음
-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직강화 공사 및 개발로 인해 오염
- 1995년 이후 온천천살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1998년 11월-1999년 9월 시민공원 조성사업
- 1997년 12월에 착공해 자연하천으로 복원사업
- 2000년 4월 8개 사회·환경단체가 연합해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결성
- 2002-2003 동래구 수안초등학교 앞에서 안락교까지 산책로와 주민편의 시설 조성

나무위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평가

- ◇ 온천천은 조선시대 동래읍성과 수영강과 연계된 역사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풍부한 하천이며, 예로부터 동래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던 중심 하천으로, 상류의 범어사 계곡 지역의 하천을 ‘범어천’으로 그 아래의 하천을 ‘서천’ 혹은 ‘동래천’이라 불렀으나 중류부에 온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옛 이름은 사라지고 전체가 ‘온천천’으로 불리게 됨
- ◇ 온천천은 서울의 양재천에 이어 우리나라 두번째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보전·복원된 하천으로, 도시내 생태통로이자 지역민(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들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친수공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 지하철 제1호선 개통으로 형성된 동래지역의 온천천 제외지에서 다양한 청년문화가 실험되는 문화의 현장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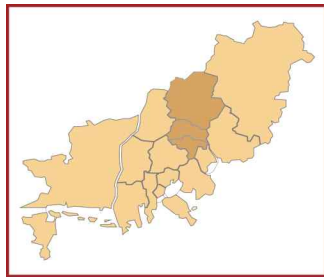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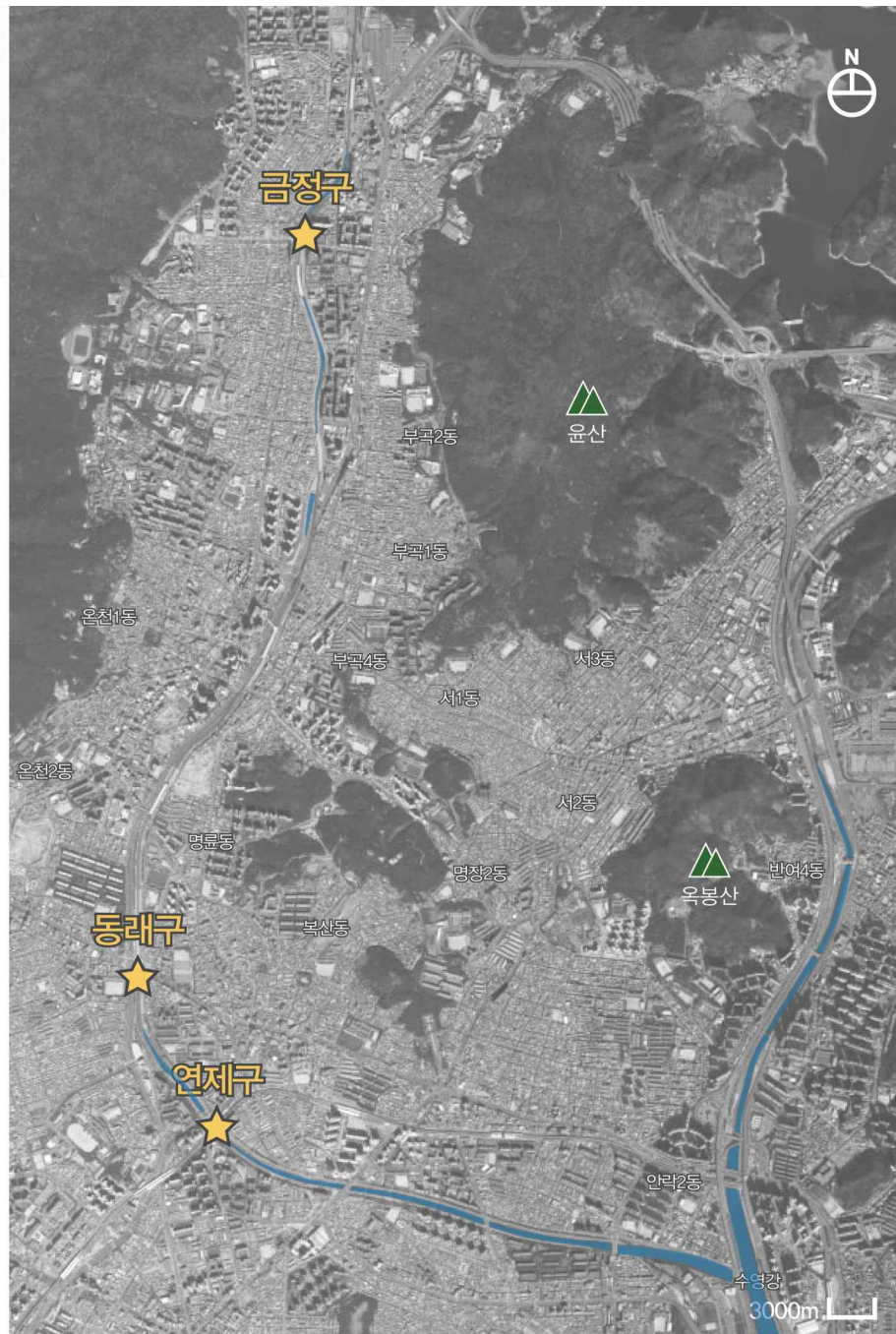
2.5 온천천

2) 현황

▷ 입지여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2. 기초현황조사

2.5 온천천

2) 현장조사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부터 온천천살리기사업이 시행되었고, 2000년에 부산지역의 사회·환경단체가 연합해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음 ·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 종다양성이 향상되었음 · 2011년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생태하천 친수공간, 수변 산책로, 관련 시설들의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음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동래읍성과 수영강과 연계된 역사·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풍부함에도 이와 관련된 온천천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함 · 도심형 생태 체험의 현장으로서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짐 · 양안의 고층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며 경관의 차단과 인공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	-	-
안내(홍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천 자체의 생태적 능력(자연생태성, 회복력 등)의 향상을 전제로 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 단순한 하천 공간이 아닌, 동래읍성과 좌수영성과 연계되는 역사적인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로 연결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구가 연합하는 도시생태 축제의 현장으로 활용하여야 함 · 금정산에서 수영강을 연결하는 생태 트레킹의 현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기초현황조사

2.5 온천천

3) 관련 이미지



온천천 전경



온천천의 징검다리



온천천의 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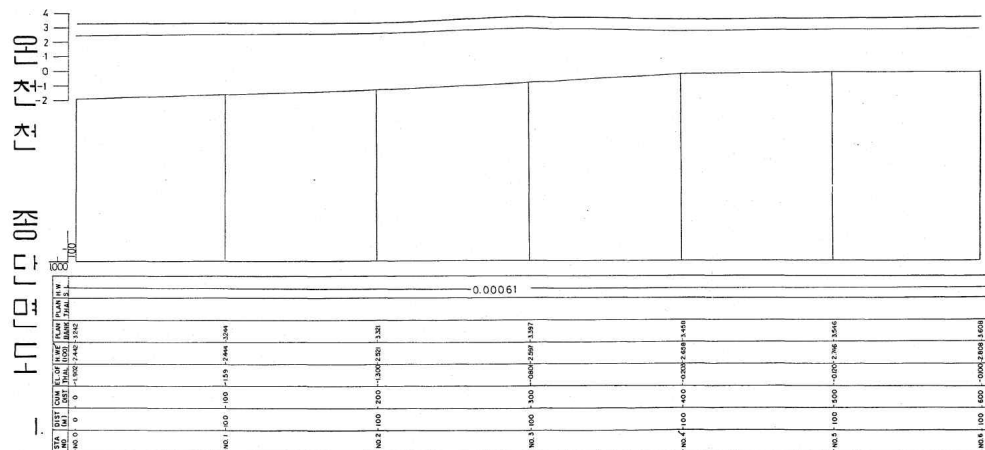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5 온천천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세병교

©부산직할시, 하천정비기본계획(수영강, 온천천, 우동천) 보고서



세병교

©부산광역시홈페이지



온천천 벚꽃 축제

©부산광역시 시민사진기자 권기학



부산하천지도

©우리동네하천지도



2. 기초현황조사

2.5 온천천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구영기 2006, “온천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2권 2호, pp.18-23.
- 김창수 2005, “관료와 시민사회 협력의 성공조건 : 부산광역시 온천천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권 1호, pp.145-167.
- 반응부 2006, “온천천 주변의 지형.”, 『부산연구』, 3호, pp.45-62.
- 안선규 2006, “온천천을 따라 걷다”, 『하천과 문화』, 2권 2호, pp.44-49.
- 2001.10.05. 국제신문, 『온천천. 수영강. 낙동강 생태공원. 강변숲 조성』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500&key=20011005.01001031686>
- 2002.01.20. 국제신문, 『환경단체 2002 `NGO` 나가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020120.01001045367>
- 2002.02.01. 국제신문, 『' 하천살리기 시민연대 ' 결성』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20201.01001047348>
- 2002.08.25. 국제신문, 『부산 도심하천 생태공원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20825.01001075510>
- 2004.11.28. 국제신문, 『[독자투고] 온천천 환경정화 성공사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041129.22028210646>
- 2006.07.25. 국제신문, 『온천천 3개 구간 테마별 복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60725.33008013820>
- 2019.06.05. 부산일보, 『속도 내는 ‘온천천 통합 관리’ 동래·금정·연제구 합동 토론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04000206>
- 2019.10.07. 부산일보, 『온천천, 성대한 축제로 물들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0716141385210>



2. 기초현황조사

2.6 충혼탑

1) 개관

분야	역사	형성시기	1983.8.15.
초기형태	위령탑	현재기능	위령탑
소유자	부산광역시	관리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63-6		

▷ 연혁

-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부산 출신 육·해·공군 및 경찰관,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83년 8월 15일에 준공한 추모공간이자 기념물(탑 전체 높이 70m)
-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인 김중업의 부산 소재 작품들(5점) 중 한 곳임
- 군상은 부산출신 육·해·공, 경찰 등 전몰용사들의 보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여 숙원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1984년 6월 6일에 설치를 준공함

〈약력〉

- 1957년 6월 현재 용두산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함
- 1983년 9월 7일. 경남출신 영령들은 창원으로, 부산출신 영령들은 중앙공원 이전함
- 1983년 8월 15일 부산시가 발인하고 충혼탑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준공함
- 1984년 6월 6일 충혼탑 정면부에 군상 조각을 추가 준공함
-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관리 시작
- 2007년 2월 15일 4·19위령탑 이설, 위패 봉안소 건립 등 시설 확충이 이루어짐

부산역사문화대전
중앙공원 홈페이지

평가

- ◇ 충혼탑은 구봉산(404m) 자락의 중앙공원에 입지하여 시내 어디서도 인지가 가능한 경관구도를 가지고 있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이 향토의 수호신이 되어 부산의 푸른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듯한 위엄을 갖춘 조형물임
- ◇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인 김중업의 부산 소재 작품들(4점 현존) 중 한 곳으로, 수직으로 솟은 충혼탑은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수평적 조형미와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애국 전몰 용사의 넋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
- ◇ 충혼탑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용사, 즉 부산 출신의 육·해·공군 및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성격을 가진 유일한 조형물로 검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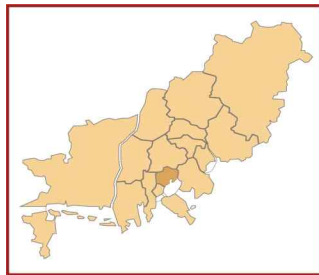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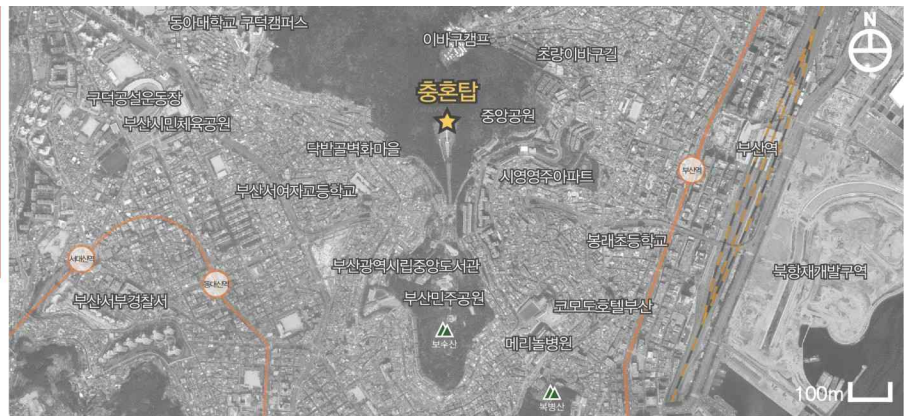
2.6 충혼탑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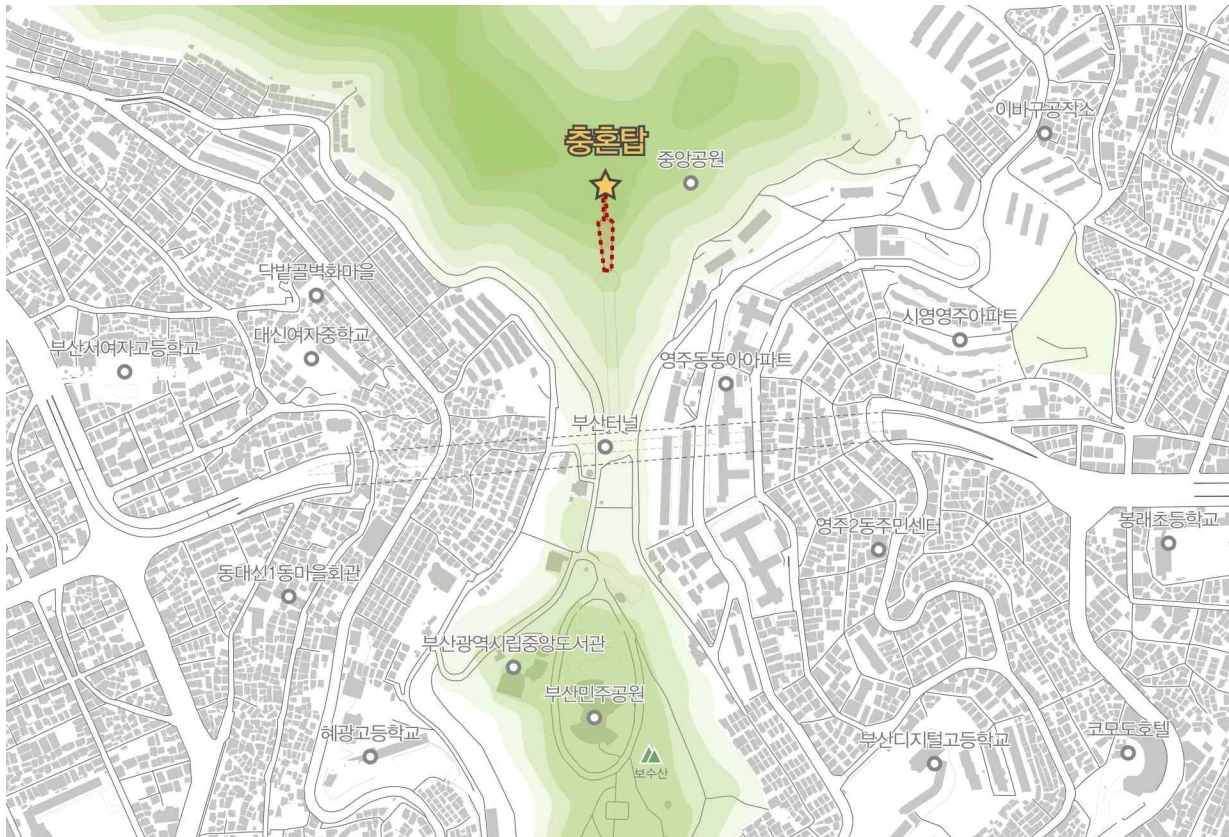
▷ 입지여건



동구 초량동 산63-6
(중앙공원 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6 충혼탑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00㎡ 원형의 인공 연못 위에, 9개의 벽체가 원형 열주(列柱)로 구성된 높이 70m(탑신부 39m, 상륜부 31m)의 수직형 위령탑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탑신 아래 위패를 모신 반구형(돔 구조)의 영령실 배치 · 영령실 남쪽 15m 지점에 육·해·공군과 경찰관 및 전몰 용사를 형상화한 군상 조각이 배치되어 있음 · 영령들의 위패는 현재 총9,380위(육군 7,566위, 해군 368위, 공군 64위, 경찰 581위, 재일학도의용군 135위, 근로자동원, 애국단체 등 기타 666위)임 ·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시행됨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혼탑이 구봉산 자락에 입지한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짐 · 충혼탑과 마주하고 있는 민주공원과의 공간 및 스토리 연계가 부족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연중개방	09:00~18:00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에는 항일과 독립운동, 전쟁수호,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희생자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탑 형식의 조형물이 10개소에 이름.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충혼탑과 민주공원과의 스토리 라인을 강화하여 부산지역의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 현장으로 활용함 · 부산의 곳곳(부산항, 부산역광장 등)에서 충혼탑이 조망되는 조망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명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기초현황조사

2.6 충혼탑

3) 관련 이미지



전경



경사형 엘리베이터

©뉴스부산



충혼탑



동상



충혼탑 설명비



지그재그 형식의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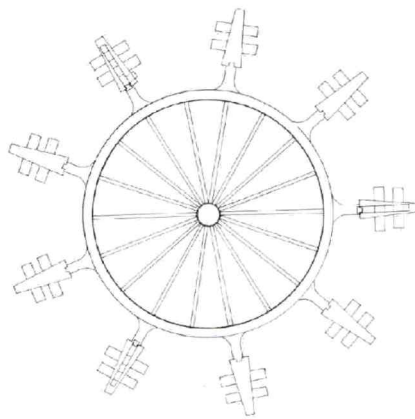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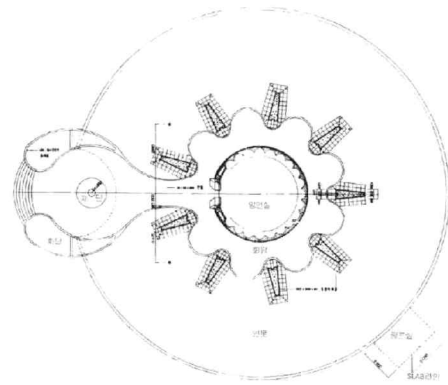
2.6 충혼탑

4)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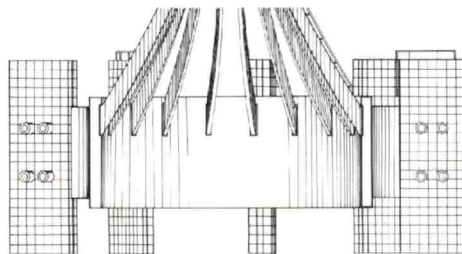
▷ 도면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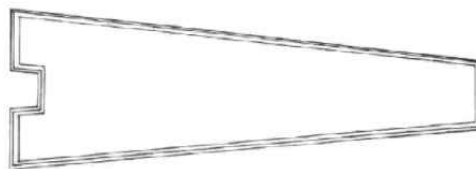
주두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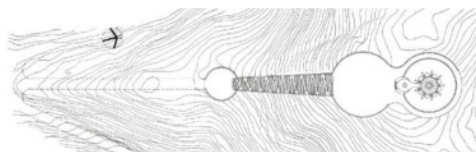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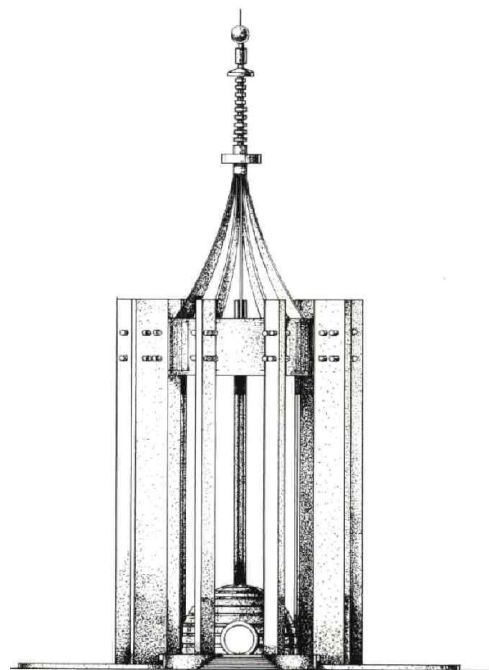
주두부분단면도



주각부분상세도



배치도



정면도

©건축공간연구원(auri)



2. 기초현황조사

2.6 충혼탑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중업 1983, “월간 건축문화” 12월, 31호.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2016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최원준 2016, “3월에 가보자, 부산정신 타오르는 상징공원으로”, 『다이내믹 부산』 통권 제112호(2016년 2월호).
- 표용수 1998, “부산지역의 기념비 현황(Ⅱ)-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5권, pp.455-555.
- 1989.06.03. 부산일보, 『우리고장 이모저모 어린이기자 취재 (31) 대청공원 봉래초등학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890603000097>
- 1993.06.23. 국제신문, 『공공시설 어느수준인가<8>...대청공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19930623.01019035772>
- 2001.09.20. 국제신문, 『내가 본 부산/장성진 부산지방보훈청장』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010920.01001E01223>
- 2010.01.25. 국제신문, 『산복도로 리포트 <3-1> 산복도로에 살다 : 나를 붙들어 맨 바다조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500&key=20100126.22007211535>
- 2018.12.12. 국제신문, 『민주주의의 길을 그리며 /전진성』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1213.22027005379>



2. 기초현황조사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1) 개관

분야	생활문화	형성시기	1985.10
초기형태	야구장	현재기능	야구장
소유자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자	롯데자이언츠 구단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		

▷ 연혁

- 야구도시 부산의 지역성이 반영된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

<약력>

- 1985년 10월 구덕운동장의 노후화로 국제 규모의 현대식 야구장 건립
- 1982년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 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사용
- 1986년 사직야구장 최초 홈경기 개막전 실시
- 1992년 한국시리즈 우승, 1995년/1999년 한국시리즈 준우승 등의 과정 중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가 탄생
- 2005년 쓰레기 문제로 배포된 비닐봉투를 활용한 봉다리 응원문화 형성
- 2017년 부산의 상징 동백꽃과 연고기업을의 통일성을 위해 진주홍색 봉다리 응원 공식화

부산역사문화대전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평가

- ◇ 부산은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일찍 일본 야구를 접할 수 있었고, 부산지역의 고교 야구의 열기와 활성화로 비롯된 부산야구에 대한 자부심 등이 어우러져 오래전부터 '야구도시'라는 정체성이 형성됨
- ◇ 이러한 정체성은 1980년대 초반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부산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언어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동질감의 표출 현상으로 이어짐
- ◇ 비록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만의 응원문화이지만, 이곳의 응원문화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품은 부산사람이라는 시민적 공감대의 근원이자 기질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 ◇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의 창의적인 형식과 내용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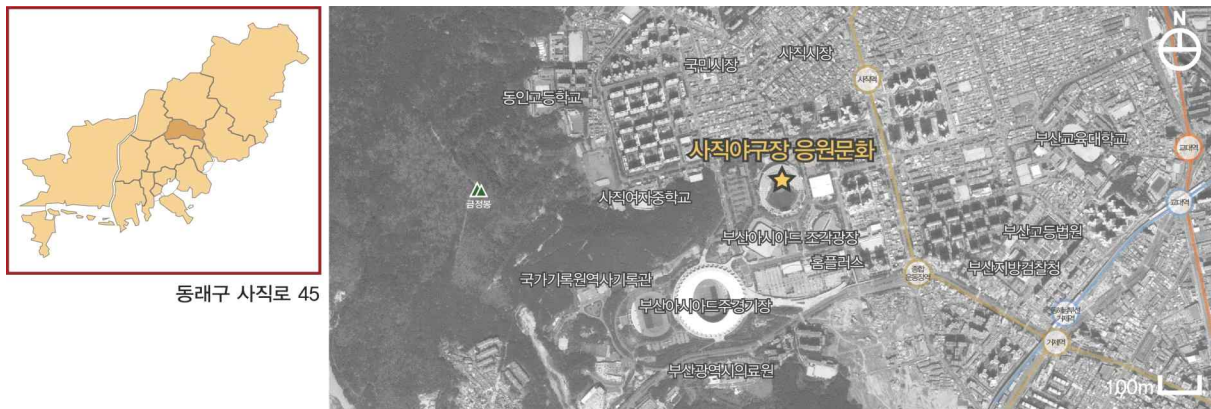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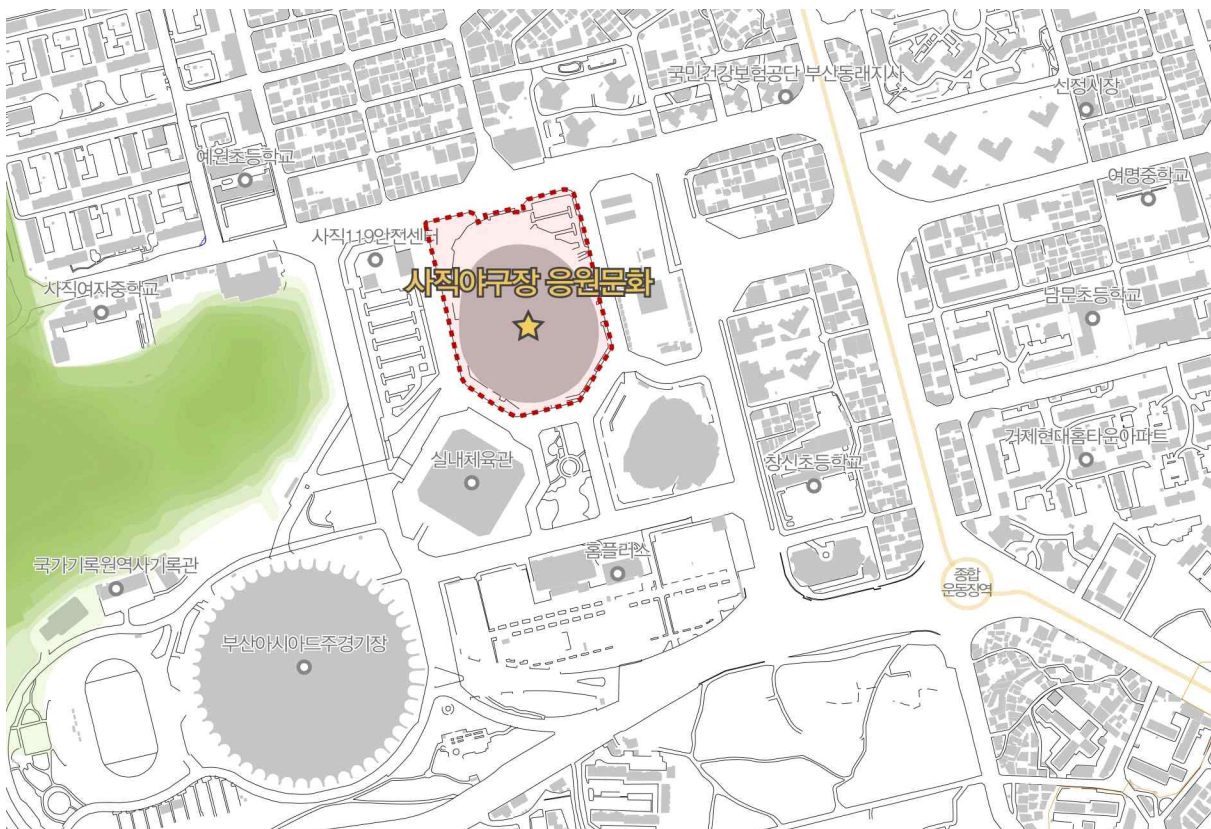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2) 현황

▷ 입지여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직야구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면적 50,301㎡, 경기장 면적 12,790㎡, 건축 면적 36,406.3㎡ -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관람석 약 25,000석 · 현재 롯데디자인츠 프로야구팀의 전용구장으로 사용 중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다리와 신문지 사용으로 인한 2차 쓰레기의 양이 크게 증가 · 야구장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중 · 비시즌이나 야구경기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쓰임새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공간 효율성이 낮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시즌 시 개방	-	좌석료
안내(홍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직야구장의 재축 계획이 추진 중임. 이에 야구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를 강화하고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를 브랜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비경기 시에 야구 또는 생활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여가 중심의 특화(체육)공원으로 시민 휴식처로 활용되어야 함 · 사직야구장을 포함한 전체 사직스포츠타운을 리모델링하여, 미래지향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생활스포츠의 산실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2. 기초현황조사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3) 관련 이미지



사직야구장 입면



사직야구장 전경



경기장을 가득채운 롯데자이언츠 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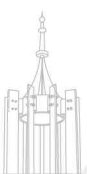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마’를 외치는 롯데자이언츠 팬



봉다리를 쓰고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 팬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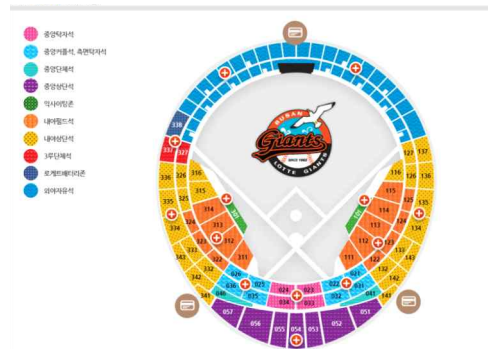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좌석배치

©롯데자이언츠



1984.10.9 한국시리즈 우승

©롯데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응원 단장과 치어리더

©롯데자이언츠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 팬

©조선일보



사직봉다리 조형물

© 부산일보



‘마’ 조형물

©부산일보



2. 기초현황조사

2.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을 알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2016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2018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 곳의 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이승준 2010, “부산 갈매기의 비상”,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pp.1-234.
- 이승준 외 3명 2014,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권 3호, pp.15-34.
- 2008.03.27. 부산일보, 『롯데 응원문화 탄생비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80327000880>
- 2008.05.15. 국제신문, 『롯데 야구에 울고 웃는 사람들] 얼마만에 불러보나 "부산 갈~매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600&key=20080516.22026191816>
- 2009.03.27. 부산일보, 『야구장 명당』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0327000226>
- 2012.12.28. 부산일보, 『부산 50년, 격을 높이자, 성장에서 성숙으로…자긍심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0101000035>
- 2013.06.17. 부산일보, 『부산 갈매기 경녕 롯데를 잊었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30617000087>
- 2013.06.25.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1> 프롤로그-부산의 장소를 탐문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search.asp>
- 2017.09.27. 부산일보, 『10월 부산 관광 어디 가지? 사직야구장 '봉다리응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927000316>
- 2021.03.28. 부산일보, 『사직야구장서 봉다리 응원 사라지나…부산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추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2815242263395>



2. 기초현황조사

2.8 기장미역

1) 개관

분야	산업	형성시기	15세기
초기형태	자연 채취	현재기능	양식업
소유자	개인	관리자	개인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외 157필지		

▷ 연혁

- 기장미역은 15세기부터 진상품으로 사용된 부산지역의 산품으로, 기장 앞바다 해안가의 바위에서 해녀들의 나잠어업에 의해 채취되는 자연산 돌미역(일명 쫄쫄이미역)과 1960년대 중반 이후 생산되는 양식 미역으로 대별됨
- 1980년대 이후에는 양식 미역을 포함한 기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 전체를 기장미역으로 통칭하여 사용함

〈약력〉

- 15세기 이전부터 기장 미역을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세종실록지리지)
- 1960년대 자연산 미역 감소
- 1965년 국립수산물진흥원(현 국립수산물과학원)주도로 미역 양식 성공(학리 244번지)
- 1967년 11월 국립수산물진흥원에서 미역종자를 분양받아 산업화 최초 성공(이동리, 학리)
- 1972년 4월 국내 최초 일본에 수출
- 1986년 농어촌특산물 중 미역을 슈퍼마켓 전용상품으로 개발 판매
- 2007년 4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대변리 74-7 외 157필지[16만 8755㎡])
- 2009년 3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

평가

- ◇ 기장미역은 「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조에 “기장미역을 진상하였다.”는 기록과 「비변사등록」의 고리지역의 ‘화사읍포’에 있던 괄전(藿田)이 왕세자의 소득원이 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기장미역은 15세기 이전부터 지역산품이자 진상품이었던 것으로 인식됨
- ◇ 원래 기장미역은 기장 앞바다 해안가 바위에서 채취되는 돌미역을 말하며, 현재에도 돌미역은 해녀들의 나잠어업(裸潛漁業)에 의해 자연 채취되고 있음
- ◇ 현재 보통의 기장미역은 양식 미역을 말하며, 1967년 산업화 성공 후 미역 생산은 기장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미역으로 인정받고 있음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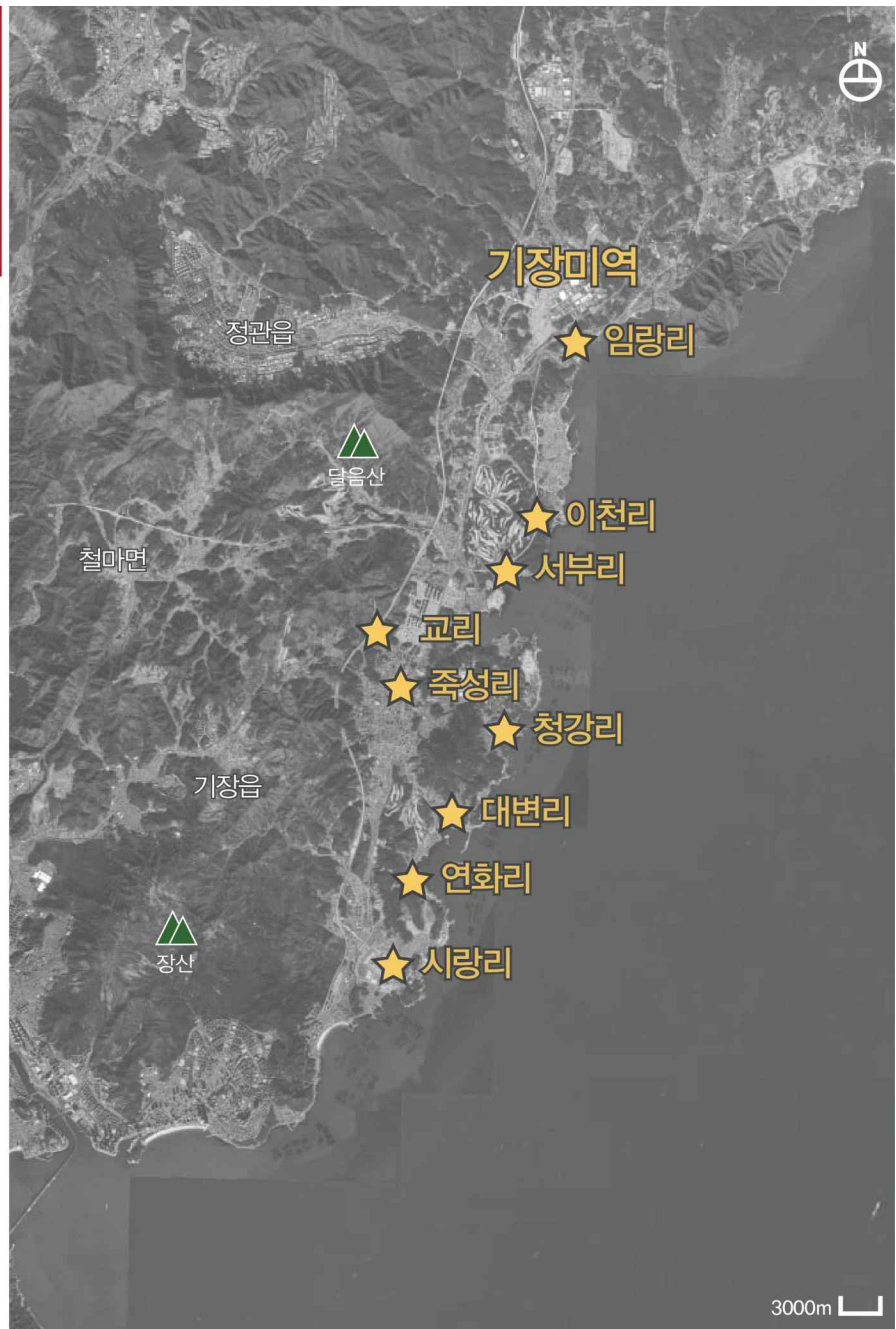
2.8 기장미역

2) 현황

▷ 입지여건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외 157개 필지



2. 기초현황조사

2.8 기장미역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장미역의 출하 시기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임 · 생산된 미역 대부분은 원 상태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함 · 현재 '부산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기장물산, 석하, 청호씨푸드 등의 업체들이 기장에서 채취한 미역과 다시마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기장군은 매년 4월 초에 '기장 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해양오염이 심화되며 해녀들의 나잠어업에 의한 자연산 돌미역의 채취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변화로 생산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의 해양수 방류 등의 문제로 인한 후유증 발생도 예상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	-	-
안내(홍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년 이상을 이어오는 지역특산품이자 지역산품인 기장미역의 생산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기장미역의 생산 시스템과 연동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기장미역의 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2. 기초현황조사

2.8 기장미역

3) 관련 이미지



미역건조 현장



미역건조 현장



기장미역 · 다시마축제

©아시아뉴스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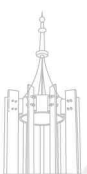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미역건조 현장

©부산일보



기장미역 · 다시마축제

©공무원뉴스



2. 기초현황조사

2.8 기장미역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기장미역 · 다시마 특구

©서울신문



1909년 기장군 일광면 학리의 광암도

©어항 통권 78호

연도	지역	생산량	생산액
1913년도	미역 중 성산	212,430원	24,530원
1914년도	"	211,000원	6,140원
1915년도	"	494,000원	
1916년도	미역	1,317,300원	대미 661,000원
1917년도	미역	562,000원	
1918년도	미역	2,463,900원	대미 668,600원
1919년도	미역	1,541,280원	대미 935,000원
1920년도	미역	4,274,900원	
1921년도	미역	4,071,340원	
1922년도	미역	6,147,000원	대미 1,000,000원
1923년도	미역	6,420,000원	
1924년도	미역	8,600,000원	
1925년도	미역	7,152,700원	대미 1,600,000원
1926년도	미역	4,849,000원	대미 2,178,000원
1927년도	미역	5,376,000원	대미 3,150,000원
1928년도	미역	3,600,000원	대미 2,940,000원
1929년도	미역	923,000원	
1930년도	미역	6,688,400원	대미 1,780,000원
1931년도	미역	8,657,400원	대미 2,930,000원
1932년도	미역	10,393,300원	대미 3,030,000원
1933년도	미역	13,171,000원	대미 4,365,000원
1934년도	미역	7,417,000원	대미 5,966,000원
1935년도	미역	7,259,000원	대미 11,678,000원
1936년도	미역	13,233,700원	대미 4,062,000원
1937년도	미역	15,377,100원	대미 8,634,000원
1938년도	미역	17,462,120원	대미 8,213,000원

기장 이동여촌계 미역 다시마 생산 일지

©어항 통권 78호

2. 기초현황조사

2.8 기장미역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차웅 2007, “기장미역의 원류를 찾아서”,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 통권 제78호, pp.24-28.
- 박혜영 2016,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실천민속학연구』, 28권, pp.47-93.
- 최원준 2018, “부산 탐식 프로젝트”, 산지니.
- 하나은 2021, “혀끝으로 만나는 겨울 바다의 맛” 『다이내믹 부산』 제3호.
- 1995.02.27. 국제신문, 『바다에 산다<8>...미역 양식 15년째 장종훈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19950227.01013134361>
- 2003.03.30. 국제신문, 『기장미역 ‘풍년이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030330.01015104563>
- 2007.05.03. 다이내믹부산,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3/view?dataNo=19767>
- 2011.03.20. 국제신문, 『[도청도설] 기장미역』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10321.22027201521>
- 2012.04.05. 부산일보, 『기장미역 먹고 젓병등대 보면 '순풍순풍'』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405000128>
- 2014.02.06. 국제신문, 『“법적분쟁 불사”...기장미역 원조싸움 가열, 기장군 “송정 것과 종 다르고 상표도 등록해 손배소 가능”』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207.22008205458>
- 2019.03.03. 부산일보, 『“천년의 맛, 전통 기장미역 어때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30318293193607>
- 2019.11.05. 부산일보, 『기장미역, 국내 최초 ‘MSC 국제 인증’』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0518185065399>
- 2021.07.13. 국제신문, 『미역·다시마특구 기장군 “전국 누구나 맛볼 수 있게 다양한 사업”』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714.22008003681>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1) 개관

분 야	역사	형성시기	안용복 생가터(안내판:2015)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2014.3.11) 안용복 장군 사당(1967)
초기형태	안용복 생가터(주거지)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안용복 장군 사당(-)	현재기능	안용복 생가터(주거지)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문화관) 안용복 장군 사당(사당)
소유자	안용복 생가터(민간)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부산광역시 동구) 안용복 장군 사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리자	안용복 생가터(민간) 안용복 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 (부산광역시 동구) 안용복 장군 사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지	안용복 생가터(부산광역시 동구 성남이로 57번길 10)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로 100) 안용복 장군 사당(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		

▷ 연혁

-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던 왜인에 항의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고 돌아왔던 조선 숙종 때의 어부 안용복을 기리는 사당(수강사), 충훈탑, 동상, 생가터,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등의 유적

<약력>

[안용복]

-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하며 서계(書契)를 받아냈던 부산 출신의 어민임
- 그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수군 병졸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능로군(能櫓軍)이었으나, 두모포왜관 근처에 살았던 관계로 일어를 습득하였음
- 1693년 일본에 납치된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한 후 조선으로 돌아 온 후, 1696년 재차 유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조선 관료라 칭하고 10명의 조선 어부들을 인솔하여 일본의 돗토리 번에 가서 영토 소유권을 항의하고 돌아왔고, 귀국 후 관료 사칭죄 등으로 귀양 처벌을 받음
- 1697년 2월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하는 서계(書契)를 보내옴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1) 개관

[안용복 관련 유적]

- 1957년 부산의 문화계 인사들이 안용복과 관련된 역사를 공론화하기 위해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를 조직함
- 1967년 수영사적공원에 안용복 장군을 기념하는 충혼탑과 동상이 건립됨
- 2001년 안용복을 기리는 사당인 수강사가 준공되었고, 동시에 충혼탑을 사당 경내로 옮김
- 2014년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부산항 개항의 역사와 독도지킴이 안용복 장군의 국토수호정신을 기리는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을 개관함
- 2015년 안용복의 생가터가 확인되었고,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교수(성신여대)에 의해 ‘안용복 생가터’ 안내판 제작 및 부착함

평가

- ◇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던 왜인에 대해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항거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확인하고 돌아옴. 그의 활동은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민족정신의 상징체임
- ◇ 안용복의 항거는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생활·생산공간이라는 사실이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기록물에 기재되고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현재까지 한국이 동해의 해양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 안용복의 항거는 조선조정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한다.”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로 이어져, 울도군(울릉군) 내에 죽도와 석도(독도)를 포함시켜 울릉도 전체를 군도 개념으로 확장하여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함
- ◇ 이러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1967년에 조성된 충혼탑과 동상, 2001년에 조성된 사당(수강사)과 2015년에 확인된 생가터,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 등 부산지역의 안용복과 관련된 시설들의 유산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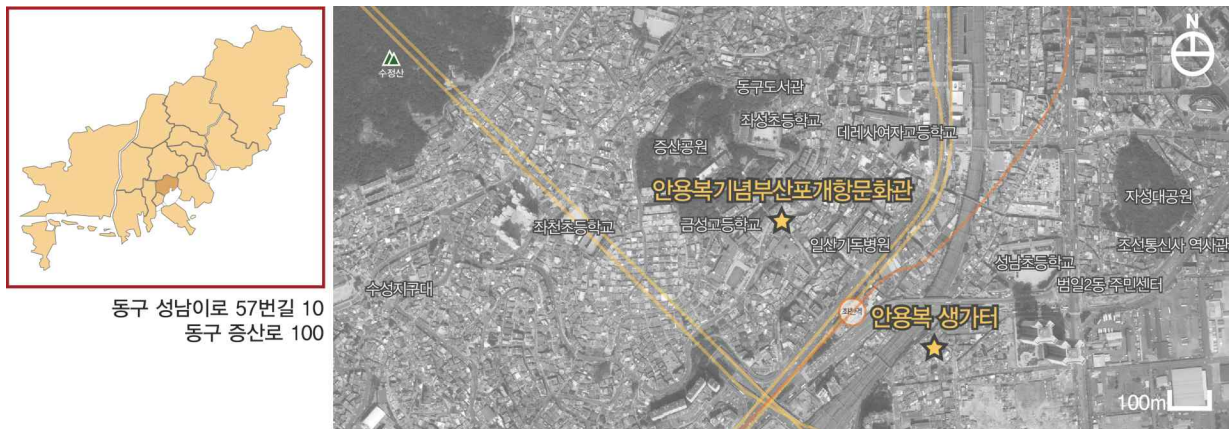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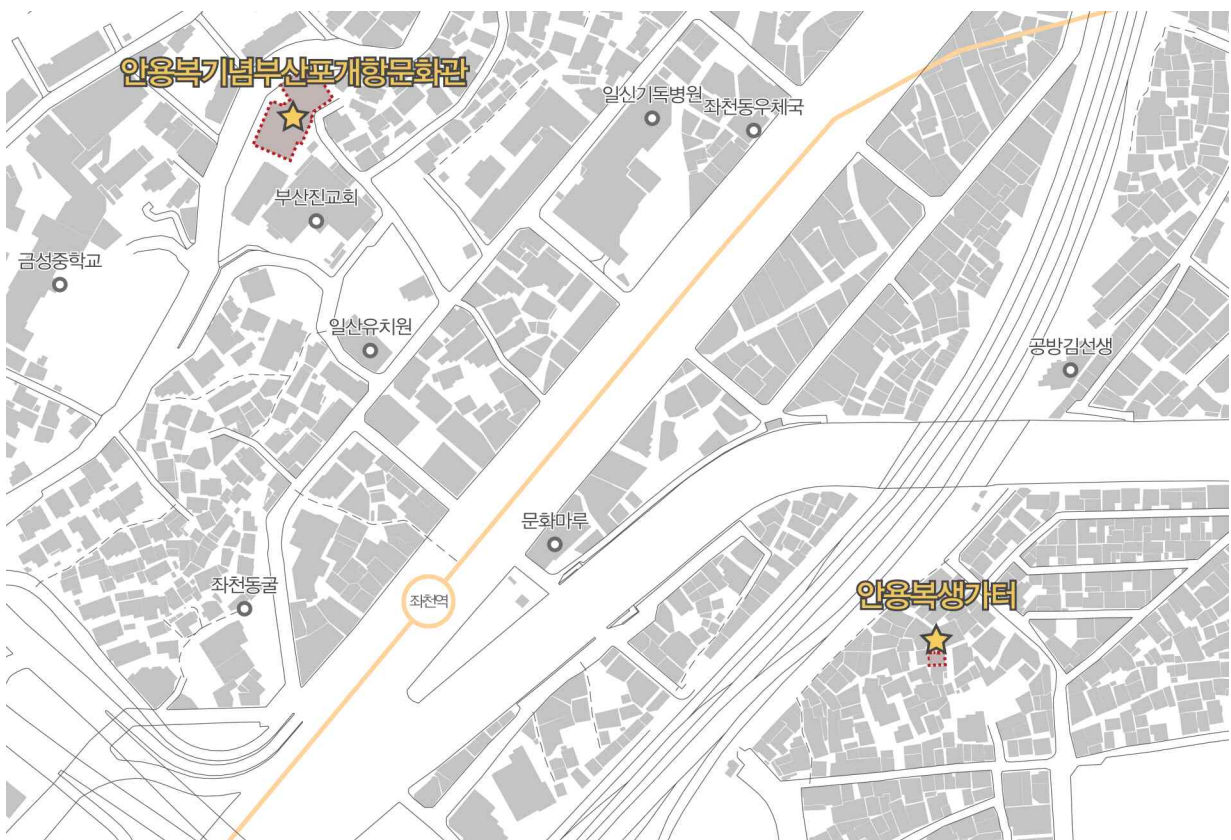
2.9 안용복 관련 유적

2) 현황

▷ 입지여건



▷ 공간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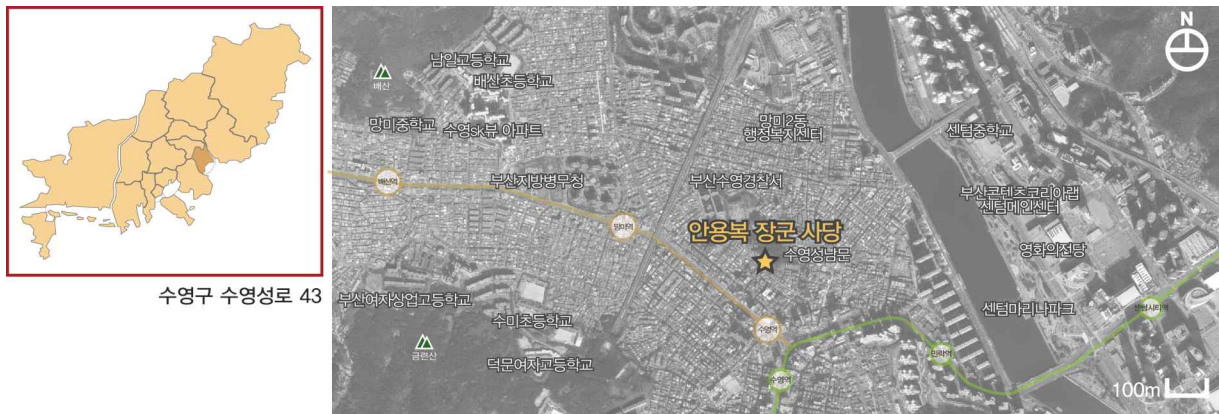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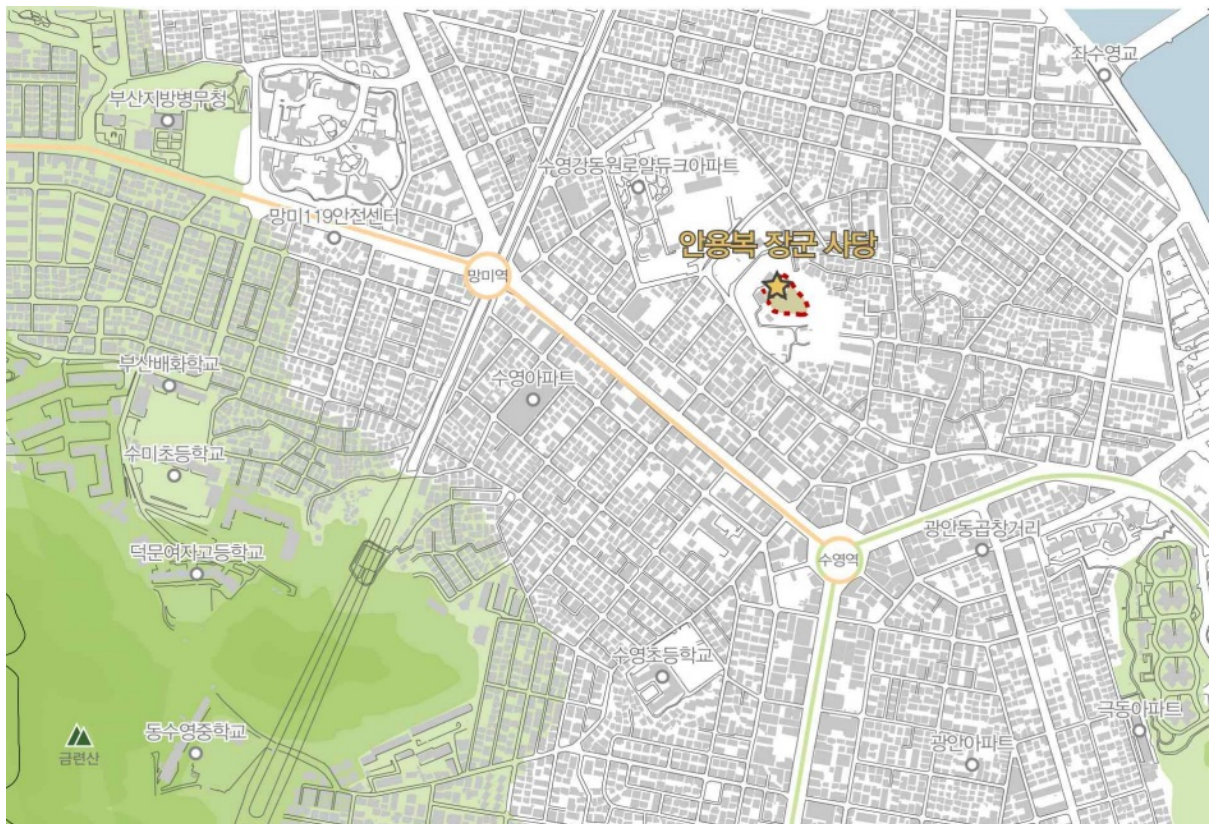
2.9 안용복 관련 유적

2) 현황

▷ 입지여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 충혼탑, 사당(수강사)은 수영사적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고 보존 상태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함 · 2014년에 조성된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은 5층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1~4층은 주차장, 5층은 기념관과 전망대, 쉼터로 구성되어 있음 · 이곳에는 높이 1.9m 폭 1m 가량의 장군의 부조와 호패, 장군의 1·2차 일본 출정을 증명하는 문서, 각종 독도수호이야기와 함께 부산포 개항사, 부산진 순절도 이야기 등의 콘텐츠가 패널 및 영상물 형태로 전시되어 있음 · 안용복 생가터의 안내판은 가로 90cm, 세로 60cm의 동판임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용복 관련 유적들은 세 군데 장소에 산재하여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못해 방문자들의 이용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생가터는 명판만 있을 뿐 부지 매입 등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월요일 휴무	09:00 ~ 18:00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용복 관련 기록과 활동상황의 집대성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전방위적인 안용복 장군관련 브랜딩 작업이 필요함 · 산재하여 있는 안용복의 흔적(생가터, 개항문화관, 사당과 충혼탑, 동상)을 다양한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여 특화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부산의 타 민족운동가들과 스토리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용 기획이 필요함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3) 관련 이미지



안용복 생가터 안내판



안용복 생가터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전경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내부



안용복의 호패



안용복의 도일선



안용복 장군 사당



안용복 장군 동상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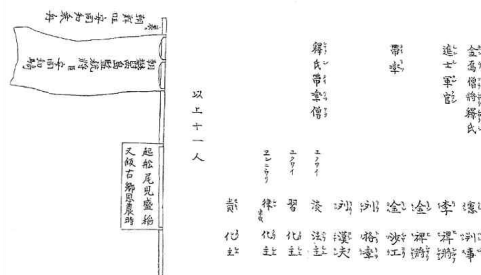
안용복 리플렛

© 부산광역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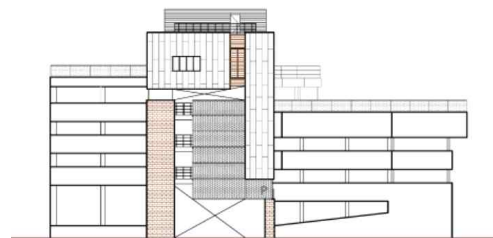
肅宗實錄 (숙종19,1693년) 안용복 사건

© 국가기록원



안용복의 깃발 그림과 일행 명단

© 일본 오기섬 현립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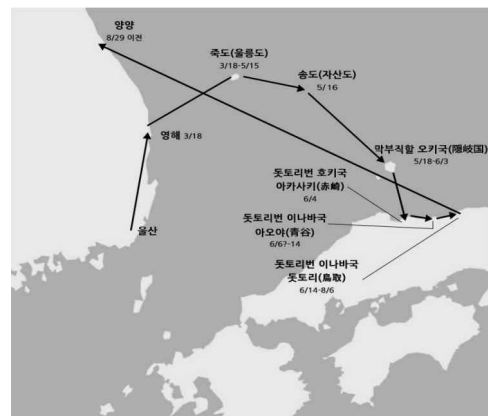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박물관

© 사이트프래밍



안용복의 제1차 도일(1693년) 행적

© 박병섭(2010)



안용복의 제2차 도일(1696년) 행적

© 박병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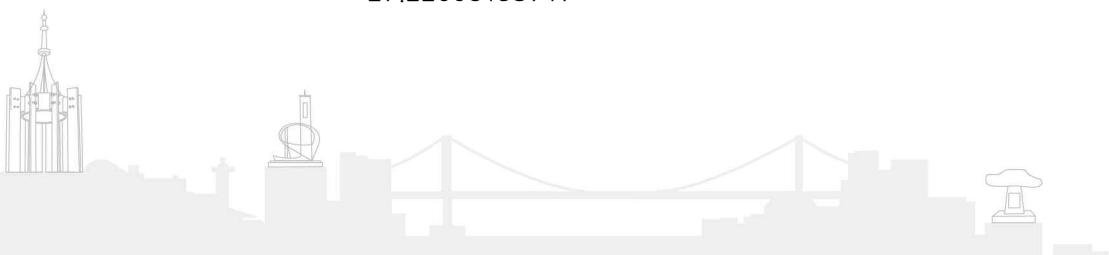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2.9 안용복 관련 유적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권오엽 2009, “통정대부 안용복 : 한,일 기록이 전하는 안용복의 관직”, 『일본어교육』, 50권, pp.241-256.
- 김병우 2011,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 34권, pp.73-116.
- 김성은 2016, “1950년대 이후 안용복에 대한 조명과 평가”, 『서강인문논총』, 45호, pp.39-74.
- 김호동 2017, “‘안용복’역사적 사실과 ‘안용복’소설”, 『민족문화논총』, 66권, pp.287-314.
- 배민순 2015, “울릉도 독도 쟁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분석과 비판:안용복의 행적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 송휘영 2020,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16권, pp.81-114.
- 이선미 2007, “한일 양국의 기록에서 살펴 본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순 2013,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5권, pp.161-196.
- 2001.03.26. 동아일보, 『400년전 '독도 지킴이' 안용복장군 사당준공』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55259>
- 2005.05.17. 연합뉴스, 『'독도영웅' 안용복 17세기 日 심문기록 발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005046>
- 2010.08.24. 연합뉴스, 『"독도 강원도땅 표기.18세기 지도 日서 발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19719>
- 2011.04.06. 세계일보, 『'신비의 섬' 울릉도에 안용복기념관 건립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10406002476>
- 2014.03.07. 이뉴스투데이,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11일 개관』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93>
- 2015.10.26. 국제신문, 『주민들도 몰랐던 '독도 지킴이' 안용복 생가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027.22008193717>



2. 기초현황조사

2.10 박재혁의사 유적

1) 개관

분 야	역사	형성시기	1998.5.12
초기형태	동상, 거리, 생가터 등	현재기능	동상, 거리, 생가터 등
소유자	부산광역시	관리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어린이대공원 수변공원 내)		

▷ 연혁

- 의열단 단원으로 1920년 부산경찰서 서장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폭사시킨 후 체포되어 순국한 박재혁(朴載赫)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리는 유적

〈약력〉

- 1913년 부산공립상업학교에 다니는 최천택, 김병태, 박홍규, 오택 등과 구세단을 결성,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단보를 발행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일대에 배포
- 1920년 8월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 입단
-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로 찾아간 박재혁은 하시모토 서장을 향해 폭탄을 던짐, 이 의거는 의열단 최초의 성공 거사였음
- 박재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과 경성고등법원을 거쳐 1921년 3월 31일 사형을 최종 선고 받음
- 1921년 5월 11일 단식에 나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 대구형무소에서 사망
- 1998년 5월 12일 박재혁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건립
- 2003년 6월 13일 동상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40-1-17로 지정

평가

- ◇ 박재혁 의사는 부산의 대표적 항일독립운동가이며, 부산정신을 논할 수 있는 인물임
- ◇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은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일본에는 충격을 가한 쾌거였고, 항일운동의 대전환의 기점이 되었고, 의거 후 감옥에서 '일본의 손에 죽기 싫다'면서 단식하다 27세의 나이에 순국한 그는 항일독립투사의 전형임
- ◇ 의사를 기리는 후대의 활동으로는 1946년 10월 정공단 내에 박재혁 의사비 건립 (1981년 부산진초교 교정으로 이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1966년 의사묘역의 국립현충원 이전 안장, 1998년 5월 12일 박재혁 의사 상 건립, 2012년 좌천동 독립운동가 박재혁 거리 지정, 2019년 생가터 확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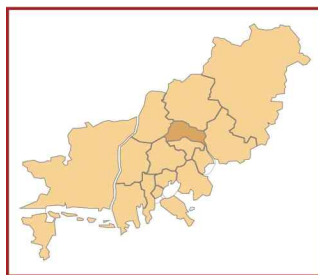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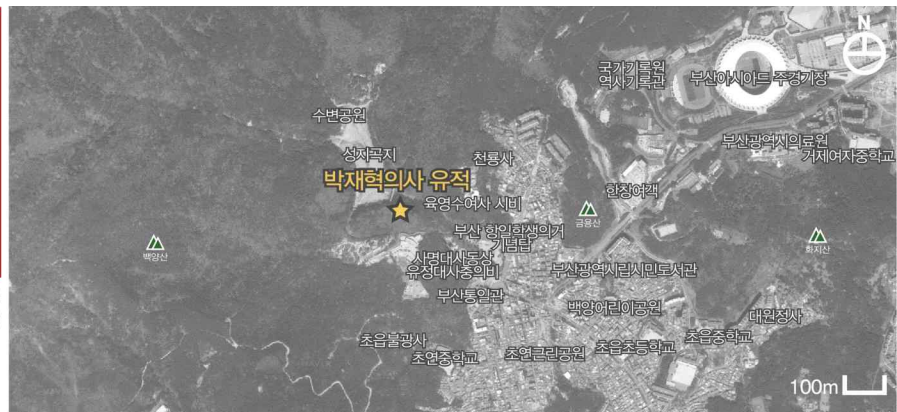
2.10 박재혁의사 유적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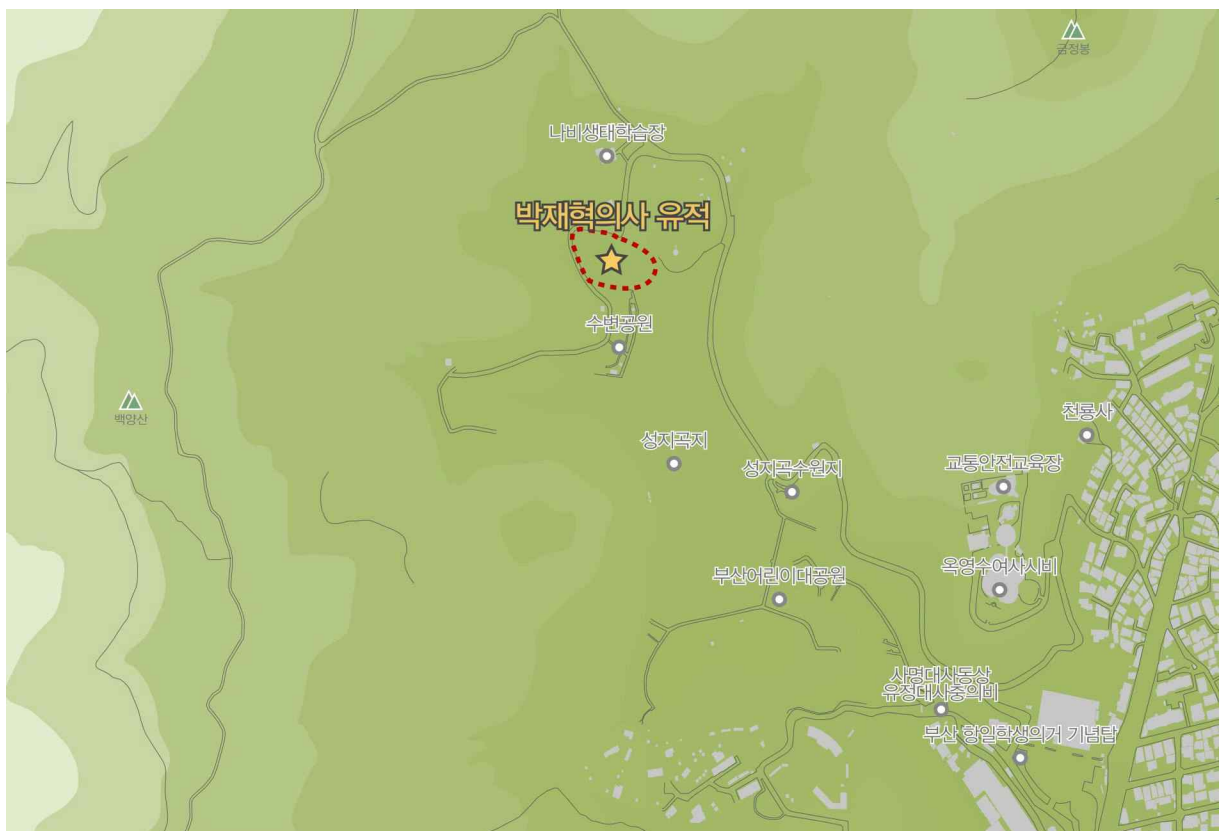
▷ 입지여건



부산진구 새싹로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10 박재혁의사 유적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혁의사와 관련된 대표 유적인 동상은 의사가 횃불을 들고 조국 독립을 외치는 군상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임 · 전체 높이가 6.5m(동상높이 3.1m, 좌대높이 3.4m)이며, 동상 및 부조는 청동으로, 좌대는 화강석임 · 2003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40-1-17)로 지정됨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혁의사 유적 중 상과 비석은 생가 및 기념거리, 투탄 장소(안내판 설치) 등과 이격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떨어짐 · 동구 범일동에 박재혁 거리와 생가 일대는 의사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여건이 매우 불비하며, 안내판만 있을 뿐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	-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적으로 의사와 의거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활용이 추진되어야 함(2021년은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임) · 부산을 대표하는 타 민족운동가들과의 스토리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2. 기초현황조사

2.10 박재혁의사 유적

3) 관련 이미지



독립운동가 박재혁의사 상 전경



박재혁의사 상



박재혁 의사상 비석



약력 비석



건립 취지문



2. 기초현황조사

2.10 박재혁의사 유적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1910년대 부산이사청과 부산경찰서
©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산경찰서 폭파 거사 전날 동기
최천택(오른쪽)과 박재혁 의사(왼쪽)
© 국가보훈처



박재혁 부산경찰서 투탄 부산일보 호외
© 이병길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투탄 안내판
© 오마이뉴스



박재혁의 도장
© 박재혁 의사의 이손녀 김경은



2. 기초현황조사

2.10 박재혁의사 유적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승 2007,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권, pp.183-196.
- 박철규 2019, “의열단원 박재혁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 『항도부산』, 37권, pp.191-248.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 이동언 2021, “박재혁과 부산경찰서 진입 투탄의거의 성과와 의의”, 『유관순 연구』, 26권, pp.121-136.
- 표용수 1998, “(자료소개) 부산지역의 기념비 현황(II)-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5권, pp.455-555.
- 2009.02.06. 부산일보, 『부산보훈청, 2월의 현충시설 '박재혁 의사'상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0206000066>
- 2012.08.13. 부산일보, 『부산 동구 '박재혁 의사 거리' 조성』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813000139>
- 2017.08.22. 국제신문, 『부산 출신 항일투사 박재혁 생가 복원하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823.33001009842>
- 2018.10.17. 국제신문, 『독립운동 박재혁 의사 기념관, 모교 개성고에 만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018.22006007533>
- 2019.04.16. 국제신문,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15.22003005843>
- 2019.12.26. 국제신문, 『부산 중구,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안내판 설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1226.99099012719>
- 2020.09.10. 오마이뉴스,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의 친구들 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477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 기초현황조사

2.11 우장춘 유적

1) 개관

분야	역사	형성시기	1999.10.21
초기형태	기념관 등	현재기능	기념관 등
소유자	동래구	관리자	동래구
소재지	부산 동래구 온천2동 850-48		

▷ 연혁

- 세계적 육종학자인故우장춘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전 연구 활동 유적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기념관이 건설됨(1999년)

〈약력〉

- 1898년 아버지 우범선(禹範善)과 일본인 어머니 사카이 나카(海井仲)사이에서 탄생
- 1916년 동경제국대학 농학실과에 들어가 1919년 졸업
- 1919년~1937년까지 육종학에 대한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육종 연구에 몰두
- 1930년 세계에서 최초로 겹꽃 페튜니아 개발
- 1950년 귀국 후 한국 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 1953년 씨없는 수박 생산
- 1954년 결구 배추인 원예 1호가 육종 발표
- 1957년 제1회 부산시 문화상(과학상) 수여
- 1958년 원예시험장 장장
- 1959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문화포장 수여
- 1959년 8월 10일 사망
- 1999년 10월 21일 우장춘 기념관 건립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평가

-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를 기리기 위한 장소
- ◇ 일본에서 의지하던 무, 배추와 같은 채소종자들이 국내에서 자급자족 될 수 있도록 기를 마련
- ◇ 배추속(Brassica)의 식물에 관한 게놈분석을 시도하여 박사학위 논문 “중(種)의 합성”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다윈의 진화론 중 '중은 자연도태의 결과로 성립된다'는 설 보충
- ◇ 현재 ‘우의 삼각형(U's triangle)’으로 불리는 이론은 세계 육종학 교과서에 예외없이 인용
- ◇ 우장춘 박사의 끊임없는 연구정신과 육종학에 대한 세계적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미남교차로에서 식물원간 도로를 ‘우장춘로’로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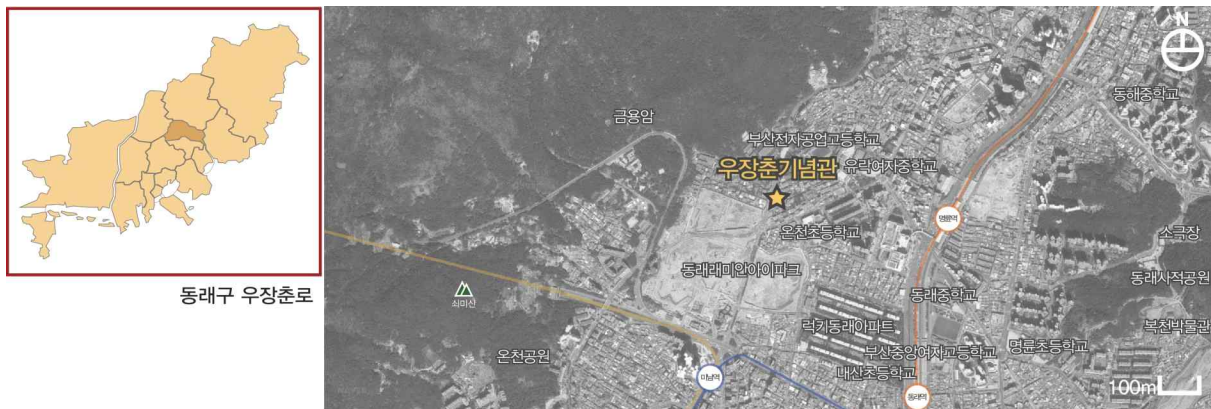


2. 기초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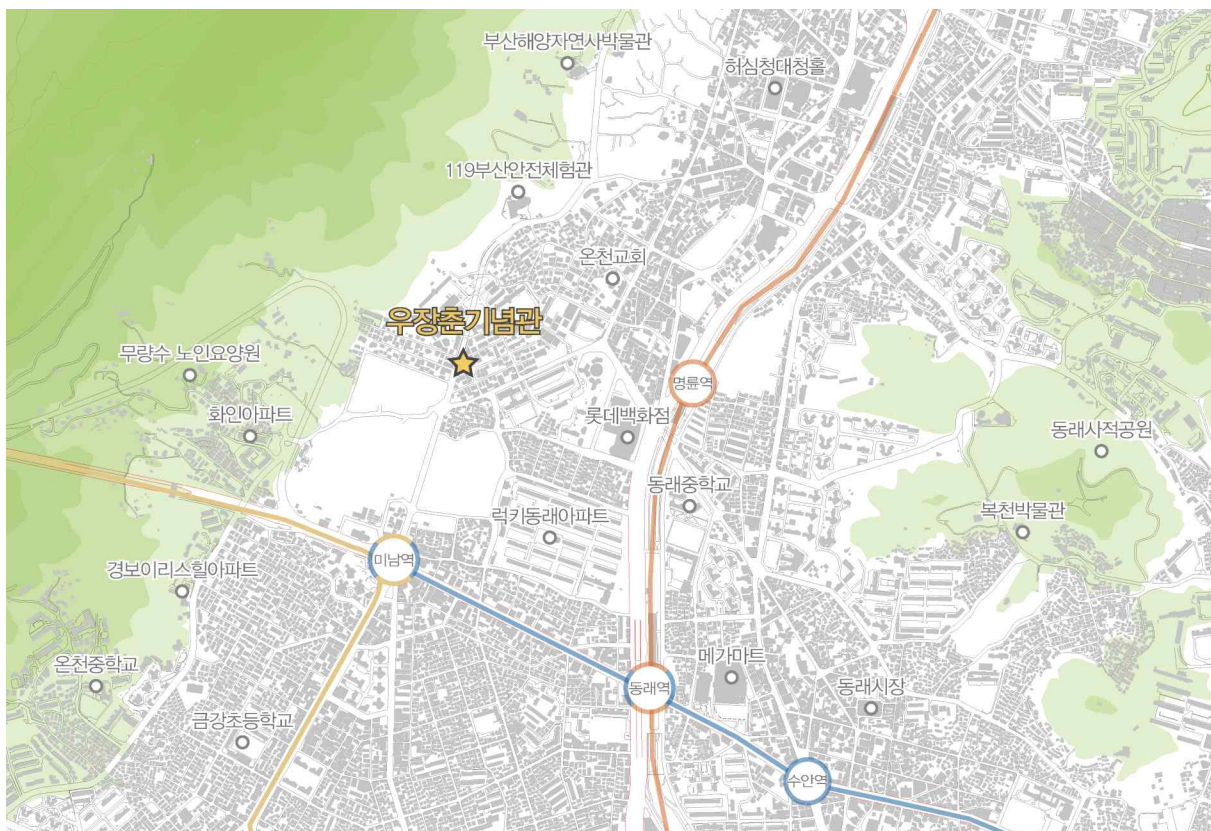
2.11 우장춘 유적

2) 현황

▷ 입지여건



▷ 공간여건



2. 기초현황조사

2.11 우장춘 유적

2) 현황

▷ 보존현황

보존(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은 대지면적 약 1,000㎡(3백여 평), 연건평 241㎡(73평) 규모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1, 2층을 전시실로 구성하였으며, 야외마당에는 자유천과 우박사의 흉상 배치 · 기념관의 설계는 자유천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전시공간을 선형으로 유도하고 원형형태의 곡선미를 가미하였으며 외부마감을 신 건축공법인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도입 · 연구소와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의 생전의 의도대로 야외마당의 자유천은 기와기둥을 세워 정자형식으로 만들어 보존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관은 1999년 건립 이후 리모델링 없이 유지보수만 하고 있어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음. · 평균 방문객(평일 20~30명/주말 40~60명)에 비해 매우 협소한 공간임. 단체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월요일, 공휴일 휴무	09:00 ~ 18:00	-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자·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단지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장춘 박사의 발자취 따라가기, 즉 ‘우장춘로—우장춘 기념관—자유천—원예 시험장 터(현 원예고등학교)’를 연결한 유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의 업적을 기념해보는 행사 개최 · 주변의 여러 문화시설(금강공원·이주홍 문학관·해양자연사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및 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과학(농학·육종학)과 원예 분야의 정보제공 가능 		



2. 기초현황조사

2.11 우장춘 유적

3) 관련 이미지



우장춘기념관 전경



우장춘기념관 측면



우장춘박사 유적지



우장춘박사 유적지 비문



우장춘 동상



2. 기초현황조사

2.11 우장춘 유적

4) 관련 자료

▷ 도면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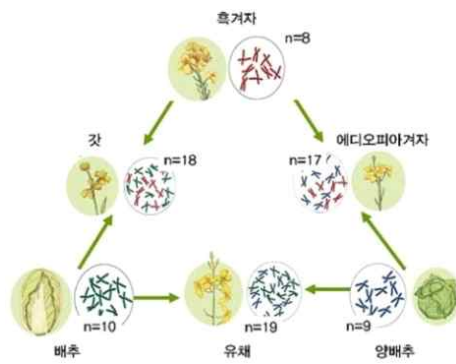
제1회 부산시 문화상(과학상) 수상 장면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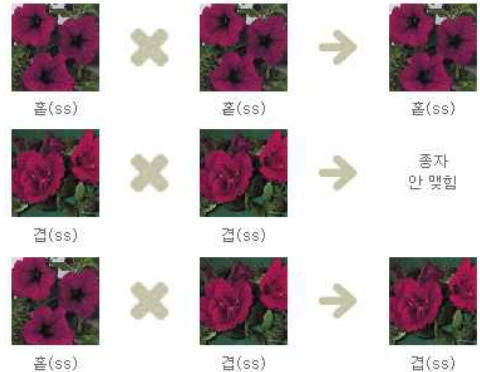
자유천 건립장면

© 농촌진흥청



대한민국의 씨앗 독립을 일구다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겹꽃 페튜니아 유전양식

©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온실에서의 연구자료

©국제신문



페튜니아 교배를 가르치고 있는 우장춘 박사

©서울신문



2. 기초현황조사

2.11 우장춘 유적

4) 관련 자료

▷ 문헌 및 기사

- 김근배, 2004, “논문:우장춘의 한국 귀환과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 26권 2호, pp.139-164.
- 김태욱, 1985, “연구노우트:우장춘박사의 역사적 비중과 그 위치”, 『농촌경제』, 8권 1호, pp.141-151.
- 박성래, 1993, “역사 속 과학인물-조국혼을 지키며 종자개량에 몰두 우장춘박사”, 『과학과 기술』, 26권 2호, pp.80-81.
- 박성래, 2003, “전설속의 ‘씨 없는 수박’…우장춘”, 『과학과 기술』, 36권 12호, pp.102-104.
- 변상지, 2021, “우장춘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1편”, 『종자와 학과 산업』, 17권 3호, pp.106-125.
- 변상지, 2021, “우장춘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2편”, 『종자와 학과 산업』, 17권 2호, pp.17-40.
- 석동수, 1991, “우장춘 박사와 메디칼센타”, 『부산의사회』, 27권 1호, pp.55-57.
- 이수윤, 2010, “과학자, 민족의 영웅에서 탈출하기-우장춘”, 『열린전북』, 2010권 9호, pp.106-109.
- 정종현, 2013, “과학과 내셔널리즘-‘해방전후’과학(자)의 이동과 우장춘 서사의 과학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9권, pp.207-249.
- 1999.10.20. 연합뉴스, 『육종학자 우장춘박사 기념관 개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78687>
- 2005.03.17. 연합뉴스, 『육종학 대가 우장춘 박사 특별전시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44588>
- 2006.08.11. 연합뉴스, 『故 우장춘박사 부산 시민 추모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06331>
- 2016.07.17. 국제신문, 『이야기 공작소-동래온천장의 재발견 <4> 우장춘과 자유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718.22013190354>
- 2020.08.21. 한국일보, 『우장춘, 그에게 농업은 애국이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0380002915?did=NA>



6장

부산미래유산의 지속화 방안

1. 지속화 방안의 구분 • 193

1.1 방향 설정

1.2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형 유산

1.3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무형 복합 유산

1.4 지속화 방안의 설정 : 무형 유산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 202

2.1 기본 유형

2.2 공간화 사업의 예시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 210

3.1 국가별 명판 디자인

3.2 명판 디자인 예시

1. 지속화 방안의 구분

1.1 방향 설정

1) 유형 유산

- ◇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그 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에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산 모두를 이룸
- ◇ 지속화 방안
 - 현장 보존(preservation, 현장 그대로 보호하고 유지)을 통한 공간 체험 진행
 - 복원(restoration, 훼손/소멸된 것을 원형 그대로 다시 만듦) 및 수복(rehabilitation, 고쳐서 본 모습을 회복)을 통한 정비
 - 조형물, 기념관 조성 등을 통한 기억·기념화 사업 추진

2) 유·무형 (복합)유산

- ◇ 유형의 유산과 연관성을 가진 무형 유산(인물, 제조·채취 기술, 공동체 등)이 결합된 것을 말함. 크게 ‘인물 중심형’, ‘음식·기술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지속화 방안
 - 공간 및 자산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투어프로그램 진행
 - 기술 전승, 장인 육성을 통한 생활문화유산의 계승 및 강화

3) 무형 유산

- ◇ 조직, 사건 등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니지 않은 유산을 말함
- ◇ 지속화 방안
 - 지역특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빙 등 기록화작업의 추진
 - 시민참여형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화 작업 진행

■ 3차년도 유산의 적용 예시 (중복 포함)

구분	유형	3차년도 유산의 적용 예시(중복포함)
유형 유산	현장 보존을 통한 공간 체험 진행	부산지역의3·1운동발생지/감천문화마을
	복원 및 수복을 통한 정비 조치	부산의봉수대(황령산봉수대)/온천천
	조형물, 기념관 조성 등을 통한 기억·기념화 사업 추진	민주공원/충혼탑/부산지역의3·1운동발생지
유무형 복합 유산	공간 및 자산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투어프로그램 진행	부산지역의3·1운동발생지/민주공원/박재혁의사유적/안용복관련유적/기장미역
	기술 전승, 장인 육성을 통한 생활문화유산 계승 및 강화	감천문화마을/기장미역
무형 유산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빙 등 기록화작업의 추진	부산지역의3·1운동발생지/박재혁의사유적/안용복관련유적
	시민참여형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직야구장응원문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화 작업	모든 유산



1.2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형 유산

1) 현장 보존을 통한 공간 체험 진행

① 기본방향

- ◇ 유산이 현존하고 있는 공간을 최초 형성 또는 발생 당시, 혹은 현 상태로 보존하여 시민들이 해당 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인지함
- ◇ 장소형 유산, 마을(동네)형 유산, 거리형 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세부 방안

- ◇ 장소형 유산
 - 유산이 단일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존(복원)하거나 보호, 정비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함. 방문하는 시민들의 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분야(역사, 종교, 체육, 여가 등) 프로그램 및 축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화 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대중적 행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 ◇ 마을(동네)형 유산
 - 지역민이 살고 있는 마을형 유산은 해당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역사와 다양한 풍경들, 길과 장소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연계된 다양한 스토리를 통합하여 지역의 특정 공간(마을, 동네, 거리 등) 전체를 체험의 대상으로 하는 ‘에코 뮤지엄(eco-museum)’ 개념을 적용하여야 함
 - 부산지역의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상징 마을들로서 마을을 구성하는 공간요소들과 풍경의 원형을 진정성과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단, 이 유산은 현재에도 지역 속에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기에 지역민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필연적인 변화는 배려되어야 함
- ◇ 거리형 유산
 - 거리형 유산은 한정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렵기에 해당 유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에코 뮤지엄 개념을 적용하며, 이와 연계한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함

■ 장소형 유산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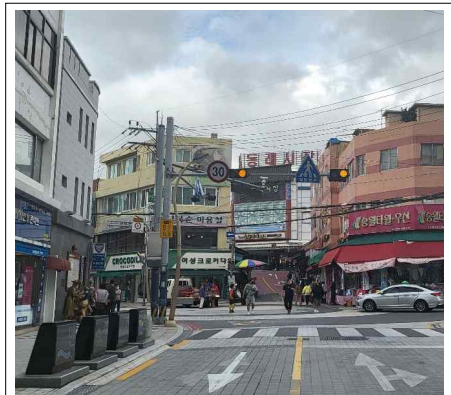
■ 마을(동네)형 유산

감천문화마을



■ 거리형 유산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1.2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형 유산

2) 복원 및 수복을 통한 정비 조치

① 기본방향

- ◇ 현재 그 일부만 형태가 보존되어 있으나 형태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성을 보전(conservation, 변화를 인정하며 보존과 관리를 포괄)하여야 하는 자연형 유산이 해당함
- ◇ 기본적으로 옛 모습을 복원 및 수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유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역사 및 생태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② 세부 방안

- ◇ 복원이 필요한 유산
 - 잔존하고 있는 유산의 일부 및 설계도면, 관련 사료(사진자료, 서면 기록, 관계자 구술 등)를 토대로 당시의 형태를 수리, 복원하여 사라졌던 유산의 정신을 새롭게 되살림
- ◇ 보전해야 하는 유산
 - 유산의 속성상 자연생태형인 경우, 친환경성의 보전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지속함

■ 복원이 필요한 유산
부산의 봉수대(황령산봉수대)



■ 보전해야 하는 유산
온천천



3) 조형물, 기념관 조성 등을 통한 기억·기념화 사업 추진

① 기본방향

- ◇ 실제 공간에 대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공간은 있으나 공간이 산재하여 있거나 특정한 거점공간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기념 조형물 등이 존재하나 설치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
- ◇ 유형의 조형물을 인근 장소에 설치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념관, 문화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유산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

② 세부 방안

- ◇ 거리형 기념
 - 기념관을 조성할 유휴 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해당 유산이 거리·골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혹은 과거에 그러했던) 경우



1.2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형 유산

- 조형물 위주의 공간이 아니라, 그 장소와 연결된 스토리를 장소화 또는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편익과 유산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함

◇ 장소형 기념

- 유산 연관 장소 혹은 인근 유허 공간 마련이 가능하며, 시민들이 체류하며 전시 관람이나 프로그램 체험 등을 할 거점공간이 필요할 경우, 해당 방안을 택하여 기념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범용적인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점철된 기념 공간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 아카이빙을 토대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공간 구성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문과 참여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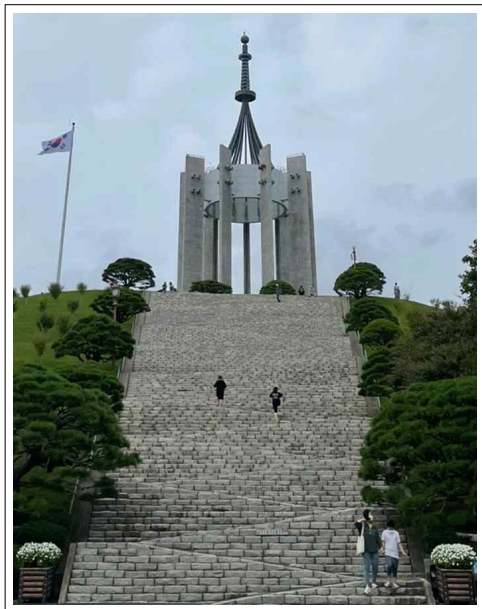
■ 거리형 기념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 장소형 기념

충혼탑



1.3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무형 (복합)유산

1) 공간 및 자산 연계 지역 투어 프로그램 진행

① 기본방향

- ◇ 유형의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그와 연관된 무형의 인물, 음식, 특산물 등의 유산을 연계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함
- ◇ 무형 유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정신과 가치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거점공간 (유형유산)에서 그와 관련된 강좌, 콘텐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접함으로써 전체 투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함
- ◇ 해당 투어프로그램은 유형유산에서 언급된 에코 뮤지엄 조성, 기억·기념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함

② 세부 방안

- ◇ 인물 중심형
 - 지역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집합의 시민 포함)’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연관된 조직·단체, 기업 등을 결합한 유산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이들을 기념하는 공간은 해당 인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이므로 기념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물의 행적에 중점적으로 살펴 투어의 코스를 기획할 수 있으며, 기념관·문학관은 해당 투어의 시·종착점의 역할을 함
- ◇ 음식·기술 복합형
 - 음식·특산물 유산의 경우, 많은 경우 관련 ‘지역’이나 ‘골목’이 형성되어 있거나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가 있음. 이를 거점으로 삼아 유산의 역사를 들여보고, 그 자취를 따라 지역을 둘러보는 투어, 기술의 시범 및 체험으로 이어지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인물 중심형

안용복 관련 유적, 박재혁의사 유적, 우창춘 유적



1.3 지속화 방안의 설정 : 유 · 무형 (복합)유산

2) 기술 전승, 장인 육성을 통한 생활문화유산 계승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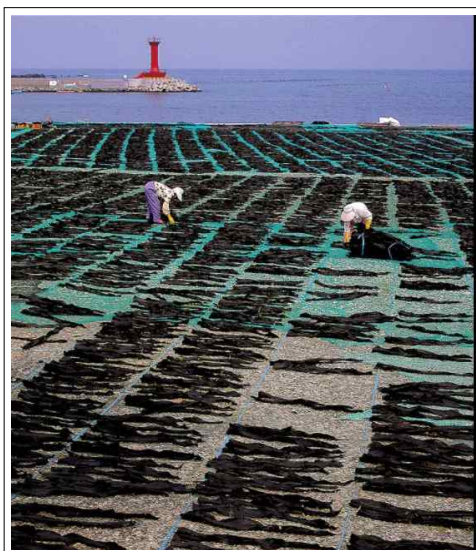
① 기본방향

- ◇ 음식 혹은 특산물과 이를 제조하고 채취하는 기술이 결합된 ‘음식·기술 복합형’ 유산을 대상으로 함
- ◇ 현재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조기술이 전승되어 오고 있거나,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채취·제조기술이 전수되는 경우임
- ◇ 기술의 발전과 변화, 환경오염 악화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기억과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유산을 기록하고 기술 전승 및 장인 육성을 지원하여 생활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함

② 세부 방안

- ◇ 기술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한 제도·환경적 지원 및 개선 등을 통해 유산의 지속을 강화할 수 있음
- ◇ 소수의 업체,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경우
 -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당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유산 관련 지역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장인들과 청년들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협업하거나, 전문 기술을 전승하여 해당 기술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술 장인들이 기술 전승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인’ 제도 마련, 후대への 기술 전승을 장려하는 다방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기술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기장미역



©부산역사문화대전



1.4 지속화 방안의 설정 : 무형 유산

1)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빙 등 기록화 작업의 추진

① 기본방향

- ◇ 무형유산과 관련된 사료 및 문헌의 수집, 구술 기록 등 기초·심화 연구 작업으로, 모든 유·무형 활용의 기반이 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함

② 세부 방안

- ◇ 사건형 유산
 - 고신문, 지도, 사진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단순히 기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닌, 향후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구성, 전시 및 기념화 사업, 콘텐츠 제작 등으로 연계하여야 하며, 원형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해야 함
- ◇ 인물·조직·단체형 유산
 - 부산미래유산의 상당수는 근대기에 형성된 것임. 이에 인물이나 조직과 관련된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계자들과 그 기억이 보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현존하는 관련 인물들과 후손들의 증언과 기억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 ◇ 창의적인 기록화 사업의 실천
 - 신진 관련 전문가들의 발굴을 위해 논문공모사업, 신규유산발굴공모전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부산문화재산, 부산관광공사 등과의 연계)

■ 2000년부터 시행중인 유산 발굴 시민공모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1.4 지속화 방안의 설정 : 무형 유산

2) 시민참여형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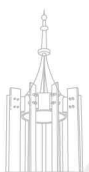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① 기본방향

- ◇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활성화하여 해당 유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함

② 세부 방안

- ◇ 간접 체험형
 - 기록화작업을 통해 구축된 원형 콘텐츠, 관계자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인문학 강좌,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
- ◇ 직접 체험형
 - 미디어 파사드, AR·VR,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유산의 옛 모습, 역사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음
- ◇ 시민참여형 창작물 제작 등
 - 부산미래유산의 활성화는 시민의 이해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시각자료와 정체성이 담긴 창작물과 문화상품의 개발이 필수조건이며, 부산문화유산 스토리북과 문화지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시민참여형 창작물의 예시 : 스토리북과 문화지도



1.4 지속화 방안의 설정 : 무형 유산

3)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화 작업 진행

① 기본방향

- ◇ 축적된 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음
- ◇ 부산의 문화증진과 관련된 단체(부산문화재단, 부산관광공사 등)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② 세부 방안

- ◇ 단순히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해당 작품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 일반 공모전 형식에서 벗어나 광역·기초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형태와 내용을 보장하여 생산되는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앱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한 대중화 작업이 필요함
- ◇ 부산KBS에서 부산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제작/방영하고 있는 ‘부산의 발견’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에 착안한 다양한 방식의 대중화 작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 또한 부산미래유산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발굴과 제작도 필요하며, 로컬 큐레이터들과 함께 부산미래유산의 매력을 젊은 감각으로 담아 시민들과 방문자들에게 전달(판매)하는 선물 꾸러미(로컬 플레이 키트)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대중화 작업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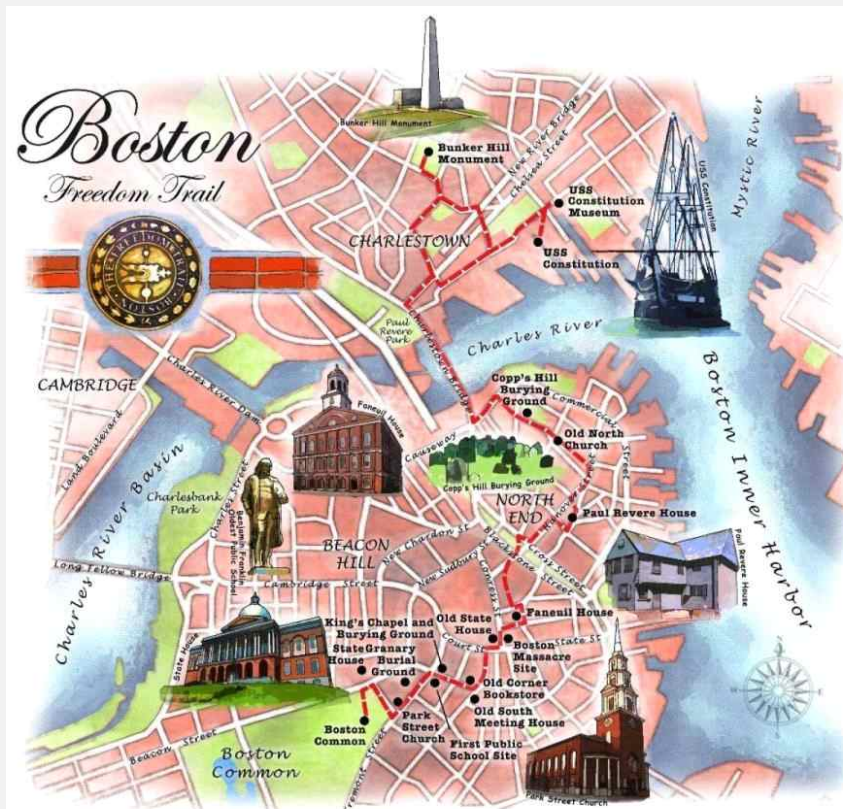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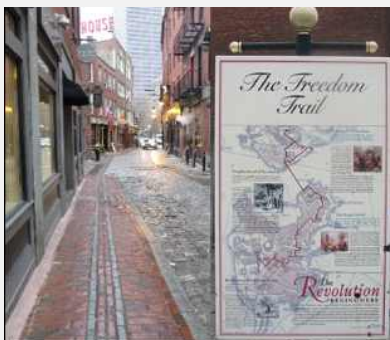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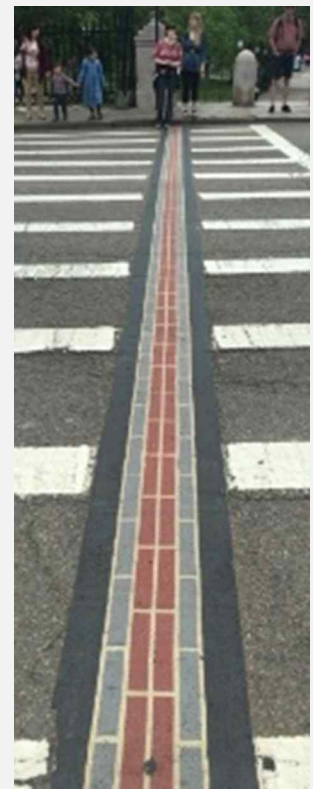
2.1 기본 유형

1) 트레일형 :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 ◇ 미국독립전쟁의 전승지인 보스턴의 각종 유산들을 붉은색 바닥 포장(라인) 연결
- ◇ 방문객이 붉은색 트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미국 독립 역사를 탐방



프리덤 트레일의 구성과 패턴



프리덤 트레일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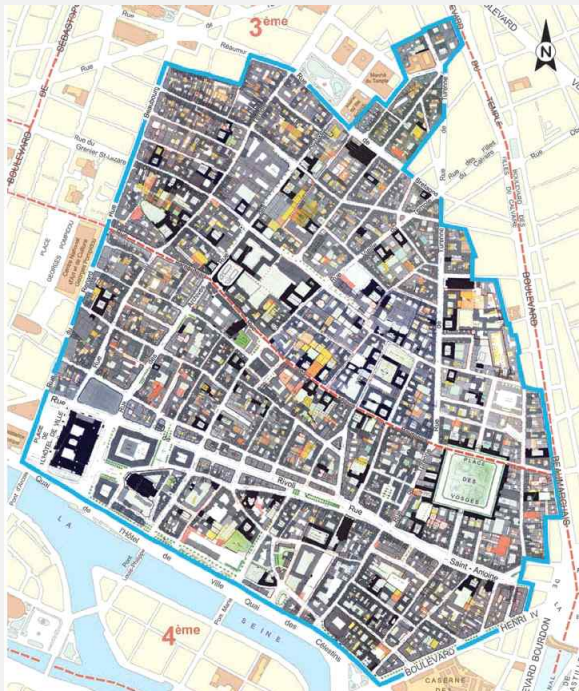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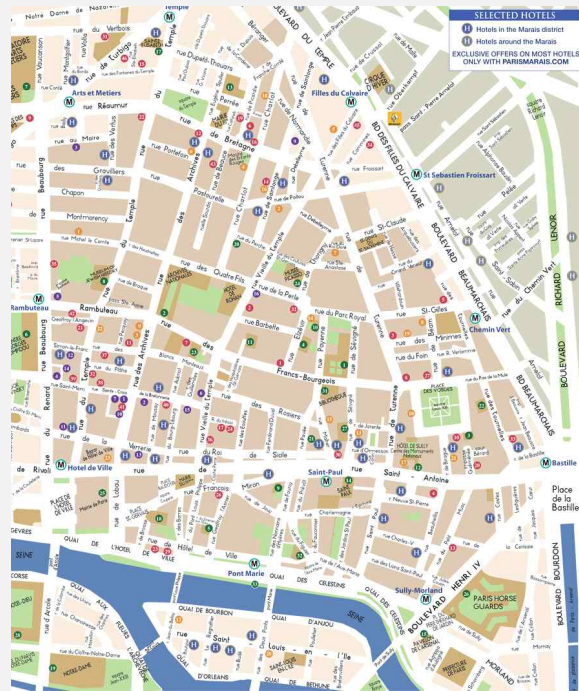
2.1 기본 유형

2) 거점구역형 : 파리, 마레지구(Le Marais)

- ◇ 오래된 도시공간 내 건축 및 공간 문화자산을 주변 환경과 함께 면 단위로 보호
- ◇ 문화재가 아닌, 가로, 필지, 건물 등 민족적, 문화적, 시대적 특성이 있는 지역의 특화 (외형 보존, 내부 개조)



마레지구의 공간구조



마레지구의 가로 및 가구패턴



마레지구 내부의 풍경

©<https://www.theshopkeepers.com/best-paris-shops-le-marais>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2.1 기본 유형

3) 전시관형 :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 ◇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재생하여 마을 전체를 근대주제의 박물관으로 재탄생
- ◇ 박물관 내에 단위건물(단층, 69.95㎡)을 서울미래유산관으로 별도 조성



돈의문박물관마을 전경(배치)



돈의문역사관



삼대가옥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2.2 공간화 사업의 예시 **트레일형**

1) 전제

- ◇ 지역 : 중구 일원
- ◇ 대상 유산
 - 2019년 지정 : 용두산공원, 초량왜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동강통시장, 보수동책방골목, 조선키네마주식회사, 산복도로
 - 2020년 지정 : 부산세관, 40계단, 동광동인쇄골목, 백산기념관, BIFF광장, 민주공원
 - 2021년 지정 : 충혼탑
 - 시민설문 선정유산 :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 1960 · 1979 · 1987 · 2016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광장문화, 부산타워
- ◇ 구성 : 유형 유산 + 유·무형 (복합)유산 + 무형 유산

2) 내용

① 기획 의도

- ◇ 부산미래유산을 탐방하며, 부산의 역사, 현재, 미래를 경험
- ◇ 시점(항구 또는 산정)과 종점(산정 또는 항구)로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부산다움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

② 기본 요구 조건

- ◇ 앵커공간의 확보 : 부산타워, 부산항 제1부두 내 창고시설 등
- ◇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주체(비영리단체) 설립 : 신규 또는 기존조직의 기능 전환
- ◇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지원

③ 사업 내용

- ◇ 트레일 A
 - 연결 유산 : 부산항 제1부두 및 안벽~부산세관~40계단~동광동인쇄골목~백산기념관~초량왜관~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관련 광장문화~용두산공원~부산타워
 - 규격 : 2.0km / 도보 약 1시간
- ◇ 트레일 B
 - 연결 유산 : 충혼탑~민주공원~산복도로~조선키네마주식회사~보수동책방골목~부평강통시장~국제시장~BIFF광장~자갈치시장
 - 규격 : 4.5km / 도보 약 2시간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2.2 공간화 사업의 예시 **거점구역형**

1) 전제

- ◇ 지역 : 중구 일원
- ◇ 대상 유산
 - 2019년 지정 : 용두산공원, 초량왜관, 국제시장, 부평동강통시장, 보수동책방골목,
 - 2020년 지정 : 백산기념관
 - 시민설문 선정유산 : 1960·1979·1987·2016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광장문화, 부산타워
- ◇ 구성 : 유형 유산 + 유·무형 (복합)유산 + 무형 유산

2) 내용

① 기획 의도

- ◇ 부산미래유산 밀집지역을 거점구역화 하여 집중적인 체험 특화
- ◇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 장소로 사용

② 기본 요구 조건

- ◇ 제도적 지원 및 구역내 유산 및 노포들, 장소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발굴
- ◇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 주체(비영리단체) 확보
- ◇ 관련 자산들 및 타부서 정책들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복합 효과 확보

③ 사업 내용

- ◇ 거점구역 A
 - 포함 유산 : 백산기념관, 초량왜관, 1960·1979·1987·2016년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관련
광장문화,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 규모 : 약 23ha
- ◇ 거점구역 B
 - 포함 유산 : 보수동책방골목, 부평강통시장, 국제시장
 - 규모 : 약 21ha

거점구역 A



거점구역 B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2.2 공간화 사업의 예시 전시관형

1) 전제

- ◇ 지역 : 중구 일원
- ◇ 대상 유산
 - 2019년 지정 :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부평동강통시장, 보수동책방골목
 - 보수동책방골목
 - 2020년 지정 : 동광동인쇄골목
- ◇ 구성 및 방법
 - 후보(4개소) 중 택1, 또는 복수 선정

2) 내용

① 기획 의도

- ◇ 부산미래유산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사용

② 기본 요구 조건

- ◇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 주체(비영리단체) 확보
- ◇ 공간 자체의 온전한 확보(매입, 지속가능한 임차 등)
- ◇ 월활한 접근성 확보

③ 사업 내용

- ◇ 전시관(후보) A
 - 유산 : 동광동인쇄골목 내 인쇄소
 - 현황 : 임대 대상의 인쇄소 발굴 / 약 300㎡(2층 규모)
- ◇ 전시관(후보) B
 - 유산 : 용두산공원 내 팔각정 또는 부산타워 1층
 - 현황 : BN기업의 상업용도로 사용 중 / 약 400㎡
- ◇ 전시관(후보) C
 - 유산 : 보수동책방골목 내 문화관(부분) 또는 헌책방
 - 현황 : 문화관은 전시/사무공간으로 사용 중 / 약 300㎡
- ◇ 전시관(후보) D
 - 유산 : 국제시장의 2층(한 동)
 - 현황 : 2층의 대다수 점포는 폐업 중 / 약 500㎡

전시관(후보) A : 동광동
인쇄골목 내 인쇄소



전시관(후보) B : 용두산
팔각정 또는 부산타워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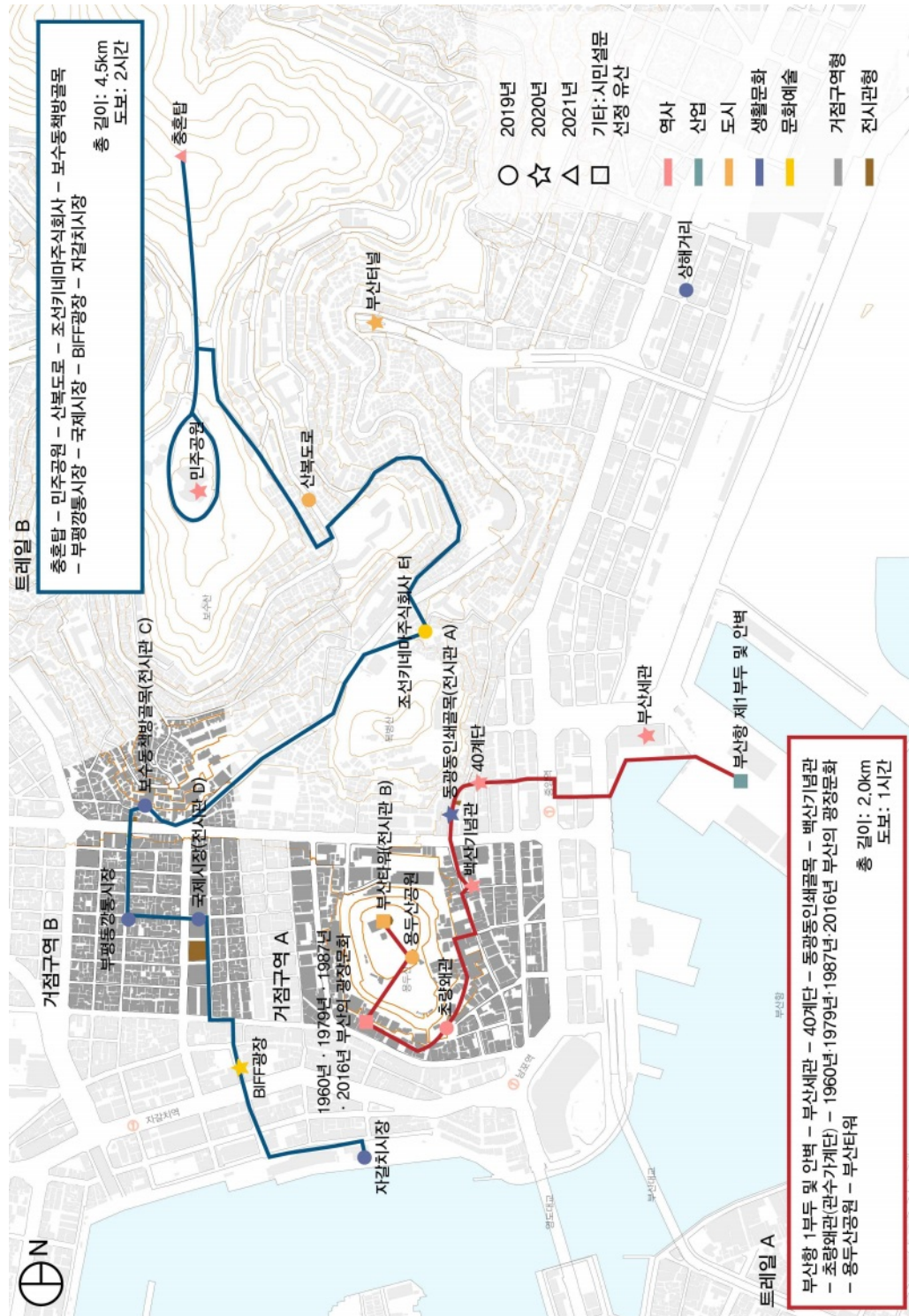
전시관(후보) C :
보수동책방골목 내
문화관(부분) 또는 헌책방



전시관(후보) D :
국제시장의 2층(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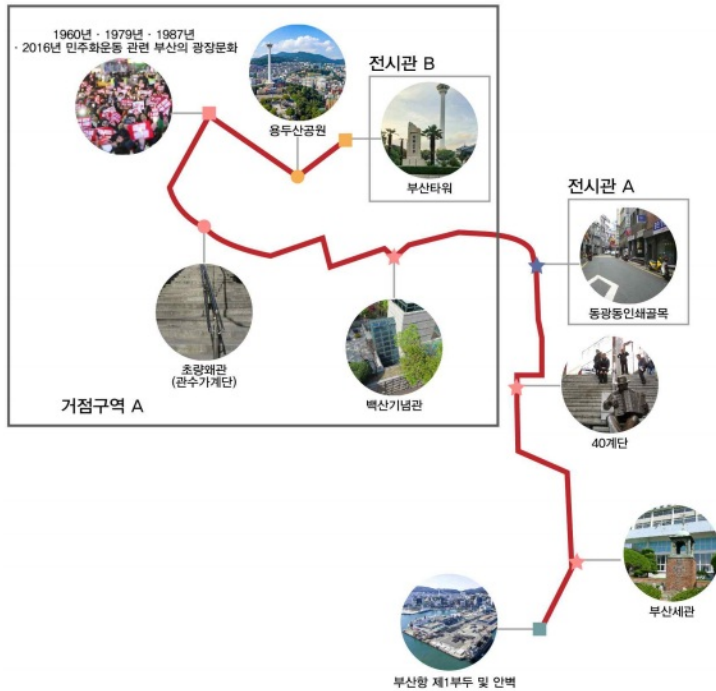
2.3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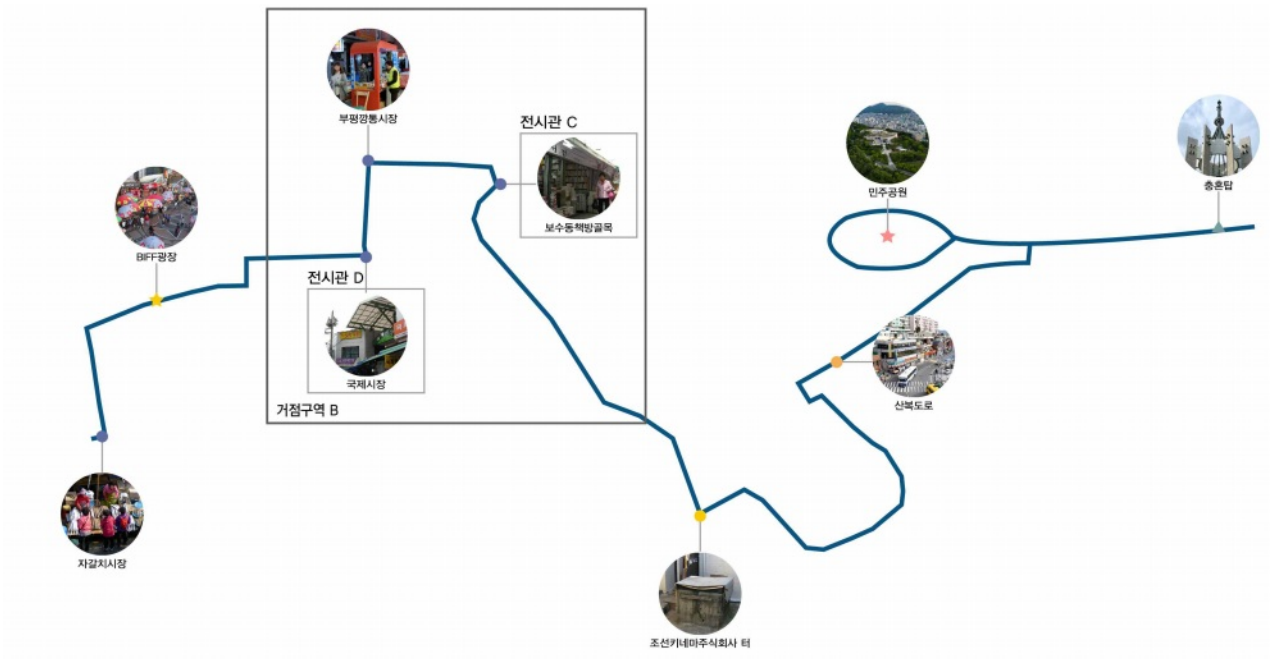
2. 공간화 사업의 검토

2.3 종합

트레일 A



트레일 B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3.1 국가별 명판 디자인

1) 유럽

① 영국, English Heritage_ [Blue Plaque]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6년 시작 · 수도 전역에 950개 분포 · 원형의 청색 명판 · 글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사망 이후 최소 20년 소요 · 인물과 관련된 건물 중 하나 이상은 그레이터런던 내에서 살아야 함 · 건물은 기념하는 사람이 인식되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볼 수 있음 · 교회, 학교 및 극장과 같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명판으로 미간주 ·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명판 미허용 · 사건 또는 개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기념하기 위한 지명은 허용 |
|--|--|



② 영국, The National Trust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시작 · 500개 이상 분포 · 흰색 명판 · 글 및 나뭇잎으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주택, 성, 고고학 및 산업 기념물, 정원, 공원 및 자연 보호 구역 · 접근 및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 보완 ·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자선단체 및 회원단체 선정 · 토지와 아름다움 또는 사적 (건물 포함) 채굴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영구보존을 촉진하기위한 목적과 자연의 보존을 위한 관련 토지로 설치 |
|---|--|



③ 노르웨이, DrammeHistorielag_ [Kulturminneskilt Drammen]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시작 · 123개 이상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청색 명판 · 글로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ammen Historielag에 지정된 모든유산 · 지역사회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 |
|--|--|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3.1 국가별 명판 디자인

2) 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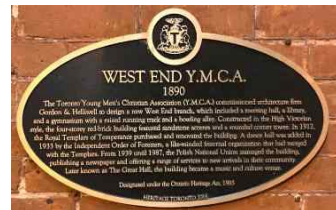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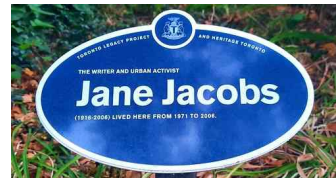
① 미국,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_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전역 약 95,000개 · 타원형의 갈색 명판 · 글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사망 이후 최소 20년 소요 · 인물과 관련된 건물 중 하나 이상은 그레이터런던 내에서 살아야 함 · 건물은 기념하는 사람이 인식되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볼 수 있음 · 교회, 학교 및 극장과 같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명판으로 미간주 ·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명판 미허용 · 사건 또는 개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기념하기 위한 지명은 허용 |
|--|--|



② 캐나다, Heritage Toronto_ [Heritage Property plaque]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형의 검정 명판 · 30cm x 18cm · 로고 및 글(이름)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의 사망 이후 최소 20년 소요 · 인물과 관련된 건물 중 하나 이상은 그레이터런던 내에서 살아야 함 · 건물은 기념하는 사람이 인식되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볼 수 있음 · 교회, 학교 및 극장과 같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명판으로 미간주 ·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명판 미허용 · 사건 또는 개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기념하기 위한 지명은 허용 |
|---|--|



③ 캐나다, Heritage Toronto _ [Century House Plaques]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원형의 검정 명판 · 28.5cmx24.75cm · 동판(도자기 코팅이 된 두꺼운 강철) · 숫자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된 토론토시 내의 모든 주택에 대해 제공 · 부동산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명판은 거리 주소 표시의 역할 |
|--|--|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3.1 국가별 명판 디자인

3) 아시아 및 태평양

① 일본, Japan Heritage_ [日本遺産]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종류 (직사각형의 비석형 명판,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명판) · 로고 및 글(이름)으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유산에 해당하는 모든 유산 |
|---|--|



② 중국, Historical and Stylistic Architecture of Tianjin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 746개 · 직사각형의 검정색 명판 · 대리석 · 로고 및 글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진역사건축물은 50년 이상 ·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높은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예술적, 인간적 가치 보유 · 건축 양식, 구조, 재료, 건축 기술, 공학 기술은 건축 예술적 특성과 과학적 가치 · 도시의 역사 문화와 민속 전통 반영 · 시대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및 이국적인 건축양식 보유 |
|--|--|



③ 뉴질랜드, Heritage New Zealand_ [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 | | |
|--|--|
| 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시작 · 5,799개 선정 · 원형의 청색 명판 · 로고 및 글로 표현 | ②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의 역사 및 문화유산의 식별, 보호, 보존 및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사명으로 유적지 법 설립 · 역사적 장소/ 역사적인 지역/ 와이타푸(마오리성지)/ 와이타푸지역/ 와이타푸나(조상의 중요성과 관련 문화 및 전통적 가치로 인해 마오리에게 중요한 장소) |
|--|--|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3.1 국가별 명판 디자인

4) 유형의 종합

- ① 형상
 - ◇ 사각형, 원형, 삼각형, 기타
- ② 색채
 - ◇ 흰색, 청색, 적갈색, 회색, 검정색
- ③ 명판 내 도입 가능한 요소
 - ◇ 해당 국가와 지역을 상징하는 심볼
- ④ 재료
 - ◇ 금속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 ⑤ 부착방법
 - ◇ 벽면 직접 부착형, 스탠드형, 걸개형

■ 국가별 명판디자인 유형



3. 명판 디자인의 검토

3.2 명판 디자인의 예시

1) 기본 방향

- ◇ 해양도시이자 항구도시의 프런티어 정신의 반영
- ◇ 근대기의 여러 국난을 포용했던 근대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2) 고려점

① 부산 정체성의 전달

- ◇ 해양도시이자 항구도시의 프런티어 정신
- ◇ 근대기의 여러 국난을 포용했던 근대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② 적용의 용이성

- ◇ 해양도시의 색채 이미지 : 군청색을 기본으로 하여 흰색 첨가
- ◇ 명판 내 도입 가능한 부산의 상징 문양 등 : 부산(전체)지도, 배, 등대, 계선주, 동백꽃 외

③ 관리의 용이성

- ◇ 재질(기본) : 도기(유약 처리)
- ◇ 부착 방법 : 직접부착형, 스탠드형, 걸개형 등

■ 명판 디자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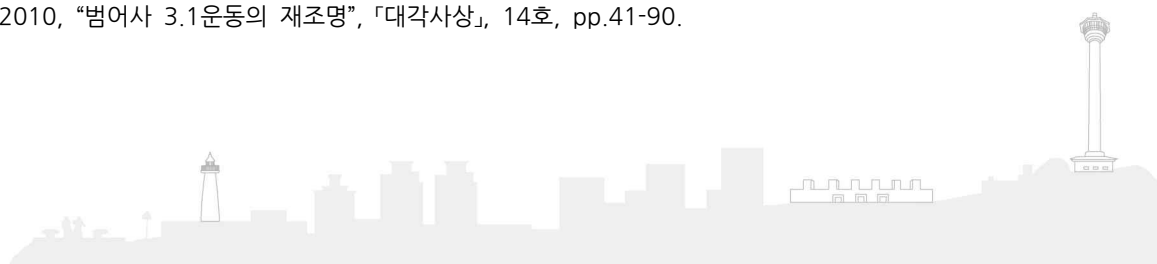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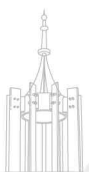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 강대민 2003,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 강동진·장현정·차철욱·박진명(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2015, “부산을 알다(2015 부산학 시민총서”, 부산발전연구원.
- 강동진·김희재·송교성 2018, “부산 도시공간 탐색 : 변방에서 해양으로(2018 부산학 시민총서”, 부산연구원 부산학센터.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북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역사문화 잠재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수립”, 지원: 부산항만공사.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세계유산 등재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부산광역시.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북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2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문화재 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 지원: 해양수산부.
- 김용욱 2001, “부산의 역사와 정신”,전망.
- 김종업 1983, “월간 건축문화”(1983-12), 31호.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 부산문화재단 2016, “세월을 머금다 숨씨를 담다: 부산의 점포”,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의 해녀”,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 2021, “부산의 마을”, 부산문화재단.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부산민주운동사1,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부산발전연구원 2006, “부산의 하천”,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연구원 2020,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2, “창조적 도시재생: 부산 되살리기 이야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수다의 인문학”,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연구원부산학연구센터 2018,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연구원부산학연구센터 2019, “피란수도 부산의 주거환경”,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은행 “부산,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 부산직할시 1981. “하천정비기본계획(수영강·온천천·우동천)보고서”.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21, “부산학:거의 모든 부산”, 함향.
- 최원준 2018, “부산 탐식 프로젝트”, 산지니.
- 최해군 1997,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 1”, 부산을 가꾸는 모임.
- 하나는 2021, “혀끝으로 만나는 겨울 바다의 맛”, 「다이너믹 부산」 제3호.

◎ 학술논문 및 발표물 및 학위논문

- 강대민 2010,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호, pp.41-90.



- 강동진 2015,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부산 도시재생의 특성과 지향”, 『열상고전연구』, 8집, pp.63-95.
- 강동진 2012, “부산 도심항구부의 흔적에 대한 창의적 시선 : 재생의 관점”, 『환경논총』, 51권, pp.1-19.
- 구영기 2006, “온천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2권 2호, pp.18-23.
- 권오엽 2009. “통정대부 안용복 : 한,일 기록이 전하는 안용복의 관직”, 『일본어교육』, 50권, pp.241-256.
- 김근배 2004, “논문:우장춘의 한국 귀환과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 26권 2호, pp.139-164.
- 김병우 2011,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 34권, pp.73-116.
- 김선미 2010, “4·19 민주항쟁시기 부산지역의 통일운동”. 『항도부산』, 26권, pp.135-185.
- 김선미 2016,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 연구 -1978년을 중심으로-”, 39호, 『지역과 역사』, pp.343-374.
-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한국민족문화』, 67권, pp.363-396.
- 김성은 2016. “1950년대 이후 안용복에 대한 조명과 평가”, 『서강인문논총』, 0권 45호, pp.39-74.
- 김승 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권, pp.33-73.
- 김승 2007.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권, pp.183-196.
- 김영하 외 2명 2017, 일제강점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고시된 부산 소재 도시공원의 변천, 『한국조경학회지』, 45권 1호, pp.1-15.
- 김차웅 2007, “기장미역의 원류를 찾아서”,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 통권 제78호, pp.24-28.
- 김창수 2005, “관료와 시민사회 협력의 성공조건 : 부산광역시 온천천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권 1호, pp.145-167.
- 김창수 2007,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성공조건: 부산광역시 온천천과 동천 복원사례의 비교 분석.” 『行政論叢』, 45권 1호, pp.309-341.
- 김창수 20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99-112.
- 김태욱, 1985, “연구노우트:우장춘박사의 역사적 비중과 그 위치”, 『농촌경제』, 8권 1호, pp.141-151.
- 김호동 2017. “‘안용복’역사적 사실과 ‘안용복’소설”, 『민족문화논총』, 66권, pp.287-314.
- 남윤순, 2020, “근대 부산의 수변공간과 수변시설의 변화”,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래, 1993, “역사 속 과학인물-조국훈을 지키며 종자개량에 몰두 우장춘박사”, 『과학과 기술』, 26권 2호, pp.80-81.
- 박성래, 2003, “전설속의 ‘씨 없는 수박’...우장춘”, 『과학과 기술』, 36권 12호, pp.102-104.
- 박철규 2019. “의열단원 박재혁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 『항도부산』, 37권, pp.191-248.
- 박현희 2013, “낙후된 산동네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마을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국토연구원』, pp.55-60.
- 박혜영 2016,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실천민속학연구』, 28권, pp.47-93.
- 반용부 2006, “온천천 주변의 지형.” 부산연구 3호, pp.45-62.
- 배민순 2015. “울릉도 독도 쟁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분석과 비판:안용복의 행적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상지, 2021, “우장춘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1편”, 『종자과학과 산업』, 17권 3호, pp.106-125.
- 변상지, 2021, “우장춘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2편”, 『종자과학과 산업』, 17권 2호, pp.17-40.



- 부산직할시 1981, "하천정비기본계획(수영강·온천천·우동천) 보고서", 「부산직할시」, pp.1-184.
- 석동수, 1991, "우장춘 박사와 메디칼센터", 「부산의사회」, 27권 1호, pp.55-57.
- 손영림 외 1명 2021, "부산 피란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주민 인지도 연구 - 감천문화마을, 우암 소마마을을 대상으로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2권 1호, pp.33-40.
- 송기인 외 16명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민주운동사」. pp.1-790.
- 송휘영 2020,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16권, pp.81-114.
- 안선규 2006, "온천천을 따라 걷다", 하천과 문화 2권 2호, pp.44-49
- 오미일 2019,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 · 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권, pp.57-104.
- 우양호 2019, "마을공동체의 진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 -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 「실천민속학연구」, 38권 pp.399-440.
- 유영국 2004, "한국 정치변동과 부산시민의 정치적 역할: 4월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을 중심으로." 「부산학총서」 2권.
- 이귀혜 2001, "釜山地方의 燧燧臺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이동언 2021. "박재혁과 부산경찰서 진입 투탄의거의 성과와 의의", 「유관순 연구」, 26권, pp.121-136.
- 이석환 2015, "감천문화마을 만들기". 건축, 59권 6호, pp.42-45.
- 이선미 2007. "한일 양국의 기록에서 살펴 본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욱 2020, "부산지역 4월혁명과 민주문학", 「항도부산」, 40권, pp.1-31.
- 이승준 2010, "부산 갈매기의 비상",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pp.1-234.
- 이승준 외 3명 2014,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권 3호, pp.15-34.
- 이연숙 외 1명 2014,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4권 3호, pp.111-120.
- 이영준 외 1명 2014, "도심 재생 사례 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pp.355-356.
- 이수윤, 2010, "과학자, 민족의 영웅에서 탈출하기-우장춘", 「열린전북」, 2010권 9호, pp.106-109.
- 이지형 2012, "부산 민주공원 상전시실 운영을 기억하며... - 2003년 재개관부터 2005년까지의 전시실 운영 사례 -"에 대한 토론.", 「한국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12, pp.1-3.
- 장순순 2013.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5권, pp.161-196.
- 전성현, 2021,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화'와 국내외 자료의 현황 및 활용 방안". 항도부산, 41권, pp.1-39.
- 전송희 2013,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3호, pp.442-467.
- 정유경 2011, "부산지역의 부마항쟁에 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39권, pp.314.
- 정중현, 2013, "과학과 내셔널리즘-해방전후'과학(자)의 이동과 우장춘 서사의 과학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9권, pp.207-249.
- 정지영 2006, 近代 龍頭山公園의 空間變遷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철욱 외 1명 2010,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마을을 중심으로 -" 「석당논총」, 47호, pp.281-323.
- 차철욱 외 2명 2010, "한국 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 공간", 「민족 문화 논총」 45호, pp.251-279.
- 표용수 1998, (자료소개) 부산지역의 기념비 현황(II)-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5권,



pp.455-555.

- 홍순권 2019,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항도부산』, 37권, pp.105-151.

◎ 웹사이트

-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https://m.gamcheon.or.kr/>)
- 건축공간연구원(<https://www.auri.re.kr/>)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
-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 나무위키(<https://namu.wiki/>)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s://korean.visitkorea.or.k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http://archive.much.go.kr/>)
- 동래문화원 홈페이지(<http://dongnae.kccf.or.kr/>)
-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 롯데자이언츠(<http://www.giantsclub.com/>)
- 문화재청(<https://www.cha.go.kr/>)
- 민주공원 (<http://www.demopark.or.kr/>)
- 민주주의사회연구소(<http://www.minsayeon.or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s://www.kdemo.or.kr/>)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http://buma1979.or.kr/>)
- 부산경제진흥원(<https://bepa.kr/kor/>)
- 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https://blog.naver.com/cooolbusan>)
- 부산광역시 북구청(<https://www.bsbukgu.go.kr/>)
- 부산광역시 북구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bsbukgusns>)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bsbukgu.go.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부산교육(<https://www.pen.go.kr/>)
- 부산시설공단(<https://www.bisco.or.kr/>)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촛불아카이브(<http://iiiarchives.org/>)
- 부산타워(<http://www.cjfoodville.co.kr/>)
- 사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http://www.siteplanning.co.kr/>)
- 영도구청(www.yeongdo.go.kr)
- 영도문화원(<http://www.ydculture.com/>)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 중앙공원(<https://www.bisco.or.kr/>)
- 태극도(<http://www.tgd.or.kr/site/news2/index.php?key=&phone=>)
- 한국지방자치학회보(<http://www.kalgs.or.kr/>)
- 해운대블루라인파크(<http://www.bluelinepark.com/>)
- 6월 민주항쟁 30년 부산사업추진위원회(<http://busan610.ohminj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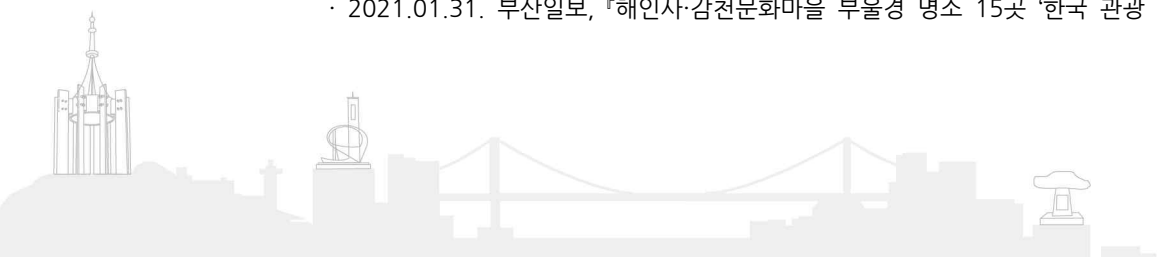


◎ 신문기사

- 1989.06.03. 부산일보, 『우리고장 이모저모 어린이기자 취재 (31) 대청공원 봉래초등학교』
- 1993.06.23. 국제신문, 『공공시설 어느수준인가<8>...대청공원』
- 1995.02.27. 국제신문, 『바다에 산다<8>...미역 양식 15년째 장중훈씨』
- 1996.04.15. 국제신문, 『"민주공원"대청공원에 선다...고 박종철군 흉상등 설치』
- 1996.07.05. 부산일보, 『민주공원 조성 본격화』
- 1996.12.21. 부산일보, 『"부산민주공원" 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 1999.09.22. 부산일보, 『YS '민주공원' 개관식 참석』
- 1999.10.16. 부산일보, 『부산민주공원 역사적 개관』
- 1999.10.16. 국제신문, 『민주공원 개관 기념...민주공원 개관까지』
- 1999.10.20. 연합뉴스, 『육종학자 우장춘박사 기념관 개관』
- 2000.04.11. 부산일보, 『황령산 봉수대 다시 불 지핀다』
- 2000.07.01. 국제신문, 『황령산 봉수대 정비완료』
- 2001.03.26. 동아일보, 『400년전 '독도 지킴이' 안용복장군 사당준공』
- 2001.09.20. 국제신문, 『내가 본 부산/장성진 부산지방보훈청장』
- 2001.10.05. 국제신문, 『온천천. 수영강. 낙동강 생태공원. 강변숲 조성』
- 2002.01.20. 국제신문, 『환경단체 2002 'NGO' 나가신다』
- 2002.02.01. 국제신문, 『' 하천살리기 시민연대 ' 결성』
- 2002.02.19. 국민일보, 『"3·1절 기념식 초대합니다"... 부산시, 참가신청 받아』
- 2002.08.25. 국제신문, 『부산 도심하천 생태공원화』
- 2002.09.25. 국제신문, 『[두리아 통신] 36억 화합의 봉화 타오른다』
- 2003.03.30. 국제신문, 『기장미역 '풍년이오',』
- 2004.11.28. 국제신문, 『[독자투고] 온천천 환경정화 성공사례』
- 2005.03.17. 연합뉴스, 『육종학 대가 우장춘 박사 특별전시회』
- 2005.05.17. 연합뉴스, 『"독도영웅" 안용복 17세기 日 심문기록 발견』
- 2006.07.25. 국제신문, 『온천천 3개 구간 테마별 복원』
- 2006.08.11. 연합뉴스, 『故 우장춘박사 부산 시민 추모식』
- 2007.05.03. 다이내믹부산,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
- 2007.10.02. 세계일보, 『2020년 올림픽 부산 유치 기원 "봉화식" 열린다』
- 2008.02.12. 국제신문, 『황령산 봉수대 쉼터 변신 전망대·휴게시설 등 조성』
- 2008.03.27. 부산일보, 『롯데 응원문화 탄생비화』
- 2008.05.15. 국제신문, 『롯데 야구에 울고 웃는 사람들] 얼마만에 불러보나 "부산 갈~매기"』
- 2008.07.05. 국제신문, 『"동짓날 불씨" 설화 간직한 마하사..』
- 2009.02.06. 부산일보, 『부산보훈청, 2월의 현충시설 '박재혁 의사'상 선정』
- 2009.02.27. 뉴시스, 『부산서 3.1절 90돌 기념행사 다채』
- 2009.03.27. 부산일보, 『야구장 명당』
- 2009.11.20. 부산일보, 『"엄마와 동생도 함께 올 걸 그랬어요"』
- 2010.08.24. 연합뉴스, 『"독도 강원도땅 표기.18세기 지도 日서 발견"』
- 2011.02.28. 부산일보, 『"동래·구포 만세운동' 재현 아파트 태극기 110% 달기』
- 2011.03.20. 국제신문, 『[도청도설] 기장미역』
- 2011.04.06. 세계일보, 『"신비의 섬" 울릉도에 안용복기념관 건립된다』
- 2011.12.27. 국제신문, 『폐·공가가 예술 흐르는 창작공간으로』
- 2012.04.05. 부산일보, 『기장미역 먹고 젓병등대 보면 '순풍순풍'』



- 2012.08.13. 부산일보, 『부산 동구 '박재혁 의사 거리' 조성』
- 2012.09.16. 국제신문,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프리카 도시재생모델로』
- 2012.11.29. 부산일보, 『부산감천문화마을, 아시아 최고 경관 마을 선정』
- 2012.12.28. 부산일보, 『부산 50년, 격을 높이자, 성장에서 성숙으로…자극심 넘치는 품격 있는 도시로 …』
- 2013.06.17. 부산일보, 『부산 갈매기 정령 롯데를 잊었나』
- 2013.06.25.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1> 프롤로그- 부산의 장소를 탐문하다』
- 2013.08.16.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세계가 주목하다』
- 2013.12.12.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민관협력 대상 대통령상』
- 2013.12.25.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21> 산동네』
- 2014.02.06. 국제신문, 『“법적분쟁 불사”...기장미역 원조싸움 가열, 기장군 “송정 것과 종 다르고 상표도 등록해 손배소 가능”』
- 2014.03.07. 이뉴스투데이,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11일 개관』
- 2014.03.10. 부산일보, 『[2014 부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 1. 삶과 죽음의 공존』
- 2014.04.13. 부산일보, 『‘감천문화마을’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선정』
- 2015.10.26. 국제신문, 『주민들도 몰랐던 '독도 지킴이' 안용복 생가터』
- 2016.06.24. 오마이뉴스, 『왜장들까지 애도 표시한 한 선비의 죽음』
- 2016.07.17. 국제신문, 『이야기 공작소-동래온천장의 재발견 <4> 우장춘과 자유천』
- 2016.11.04. 국제신문, 『부산역·서면서 거리행진…주말 '최순실정국' 분수령』
- 2017.06.04. 부산일보, 『기억하라 '6월 항쟁 30년' 1987년 6월 부산 민주항쟁의 중심축』
- 2017.08.22. 국제신문, 『부산 출신 항일투사 박재혁 생가 복원하자』
- 2017.09.27. 부산일보, 『10월 부산 관광 어디 가지? 사직야구장 '봉다리응원'』
- 2018.10.17. 국제신문, 『독립운동 박재혁 의사 기념관, 모교 개성고에 만든다』
- 2018.12.12. 국제신문, 『민주주의의 길을 그리며 /전진성』
- 2019.02.19. 부산일보, 『구포1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구포장터를 태극 물결로"』
- 2019.02.20. 부산일보, 『동래구, 100년 전 ‘동래3.1독립만세운동’ 재현』
- 2019.02.21. 국제신문, 『‘동래 만세 거리’서 일제 맞서던 그날을 기리다』
- 2019.02.28. 부산일보, 『[3·1절 100주년] 유공자 선정에 웃고…“父 독립운동 사실 93년 만에 알아”』
- 2019.03.03. 부산일보, 『“천년의 맛, 전통 기장미역 어때요”』
- 2021.03.09. 테크월드, 『부산 북구, 구포장터 3·1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2019.04.03. 국제신문, 『부산 원도심 투어, 관이 길 터주고 민간이 꽃피우다』
- 2019.04.16. 국제신문,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 2019.06.05. 부산일보, 『속도 내는 ‘온천천 통합 관리’ 동래·금정·연제구 합동 토론회』
- 2019.09.18. 부산일보, 『국가기념일 된 부마민주항쟁, 지역 시민의 위대한 역사다』
- 2019.10.07. 부산일보, 『온천천, 성대한 축제로 물들다』
- 2019.11.05. 부산일보, 『기장미역, 국내 최초 ‘MSC 국제 인증’』
- 2019.12.26. 국제신문, 『부산 중구,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안내판 설치』
- 2020.01.20. 부산일보, 『부산 중심 황령산, 105m 전망대 세운다』
- 2020.04.19. 부산일보, 『[포토뉴스] 민주공원 꽃구경 ‘북적’』
- 2020.08.21. 한국일보, 『우장춘, 그에게 농업은 애국이었다』
- 2020.09.10. 오마이뉴스,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의 친구들①』
- 2020.10.15. 국제신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1> 10월의 트라우마- 해직연론인 강경수』
- 2021.01.31. 부산일보, 『해인사·감천문화마을 부울경 명소 15곳 ‘한국 관광 100선’ 선정(종합)』



- 2021.03.28. 부산일보, 『사직야구장서 봉다리 응원 사라지나…부산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추진』
- 2021.05.09. 부산일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전시와 판화로 만난다』
- 2021.07.13. 국제신문, 『미역·다시마특구 기장군 “전국 누구나 맛볼 수 있게 다양한 사업”』
- 2021.08.19. 문화일보, 『“황령산 전망대, 자연과 지형 친화적 건축으로 가치 높일 것”』
- 2021.09.08. 국제신문, 『부산의 민주운동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홍순권』

